

法輪大法義解

파룬파파의해

李洪志

머리말

法輪大法(파룬따파)의 보도(輔導)사업을 더욱 잘하기 위해, 연구회와 각지 보도소의 요구에 따라 내가 보도원회의에서 한 설법과 해법(解法)을, 나의 심사를 거쳐, 지금 정식으로 출판한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사람 중에는 기타 성(省), 시(市)의 소수 보도원도 있었다. 내가 설법하고 해법한 후, 일부 사람이 녹음에 근거하여 문자로 정리하였으며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그것을 서로 베끼고 복사하였다. 나는 설법하고 해법할 때 모두 특정한 환경, 특정한 조건과 구체적인 대상을 상대로 진행한다. 그러므로 이런 요소를 떠나 전해지는 베끼고, 내가 말한 대법을 다른 뜻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오해하게 할 수 있으므로 대법을 전파하는 데 불리하다.

『法輪大法義解(파룬따파의해)』는 보도원들의 내부 독서용으로 출판 발행한다. 매 보도원은法輪大法(파룬따파)를 전파할 때, 자신에 대해 책임지고, 수련생에 대해 책임지며, 사회에 대해 책임지고, 대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선전과 문제해답을 할 때는, 받아들이는 이의 대법에 대한 이해 정

도와 감당 능력에 따라 알맞게 대법을 홍보해야 한다.

리홍쓰(李洪志)

지도하는 것은 오로지 『轉法輪(전법륜)』이다. 이 속에는 속
인에서 시작하여 줄곧 비할 바 없이 높은 내포를 포함하고
있다. 오로지 당신이 수련하기만 하면 『轉法輪(전법륜)』은
영원히 당신이 수련하여 제고되도록 지도할 것이다.

『轉法輪(전법륜)』은 문장의 표면에서 화려하지 않으며,
심지어 현대어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만약 현대
어법으로 이 한 권의 대법(大法)을 정리한다면 엄청난 문제
가 나타날 것인바, 문장의 언어 구조는 규범적이고 멋지지만
도리어 더욱 깊고 더욱 높은 내포(內涵)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현대의 규범적인 어휘는 대법(大法)의 더욱 높고
부동(不同)한 층차(層次)의 지도와 법의 매 한 층의 표현,
수련생의 本體(번티)와 공의 연화(演化)와 제고, 이런 실질
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에 이르기까지 전혀 표현(表達)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한 부 『의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보도(輔導)하
여 『轉法輪(전법륜)』을 잘 배우게끔 하기 위해 출판한 것이
다. 희망하건대 대법제자들이 법을 스승으로 모시고 교란을
배제하여 착실하고 착실하게 수련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
로 정진(精進)이다.

리홍쓰(李洪志)

1996년 1월 5일

재판(再版)을 내면서

『法輪大法義解(파룬따파의해)』를 처음 출판한 것은, 주로 보도원(輔導員)의 소질과 보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일반적인 신(新) 수련생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곧 대법에 손실과 교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발행범위를 축소하였다.

전국적으로 제자들이 법을 배우고 실속 있는 수련을 전개한 후부터, 여러분은 대법을 더욱 깊이 이해하였다. 실속 있는 수련을 거쳐 진정하게 대법의 홍대(弘大)함과 충차를 제고하는 긴밀한 관계를 체득하였고, 인식 면에서 뚜렷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法輪大法義解(파룬따파의해)』 재판(再版)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의 경향을 주의해야 하는데, 대법 속에서 신기(新奇)함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확실히 끊임없이 내가 또 무엇을 말하였는가, 또 어떤 새로운 책이 있는가, 또 어떤 새로운 지시(精神)가 있는가, 어떠한가…… 등등을 찾는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착실하고 착실하게 수련해 나가야 한다. 사실 또 얼마나 많은 경(經)을 출간하든지 간에 모두 『轉法輪(전법륜)』에 대한 보조 자료이다. 진정하게 수련을

차 례

| | |
|---|-----|
| 창춘(長春)法輪大法(파룬따파) 보도원을 위한 설법 | 1 |
| 베이징(北京)法輪大法(파룬따파) 보도원회의에서 하신 건의 | 101 |
| 전국 일부 보도소 소장들을 위한 광저우(廣州) 설법 | 129 |
| 베이징(北京)法輪大法(파룬따파) 보도원회의에서 말씀하신 정법(正法)에 관한 의견 | 166 |
| 재판(再版)을 내면서 | 192 |

보았고 어떤 수련생은 불상을 가지고 개광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사람이 부처에게 절하는 그 순간에 내보내는 마음은 가장 자비롭고 가장 선량하며 가장 좋은 마음이다. 당신의 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으로 하여금 관음보살의 형상을 보게 한 것이다. 사실은 모두 내 법신의 현현(顯現)이다. 예전에 나는 수련반에서 이 문제를 모두 말한 적이 있다.

法輪大法(파룬파파) 베이징(北京) 총보도소 녹음

은 꿈에 우리의 보도원을 보고, 우리의 소장 또는 다른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것은 당신 자신의 생각에 당신의 공간장이 더해진 것이고, 당신 공간장의 이런 대응관계가 반영되어 나온 것인데, 이런 것을 이용해 당신 공간장(空間場) 범위 내의 이런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그 밖에 어느 정도로 수련되었는데, 만약 자물쇠로 잠가놓지 않았다면 신체가 분리(分身)될 수도 있다. 즉 그의 主元神(주웬선)과 신체가 분리(分身)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아주 작고 아주 낮은 층차에서 하는 행위이다.

제자: 어떤 사람은 위태(韋駄) 보살이라고 자칭할 뿐만 아니라, 스승님께서 수련생에게 넣어주신法輪(파룬)을 꺼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사부: 그것은 그가 자심생마(自心生魔), 자심연화(自心演化)한 것으로 그 자신이 생각한 것이다. 그가 꺼냈는가, 꺼내지 못했는가? 꺼냈다는 것은 그 자신이 생각한 것이다. 그의 공간장 범위 내에서 자신이 생각한 그림자이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도 무슨 위태보살이라고 자칭하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나는 일찍이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말한 적이 있다. 말법시기에는 고층차에 있는 그도 모두 겁난 중에 있다.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은 모두 보호하였고, 보호하지 않을 것은 모두 폭발함에 따라 훼손(銷毀)해 버렸으며, 지금은 아무도 없다. 허다한 사람들이 관음보살을

창춘(長春)

法輪大法(파룬파)

보도원을 위한 설법

李洪志

1994년 9월 18일

각 분보도소에서 조직하되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과 함께 짤 수 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무슨 특수한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만큼 말하겠다.

나는 또 일부 수련생들이 각 연공장마다 순회하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다. 각 연공장을 다니는 것도 역시 좋은 일로서 연계를 강화하고 서로 경험을 교류하기 때문에 역시 아주 좋다. 하지만 일부 사람은 어떤 연공장에 가서 과시심을 드러내는 것 같다. 즉 나는 무슨 소식을 알고 있다면서 골목 소식을 전하거나 혹은 이런 일을 당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고 한다. 늘 어찌하려는……. 잠재적인 그런 조그마한 조짐이 있다. 조금이라도 이 법을 이용해 자신을 높이려는 것 역시 과시심이다. 물론 아주 두드러지게 자신을 높이려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과시심이 조금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과시심은 수련자 중에서 사람을 심하게 해치는 것이다.

제자: 개오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법신이 있을 수 있느냐고 어떤 사람이 제기했습니다.

사부: 개오하지 못한 사람은 주의하라! 개오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만약 부처의 경지로 수련되었다면 역시 법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수련생은 아직 하나도 없으며 지금 다른 공파의 기공사를 포함하여 아직 하나도 없다. 내가 알기로 법신이 있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다. 왜 어떤 사람

것을 싫어한다. 최근 한 시기 우리 보도소나 분(分)보도소, 또는 우리 각 연공장의 보도원이, 확실히 대량의 일을 했기에 우리 이 법이 오늘날 이렇듯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물론 법이 좋은 것이 한 방면이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여러분이 많은 공헌을 하였고 이 법을 수호하고 이 법을 선전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데 사실 이 법은 본래 우주의 법으로서 여러분을 포함하여 당신들은 모두 이 법 속에 있다. 그렇다면 이 법 역시 당신들의 것이다. 이 법을 수호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 법을 선전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 법을 널리 전하는가 전하지 않는가, 장래에 가서 이 법에 동화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이것은 모두 당신들 여러 사람 자신의 일이다. 나는 다만 법을 말하여 이 한 갈래 바른길로 이끌 뿐이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다. 장래에 진정하게 원만을 이룬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이 수련한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여러분의 너무 많은 시간을 점하고 싶지 않다. 본래 많은 사람이 스승님께서 보도원회의에서 어떤 고충차의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자 왔는데, 모두 구하고자 하고, 집착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마음을 품고 왔다. 이는 아주 좋지 않다고 나는 말한다. 나는 더 말하고 싶지 않으므로 곧 이만큼 말하겠다. 만약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다면, 특수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시간을 좀 줄 테니 여러분은 제출하라. 베이징 총보도소에서 사진촬영을 배치했으므로 잠시 후에 보도소,

창춘(長春)法輪大法(파룬따파) 보도원을 위한 설법

李洪志

1994년 9월 18일

여기에 앉은 여러분은 모두 보도원과 골간(骨幹)으로서法輪大法(파룬따파)의 설립, 특히 창춘(長春)의法輪大法(파룬따파) 설립에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러 연공장의 수련생들이 매우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 보도원이나 골간은 일부 문제에 대해 대답하기 어려워하거나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한 가지는 법에 대한 이해가 투철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우리는 전수반(傳授班)에서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었기에 오로지 법을 투철하게 이해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대답할 수 있다. 이것이 한 가지 원인이며 또한 가장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또 한 가지는 수련생들이 제기한 일부 구체적인 문제들은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보도원이 직접 수련생과 접촉할 때 많은 구체적인 문제는 대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나는 줄곧 이런 한 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내가 법을 이미 보편적이고도 개괄적으로 말하였으므로 당신 자신의 수련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이 법에 따라 하면 된다. 만약 무

엇이나 다 말해 준다면 당신 자신은 수련할 것이 없으므로 나는 더 많이 말할 수 없다. 더 말한다면 내가 당신을 끌어서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남은 것은 일부 실제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어떤 수련생들은 여전히 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 그는 나에게 묻지 못하므로 또 우리 보도원이나 연공 시간이 비교적 긴 노(老) 제자에게 묻고자 한다. 그러나 보도원이나 노 제자들도 자신이 직접 부딪쳐보지 못한 문제는 역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함께 단체 연공을 하라고 하는가? 문제에 부딪혀 서로 연구 토론하고 공동으로 탐구하면 이러한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 자기 혼자서 연공하다가 문제에 부딪히면 알 수가 없어 매우 곤혹스럽지만, 연공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면 많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사실 한 문제를 파악함에 心性(썬쌩)에서 찾는다면 어떠한 문제든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또 일부 실제적인 문제는 보도원들도 해결하기가 확실히 아주 까다로우므로, 이런 문제들을 위해 내가 여러분에게 한 차례 모임을 갖게 한 것이다. 이 역시 창춘 보도원들의 남다른 소득으로서 다른 지역에는 아직 이런 기회가 없었다. 내가 이번에 돌아와서 많은 문제를 처리해야 함을 수련생들이 모두 알고 있기에 되도록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전화벨이 한 번 울려도 나를 몹시 교란할 수 있다고 여겨 많은 수련생은 전화조차 걸지 않는데, 나는 이 점을 알고 있다. 여러분을 소집

의를 좀 봐주고 아예 그를 올라오게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 여러분 아다시피 내가 오늘날 전한 것은 법이고, 이 법은 우주 중의 법이라, 만약 내가 법에 따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앞장서서 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 의해 수련해야 한다. 좋기는 좋은 것이지라 사람을 제도할 수 있고, 또 사람을 구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법을 깨닫고 어떻게 법을 인식하는지에 달렸다. 여러분을 불러온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한 것으로서, 절대 내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보고 여러분을 나무라려고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고 여기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다. 내 생각에 일부 문제는 제때에 지적해 주는 것이, 나중에 지적해 주는 것보다 낫다. 우리 각 지역 보도소에서는 자격이 없는 소장, 그리고 보도원을 바로 교체하였는데, 연후 이 사람들은 급브레이크를 밟고, 서서히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또 새롭게 수련을 시작했다. 그는 이 소장 혹은 보도원 소임을 상관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끝까지 수련할 수 있었으며, 하려던 것을 중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결실이 있어, 그 자신 역시 인식하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수련하게 되었다. 일부 사람은, 우리가 그에게 재삼 기회를 주었건만 그는 줄곧 깨닫지 못해 최후에는 이미 때가 늦어 완전히 떨어져 내려가게 되었으며 마(魔)의 그런 상태로 변했다. 이것은 교훈이 아닌가!

나, 이 사람은 가식 없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예들려 말하는

당신이 앞으로의 수련 중에서도, 이후의 제고 중에서, 혹은 부동한 시기에 이 책을 보면, 당신은 당신을 지도할 모든 것이 이 책 속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 법은 부동한 각도, 부동한 성분, 부동한 상황에서 말한 아주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나는 법을 모두 같은 상황에서 말하였다. 그러므로 당신이 깨닫는다면 모두 수확이 있을 것이다. 오로지 여러분이 법을 잘 배우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나는 말한다. 나의 세 번째 책-『전법륜』이 곧 출판될 것이다. 내가 강의한 전반 내용을 포함하여 비교적 전면적인 것으로 곧 나올 것이다. 먼저 이 책을 만나고, 이득을 볼 사람은 바로 베이징 수련생들이다. 우리 여러분은 법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법을 잘 깨달아야 한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정한 제고를 얻게 하려는 것이기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 이처럼 긴급하게 여러분을 소집한 것도 역시 여러분이 장래의 수련과정 중에서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내가 당신을 바른길(正路)로 이끌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둘까 봐 걱정되어서이다. 이러면 나도 여러분에게 미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소집하여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말해 주는 것이다. 수련의 일은 여러분 자기의 일로서 장래에 누가 떨어지고 누가 안 되든, 나 여기서는 편의를 봐 줄 수 없다. 만약 내가 보기에 그가 괜찮다거나 혹은 나에게 사정을 봐 달라고 하여, 우리가 편

함은 여러분에게 일부 문제를 해답해 주려는 데 있다. 총보도소에서 일부 수련생의 심득체험, 그리고 일부 귀납(歸納)한 문제도 보내왔지만 나는 미처 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세 번째 책-『전법륜(轉法輪)』을 수정하고 있으며 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답함은 주로 여러분이 앞으로 일함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나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말해야겠다. 이 자리에 앉은 보도원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동작을 보도(輔導)하는 것만 책임져서는 안 되며, 마땅히 법(法)을 투철히 이해하고 진정으로 파악해야 한다. 책을 많이 읽고 녹음을 많이 들어야 한다. 최저한도로 일반 수련생보다 많이 알아야만 비로소 진정하게 보도원을 잘할 수 있으므로 법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수련생이 무슨 문제가 있다면 최저한도로 일반적인 해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지도적 역할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대체적으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하게 고층차로 공을 전(傳)하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며, 바로 진정한 수련이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절에서나 혹은 심산(深山) 수림 속에서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것과 무슨 구별이 없다.

우리 이 법은 주로 속인사회 중에 열어놓았으며 대부분은 속인 중에서 수련한다. 그래서 우리는 속인 속에서 수련하는 수련인의 표현이 마땅히 속인과 기본적으로 일치할 것을 요

구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한 연공장의 책임자는 곧 절에서 수련하는 주지(住持)나 방장(方丈)과 같다. 나는 다만 비유를 했을 뿐이고 우리에게 관직을 주거나 요구조건을 들어줄 사람은 없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일종의 수련형식이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 그것은 그래 마찬가지로 아닌가? 한 무리의 수련인을 잘 이끌면 공덕(功德)이 무량(無量)한 일이다. 잘 이끌지 못했다면 바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곧 이런 하나의 목적에서 여러분을 소집하였다. 총보도소의 책임자가 나에게 이런 문제를 말했다. 다시 한번 수련반을 열지는 않으십니까? 내 생각에 이 법을 너무 명료(明瞭)하게 말해도 여러분의 수련에 불리하다. 그렇게 되면 속인 중의 이치가 되어버리기에 우리는 속인 속에서 어찌어찌하게 수련하는 문제를 말할 필요가 없다. 잠시 후 나는 쪽지로 올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러분에게 해답해 주겠다.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더 제출하라. 그 무슨 지식 탐구에 관한 것은 제출하지 말고, 국가 정책에 관련된 문제도 제출하지 말라. 우리가 수련과정 중에 부딪히는 비교적 전형적인 문제, 주로 이런 문제들을 해답하겠으니 여러분은 제출하라.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라고 통지한 것은 다만 보도원과 대법 일꾼들이다. 앞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을 절대 데리고 오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많이 오면 어떤 일들은 처리하기가 어렵다. 모두 보도원이기 때문에 본래 좀 높게, 좀 구체

洪志)보다도 더 낫다.” 그가 어떻게 말하든지 모두 괜찮다. 나도 그를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法輪大法(파룬파파) 보도원의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 나중에 좋게 변했다면 그에게 다시 소장이 되라고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 또한 부정적이고 경직된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질책하지는 뜻이 없다. 우리는 사람보다 일에 대해서 예를 들었을 뿐이다. 기타 지적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없는가? 역시 있다. 다만 이처럼 뚜렷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이미 말한 적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법 공부 붐을 일으켜, 법 학습열을 북돋워야 한다. 법을 잘 깨달아야 한다. 오로지 이 법을 잘 깨달아야만 누가 함부로 하려 해도 시장이 없게 되며, 그가 생각을 움직이거나 한마디 말을 해도 당신은 그가 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는데, 당신이 말해 보라. 그에게 시장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가 왜문사도(歪門邪道)를 하려 해도 시장이 없는데, 틀림없이 이러하다.

여러분은 이 법이 좋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사실 나는 매 차례 학습반에서 모두 다른 각도에서 말하였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들은 스승님의 이 강의는 이렇고, 저 강의는 또 저렇다고 말한다. 사실 모두 같은 문제를 나는 다른 각도에서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매 차례 말한 법을 만약

로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우리 보도원, 이 한 층에서 이러한 일을 말하는데, 이러한 일을 너무 중하게 보지 말아야 하며 너무 중하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이 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상관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우리는 바로 바꿔야 한다. 우리는 수련생에 대해 아무런 요구도 없다. 당신이 배우려면 당신이 배우고, 당신이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또 무슨 방법이 없다. 그러나 당신이 배웠다면 우리는 당신을 책임지기 위해 당신에게 말해준다. 하지만 보도원으로서 안 된다. 당신이 잘하지 못한다면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며 다른 사람을 교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문사도(歪門邪道)를 하는 보도원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바로 바꿔야 한다. 여기에서 정중하게 여러분에게 제기한다. 쓰지칭(四季靑) 공원 연공장의 한 수련생은 한동안 아주 말이 아니게 일을 처리하고서도, 지금까지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도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은 마땅히 그 자신이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는 아무런 표현도 없다. 또한 듣는 말에 의하면 영향이 아주 좋지 못하다. 그가 나에 대해 어떻게 했든, 앞에서 어떻게 했든, 뒤에서 어떻게 했든, 그가 이 법에 영향을 주었다면 더는 보도원이 될 수 없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말한다. “내가 바로 부처이다, 나는 누가 온 것으로, 나의法輪(파룬)은 집만큼 크다.” 혹은 “나는 리홍쯔(李

적으로 말하여 앞으로 보도원 업무에 편리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수련생으로서 수련반에 한 번밖에 참가하지 못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직 수련반에 참가한 적도 없는데 단번에 이렇게 고심(高深)한 것을 들으면 받아들이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며, 또한 쉽게 그의 사상에 저촉(抵觸)하는 정서를 생기게 하여 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

보도원은 책임을 지고 신수련생들의 동작이 정확하지 않으면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일부 노수련생들의 동작은 이미 괜찮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연공이 끝난 다음 알려 주라. 입정(入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연공 중일 때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신수련생은 반드시 도와주어야 하고, 일부 사람이 문의하면 인내심 있게 잘 해석해 주어야 한다. 우리 연공장의 모든 수련생은 중생을 널리 제도해야 하는 이런 책임이 있다. 무엇을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중생으로 하여금 법을 얻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하게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와서 묻는데 당신이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되겠는가?

보도원의 연공은 반드시 전일(專一)해야 한다. 전일하게 연공하지 못하는 그런 수련생들에 대해 그에게 알려주고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확실하게 전일하지 않고 그가 그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에게 여기를 떠나 다른 공(功)을 연마(練)하라고 권고하여 우리 수련생을 교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 그가 정말로 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는 연마(練)해도 얻지 못할 것인바, 이것은 오성(悟性)이 좋지 못해서다. 우리 불가(佛家)는 자비를 출발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를 한번 혼내주겠다고 하는 그것은 안 되며, 심하게 정법(正法)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병을 봐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 연공장에 와서 병을 보게 하는데 이는 모두 대법을 파괴하는 짓이다. 이것은 하나의 매우 엄숙한 문제로서 누구도 이렇게 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곧 나의 제자가 아니다. 만약 보도원이 이렇게 했다면 즉시 사람을 바꿔야 하는데, 이 두 가지 현상은 확실하게 근절시켜야 한다.

보도원은 일에 대해, 되도록 책임을 져야 하며 번거로운 일이라도 주동적으로 해야 한다. 어떤 보도원은 아마 나이가 많아서 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자신의 감각은 좋지만, 설명이 분명치 않다면 조수(助手)를 찾아서 보도원 일을 협조하도록 할 수 있다. 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 당신 개인의 득실(得失)에 따를 것이 아니다. 당신 개인의 득실이라 하더라도 법과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보도사업을 함에 개인적인 각종 염두를 섞어 넣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개인과 단체 수련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도원의 동작은 되도록 정확해야 하며 되도록 비디오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아야 하는바, 대체로 같아야 한다. 사소한

역설적으로 말하면, 보도원을, 우리 많은 사람은 그것을 일종의 직함으로 여긴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속인 중의 그런 직위나 직무 이름으로 부르지 말도록 하는바, 보도원이란 본래 무슨 벼슬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연공장에서 남한테 거만스레 군다면 사람들은 당신과 등을 돌리고 상대하지 않을 텐데, 당신은 또 어찌할 방법이 없다. 당신이 계속 잘못한다면 연마하러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권력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은 모두 열성에 의해 무보수로 이 일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 처리 방식에서도 좀 주의해야 한다. 기왕 무슨 권력이 아니고 무슨 직위가 아닌 이상, 내가 생각하건대 보도원을 바꾸는 그것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나에게 보도원을 하라고 하면 하고, 나에게 보도원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한 일반적인 연공자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 연마하면 된다. 사실 보도원은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당신에게 보도원을 맡겼다고 해서 당신이 수련성취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단지 여러 사람을 위해 공헌을 좀 더 하고 마난(磨難)을 좀 더 많이 받으며 일을 좀 더 많이 감당할 뿐이다. 그런데 많은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보도원을 바꾼 후로 의기소침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패거리를 짓는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런 일은法輪大法(파룬파파) 속에서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수련하는 사람들

시로 출국할 수 있으며 생활조건은 여기보다 좋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러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명예나 이익이나 향수(享受) 같은 이러한 일을 나는 모두 추구하지 않으며, 그러한 것은 나에게 전혀 무슨 소용이 없다. 그러나 내가 없는 상황에서 아마 어떤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이러한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련을 지도하기 위해 내가 없는 상황에서 일체 일은 모두法輪功(파룬궁)연구회에서 통일적으로 결정을 내리며 통일적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수련한다. 이전에 연구회에서 내린 모든 결정은 모두 나의 동의를 거친 것이다. 연구회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결정을 내려도 나와 전화, 팩스로 연락을 취한 후에야 내린다. 또 한 가지가 있다. 나도 그들에게 말했지만, 이 역시 연구회 자체에 대한 고함이다. 내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감에, 잘하는지 못 하는지를 보고 있는데 이 역시 그들에 대한 고함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건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내 신변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나의 일 처리 방법에 대해,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 법의 보급 및 정체적으로 하려는 일에 대해 그들은 그래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려준다. 내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회가 내린 결정을 우리 전국 각 지역 보도소에서는 모두 따라야 하며 집행해야 한다. 이는 보도원으로서 더 미룰 수 없는 책임이다.

차이마저 없게 하기는 어렵다. 절대적으로 일치하여 모두 하나의 목판으로 찍어낸 것처럼 같아야 한다면,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일치하면 되지만, 단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된다. 특히 보도원인 당신이 그런 상태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곧 빗나가게 된다.

다음으로 문제해답을 시작하겠다.

제자: 형신구멸(形神俱滅)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부: 형신구멸(形神俱滅)은 하나의 오랜 용어로서 우리는 그것을 형신전멸(形神全滅)이라고 한다. 구(俱) 자의 발음이 좋지 않다. 멸(滅)은 곧 흩어져버린다는 것인데, 구(俱)와 취(聚)는 음이 같고, 취(聚)는 곧 그에게 합한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앞으로 형신전멸(形神全滅)이라고 부른다. 물론 책에는 여전히 형신구멸이라고 써어있기도 하다. 이 책은 아직도 과도기의 도서에 속한다. 우리가 첫 번째 책, 『파룬궁』을 써냈을 때는 저층차의 기공과 일부 방면에서 아주 유사했다. 두 번째 책 『파룬궁』(수정본)은 기공보다 훨씬 높아졌다. 나는 지금 내가 강의한 전체 법을 정리하고 있다. 장차 써내면 곧 우리를 지도하는 진정한 수련대법으로 될 것이다. 새 책에서는 많은 어휘가 다 바로잡힐 것이다.

형(形)이란 곧 유형(有形)의 신체(身體)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공간의 신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각 공간에는 모두 당신의 신체가 존

재하는데, 모두 유형적이며 모두 물질 존재이다. 줄곧 극히 미시적인 데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체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으면, 곧 사람은 그만큼 많은 신체가 있다. 형신전멸이란 곧 이런 신체들이 모두 존재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신(神)이란 곧 사람의 元神(웬션)을 가리킨다. 主元神(주웬션)이거나, 副元神(푸웬션)이거나, 각종 생명체를 막론하고, 형신전멸 할 때면 그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다! 전체 우주 중에서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는바, 전멸해 아무것도 없다. 물론 무한히 미시적인 물질은 여전히 존재한다. 나는 진공(眞空) 역시 물질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 현대 물리학의 연구는 겨우 중성미자 이 층차에 도달했을 뿐인바, 그 최소의 물질은 중성미자이다. 이는 물질의 근원인 본원 물질(本源物質), 최소의 생명인 본원 물질과는 아직 그 거리가 상당히 멀고 상당히 멀다. 극(極) 미시하의 물질이 隳멸(銷毀)되어 가장 원시의 상태로 될 때 우리는 형신전멸 한다고 말한다. 다시 가장 원시적인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물질은 곧 존재하지 않으며, 아주 높은 층차에 있는 대각자(大覺者)마저도 볼 수 없다. 또한 사유(思維)가 없고 완전히 흩어진 가장 미시적인 형식인데, 과거에는 고층차에서 대법(大法)을 위반했을 때만 이렇게 처리하였다. 인류의 隳멸 역시 이런 것으로, 그가 이미 가장 낮은 층차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곧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 누가 잘 배웠고 누가 수련을 잘했다면 바로 그가 이 일을 해야 하는바, 여기에서 여러분에 대한 나의 요구는 높다. 나는 아래의 상태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는 어쨌든 베이징이잖은가.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연구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심이 여기에 있다. 만약 여기에서 잘하지 못한다면 곧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준다고 나는 말한다.

너무 많이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어쨌든 부족한 점이기 때문이다. 내가 여러분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말한 것은 역시 부족한 점이다. 이 회의에 다른 사람이 참가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 역시 앞으로 여러분의 대법 일에 지장을 줄까 봐 우려해서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오로지 우리 보도원만 참가하도록 했다. 나는 우리 보도원들이 술선수범하여 그러한 일을 잘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공파(功派) 건설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므로 내가 생각하건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이런 한 가지 소문이 있다. 리홍쯔(李洪志)가 출국할 것인데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나를 일반적인 속인과 마찬가지로 여기고 있다. 내가 출국하면 어디에 가서 품팔이하여 돈을 좀 벌어서 돌아오거나 혹은 거기에 정착하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는 국외에 친척이 있어 나는 수

적해 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보도원으로서 우리에게는 책임문제가 있다. 당신이 잘하지 못한다면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 의해 잘못될 수 있다. 만약 이 한 무리 사람이 모두 당신 때문에 잘못된다면 자신이 어떠한을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한 무리의 사람을 망쳐버린 것이다! 나는 늘 이 문제, 일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말하였다. 물론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 점이 있으나 우리는 이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여러분이 모두 일을 하려는 이러한 마음이 없으며 누구도 이 보도원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대법 일도 잘 전개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여러분은 모두 이 일을 열정적으로 하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출발점은 반드시 이 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법을 배우고 법을 얻으며 법을 널리 전하고 사람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출발점은 전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점에서 우리는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앞으로 우리 보도원은 반드시 이 법을 투철하게 소화해야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학습반에 참가하지 못한 그런 수련생을 포함하여 반드시 이 법을 투철하게 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도원에 대한 표준 역시 높은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우리들은 좋은 사이이며, 예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면서 그를 끌어들이어 보도원이 되게 하는데 모두 이 문제를 이렇게 대하

다시 말해서 우주 중에서 철저히 그를 제거해 버리는데, 사유가 없고, 거의 물질이라고는 없는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원시적인 상태로 휘멸된다.

제자: 남불(男佛), 여불(女佛)의 성별은 수련인(修煉人) 육신의 성별입니까, 아니면 主元神(주원선)의 성별입니까?

사부: 사람이 수련하여 出世間法(추쓰젠파) 수련에 이르면 이미 나한과위(羅漢果位) 수련에 진입한 것으로서 곧 초과나한(初果羅漢)이다. 그러면 부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당신은 이미 불체수련(佛體修煉)을 하는 것이다. 나한은 초과나한(初果羅漢), 정과나한(正果羅漢)과 대나한(大羅漢)으로 나눈다. 매 층차의 거리는 모두 아주 크다. 대보살은 가히 불타(佛陀)라고 말할 수 있다. 나한과위에 도달하여 수련할 때 개오(開悟)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남자 몸(男身像)으로 나타난다. 당신은 속인 중에서 수련하기에 당신 육신의 성별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의 육신이 잠시는 남자로 잠시는 여자로 된다면 무슨 모양이겠는가! 과거에 어떤 사람은 수련하여 나한과위에 도달해 원만(圓滿)에 이르렀다. 원만은 또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과는 같지 않다. 만약 사람이 단지 나한과위로 수련하여 원만하고 그가 더는 높은 데로 수련하여 올라가지 못한다면 정(定)해지기 시작한다. 그가 일단 개공(開功)한 다음에는 원래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모두 남자 몸으로 나타난다. 그의 신체는 그가 수련해

낸 불체(佛體)이기 때문에 나한과위에서는 모두 남체(男體)로 나타난다.

진정한 元神(웬선)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 그의 그 신체가 고에너지물질로 전화(轉化)된 것이든, 그가 수련해 낸 그 금강불괴지체(金剛不壞之體)이든, 열반(涅槃)할 때 부처가 그에게 준 그 불체이든, 나한과위에서는 모두 남자 몸(男身像)으로 나타난다. 보살 경지에 도달하면 모두 여자 몸(女身像)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元神(웬선)의 성별은 변하지 않는다. 부처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그는 여전히 신체(身體)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신체는 고에너지물질로 구성된 것일 뿐이다. 더 높아도 신체를 갖고 있는데 바로 부동한 공간의 신체[불체(佛體)]다. 부처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성별은 主元神(주웬선)의 성별로 회복되어 남자 부처(男佛)는 곧 남자 부처이고, 여자 부처(女佛)는 곧 여자 부처이다.

제자: 本體(번티)와 불체(佛體)를 수련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부: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本體(번티)는 저층차 수련 중의 한 개괄적인 용어로서 당신의 각개 공간의 신체를 가리키는데 당신의 육체도 포함한다.

제자: 정법(正法)을 얻고 정과(正果)를 이루면 원만(圓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일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일을 좀 찾아 하려고 하지만 역시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아주 두드러진 문제이다. 어떤 사상을 갖고 법을 대하는가 하는 이것은 아주 엄숙한 문제이다!

사람이 수련함에, 진정으로 고층차상의 수련을 하는 그것은 바로 남을 제도하고 자신을 제도하는 문제이다. 당신이 이 사상요구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 사업을 잘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이 아닌가? 나는 재삼 강조하는바, 나는 전국 각지에서 모두 이 문제를 말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직장, 하나의 경제단체 혹은 하나의 기업, 사업단체로 만들 수 없다. 나는 늘 이 사례를 든다. 석가모니가 그 당시에 법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런 형식으로 들어갈까 봐 우려하였다. 그때에는 아직 이러한 문제에 연관되지 않았고 다만 명(名)과 이(利)에 대한 추구에 관련되었을 뿐이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명(名)과 이(利)를 전부 끊게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산굴에서 수련하게 함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게 하고, 물질적인 것에서 두절시켜 사람의 각종 집착심, 명리에 대한 집착을 모조리 없애 버리게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또 속인사회에 있으며 여러분은 속인사회에서 수련하는 것으로 모두 스스로 수련하고 있다. 사실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을 나무라려는 뜻이 조금도 없다. 여러분의 수련을 책임지기 위해, 당신에게 고층차로 가는 수련에 지장이 오도록 심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지

므로, 이런 일을 말할 따름이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상황이 우리 보도원 중에서 반영되어 나왔는데 바로 일종의 일을 하려는 마음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이고 바로 우리 오늘날 이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났고 특수한 역사시기에 나타났다. 왜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역사상 우리 중국인 혹은 세계 다른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가정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대인, 특히 우리 중국인은 모두 자신의 사업이 있으며 한평생 사업을 하는데 만약 사업이 없으면 정신이 붕괴한다. 이런 한 가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法輪大法(파룬파파)를 일종의 사업으로 간주하면서 하고 있다. 많은 보도원 역시 이런 심태다. 그도 법이 좋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전제는 긍정적인 것으로 그는 좋은 것을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이 어떻게 법 공부를 잘하고 법을 잘 인식하며 어떻게 법에서 자신을 제고하겠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그는 만년에 이르렀고 지금 또 퇴직하였거나 오래지 않아 퇴직할 것이다. 할 일이 없는데 이번에 일을 좀 찾아하게 되니 이 얼마나 좋은가, 이 공(功) 또한 좋다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런 생각은 우리 법의 요구와 거리가 십만 팔천 리나 차이가 난다. 우리는 이 법에 대해 책임져야 하지, 당신 개인적인 정서를 책임지는

滿)으로 여기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수련해야만 비로소 원만한 것입니까?

사부: 원만과 우리 과위(果位)의 높고 낮음은 별도의 일이다. 당신이 나한과위까지 수련하면 당신은 이미 불체수련이다. 과거에는 오로지 여래(如來)만 부처라고 하였다. 지금은 부처가 비교적 많다. 구별하자면 여래 역시 일부 부처를 관할하는데 그런 일부 부처는 여래의 층차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보살을 초과하면 곧 부처라고 부른다. 대보살 또한 부처라고 부르며 심지어 나한과 보살까지도 부처라 불러 준다. 왜냐하면, 모두 불가(佛家)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이 나한과위로 수련되었으면 곧 불체수련 중에 있는바, 바로 이런 뜻이다. 그러나 비록 당신이 불체 상태에서 수련하고 있지만, 당신이 꼭 원만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람의 근기(根基)는 같지 않으며 감당능력 역시 같지 않다. 어떤 사람은 보살과위로 수련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처과위로 수련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더욱 높이 수련하여 여래의 과위를 능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만 나한과위로 수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느 층차에 도달하든지 모두 이미 삼계(三界)를 벗어났고 모두 과위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이미 정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만했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당신에게 보살과위(菩薩果位)에서 개오(開悟)하고 원만으로 수련성취 하계끔 배치하였다면, 설령 당신이 나한과

위에 도달하였다 해도 당신이 아직 수련하는 최종목적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만했다고는 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층의 관계이다. 당신이 대가를 얼마나 치르고 수련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한 만큼 얻게 마련이다. 당신이 비록 원만으로 수련되지 않았지만, 당신은 이미 과위를 얻었다. 그러나 어쨌든 아직 원만으로 수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층차문제가 존재하는바, 아직 수련의 최종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제자: 반본귀진(返本歸眞)은 정과를 얻는 것과 어떤 관계입니까? 본(本)과 진(眞)의 함의는 무엇입니까?

사부: 반본귀진(返本歸眞)과 속인들이 말하는 반박귀진(返樸歸眞)은 별도의 일이다. 우리가 말하는 반본귀진은 곧 당신의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당신의 본성, 당신의 본질, 당신의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당신이 속인사회 속으로 떨어져 옴으로써 이미 당신의 본래 면목은 덮어 감춰져 버렸다. 속인사회 중에서는 흑백이 전도(顛倒)되고 시비(是非)가 전도되니 당신은 되돌아가야 한다. 귀진(歸眞)이란 도가의 용어이다. 우리가 수련하는 이것은 아주 커 이미 불가 자신의 범위를 벗어났는바, 일부는 도가의 설이다. 도가에서 수련성취 하면 바로 진인(眞人)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로 수련된 것인데 그들을 진인, 진정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수호하고자 여러분에게 좀 많이 해석해 주려고 했으며 또한 여러분이 잘 터득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주요 원인은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을 잘해줄 수 없고, 말이 잘 나오지 않으면 자신이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 자기 생각에 따라 당연히 그러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법을 심하게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이 과시심이 발전하면 개인의 명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키워줄 수 있다. 왜냐하면, 과시심은 본래 명리에 대한 추구에서 발단하였기 때문이다. 더 발전해 나가면 종파를 만들고 그는 산적대왕이 되어, 당신들은 모두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리홍쯔(李洪志)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두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쨌든 수련생들도 모르므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칫하면 또 리홍쯔(李洪志)도 마(魔)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오로지 그가 마음대로 결정한다. 지금 우리는 이런 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들이 모두 몹시 엄중하게 표현되어 나왔다. 우리의 이 법 속에서, 우리 오늘날 이 자리에 앉은 보도원 중에서, 우리 베이징 여기에서 이런 유의 사건이 마땅히 더는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나타났다. 이는 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지금 몇 사람은 너무 지나치고 너무 말이 아니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맹목적으로 그를 숭배하고 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일에 대해 말하지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없다는, 이런 하나의 목적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하겠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길은 당신이 이 법을 깨닫고 투철히 소화하는 것이다. 그때에 가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물어도 당신은 모두 이 법에서 말하게 되므로 바로 이 법을 말하는 것이다. 공능상태의 각종 현상에 대해서는 그에게 말해 주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말해 보라. 각가지 공능은 만여 가지도 넘는 공능표현 형식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말해 주겠는가? 당신의 각종 상태, 이런 상태, 저런 상태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일개 수련인으로 간주할 때면, 당신은 그것을 상관할 필요가 없다. 어떤 상태는 당신이 감수가 있고 어떤 상태는 당신이 아직 감수하지도 못했는데, 그것이 벌써 지나갔다. 그 공능은 만여 가지도 넘는데 신체 속에서 그가 좀 움직이기만 하면 모두 감수가 있을 것이다. 그 공능 속에는 강대한 전기(電), 강대한 자기(磁)와 또한 다른 일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이기만 하면 당신은 모두 감수가 있어 모두 아주 민감해질 것이다. 당신의 각종 상태 그리고 당신이 연련(演煉)해 낸 각종 생명체로 말하자면 당신이 어떻게 그에게 이러한 일을 해석해 주겠는가. 당신은 그에게 이러한 일을 해석해 주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이러한 것은 모두 정상적인 반응이며 모두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 된다. 만약 법에 대한 이해가 투철하다면 우리는 법에 따라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예전에 무턱대고 이 법을

제자: 저는 영원히 수련하고자 발원(發願)하는데 스승님께서 저희에게 배치하신 길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부: 당신이 영원히 수련하겠다고 발원하는데 이 영원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지 않은가. 정과를 얻지 않고 원만하지 않으며 늘 수련한다고? 수련에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수련해서 고층차에 이르는 것은, 당신 자신이 발한 소원과 실제로 얼마나 높이 수련할 수 있는지에 근거하여 사부가 비로소 당신에게 배치하는 것인데, 모두 매우 과학적이다. 당신은 본래 한 덩이 강철(鋼)인데 당신을 철(鐵)로 배치한다면 그건 안 된다. 당신이 보살과위로 수련할 수 있는데 당신을 나한과위에 배치한다면 이 역시 안 된다. 매우 정확하게 보는 것으로 그곳에서는 조금도 잘못 보지 않는다.

제자: 우주 중에는 완전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사부: 어느 수련방법이든 한 대불(大佛)이 한 법문(法門)을 주재하는 것은 같다. 그러나 수련하는 방식은 같지 않다. 오늘 우리의 이法輪(파륜)과 같은 것은 없다. 하지만 또 일부 회전(旋轉)하는 것이 있는데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잖은가. 밀종(密宗)에서는 의념(意念)으로 일종의 바퀴를 밀어 돌리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것이 또 있는데 창춘(長春)의 모모(某某) 기공사 또한 태극 회전(太極旋轉)을 연마하지만 우리 이것과는 같지 않다. 그의 그것은 안으로 거둬들일 뿐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것과 같지 않다.

행성(行星)은 항성(恒星)을 둘러싸고 돌고, 전자는 원자핵을 둘러싸고 돈다. 모두 선기(旋機)가 존재하지만, 내포는 천양지차다. 아마 두 가지 같은 것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극히 적고 적다.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겠는데, 대각자들이 오늘의 일을 배치하였다면 우주 연화(演化) 과정 중의 일체 일은 모두 이 일을 위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우주 형성의 초기에 이미 최후의 대사(大事)를 위해 배치하였다면 많은 일이 확실히 모두 오늘날 말접시기에 최후의 한 차례 정법을 전하기 위한 배치일 것이다. 왜 본 세기(本世紀) 이 연대에 역사상 여태껏 없었던 기공 열조가 나타났는가.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왜 각종 각양의 공법이 나타나는가. 이것 역시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는 속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치 않다.

제자: 法輪(파룬)과 法輪世界(파룬쓰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부: 法輪世界(파룬쓰제)는 法輪世界(파룬쓰제)의 여래가 주재하는 대단히 방대하고 미묘(美妙)한 세계이다. 法輪(파룬)은 법(法)이 체현한 공(功)의 일면이기도 하고, 또 법 일면의 체현이기도 하다. 법의 한 면의 체현으로는 내가 강의한 법(法) 이외에 더욱 높은 법과 형태가 있지만 우리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또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

가지 문제는, 이전에는 수련생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줄곧 책을 읽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며, 책을 보아도 평상시처럼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이 나타났다: 수련생이 많고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해 보도원에게 문의하고자 한다. 보도원에게 물으면, 우리 보도원은 자신의心性(심성) 문제로……. 보도원 역시 법 공부도 하지 않고 또 책도 보지 않아, 법에 대해 역시 아는 등 마는 등 하다. 어떤 보도원은 ‘만약 내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 나의 위신(威信)이 깎여 여러 사람을 조직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물론 목적은 이 법을 수호하자는 것인데—여러 사람을 조직하여 연마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보도원은 자신이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일부 문제도 감히 결론을 내리다시피 함부로 말하며, 당연히 그런 것처럼 말하거나 혹은 자신의 감각이나 감수대로 말하는데, 실제로는 바로 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나는 과거에도 이 문제를 말한 적이 있다. 자신의 감수로, 자신이 있는 층차에서 깨달은 것으로 이 법을 해석할 수 없다고 아주 명백하게 말하지 않았는가? 곧 이런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은 반드시 이 일을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의 목적은 모두 좋은 것으로 이 법을 수호하자는 것이다. 그는 그 개인의 위엄과 명망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가 여러 사람을 조직하여 연공하지 못한다면 그 자신이

법을 학습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바로 우리 수련생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만약 누가 함부로 하려고 한다면 수련생 스스로 판별할 수 있어서 왜문사도(歪門邪道)를 하거나 풍파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여 시장이 없도록 한다. 앞으로 우리는 법 공부를 제도화할 수 있는데, 오로지 당신이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한다면, 오로지 당신이 우리 이 대법 중에서 수련하려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법 공부를 해야 하며 동작만 연마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여러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우리 이 법의 명예를 심하게 파괴했기 때문이다. 자신은 동작만 연마하고心性(썬썬)은 수련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문만 나서면 제멋대로 하고 무엇을 하고 싶으면 곧 무엇을 하고, 속인 중에서 속인이 한 그런 일보다도 더 나쁘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므로 이런 요구를 제출한다.

우리 일부 수련생이 이 과시심리를 제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예전대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을 과시하려 한다. 나는 여기에서 우리 보도원을 말하는데 이는 보도원회의이기 때문이다. 내가 우리 수련생을 말한다면, 우리 수련생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바로 우리 보도원에게 말한다. 과시심을 제거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은 우리 많은 보도원의 법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하여 일반 수련생만도 못하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한

의 이 면을 나는 모두 도형으로 그려냈지만, 그는 또 법의 일면도 있다. 공의 일면은 바로 도형과 같은 이런 형식이다. 우리 수련생들은 수련하여 장래 정과를 얻어 과위(果位)가 있게 되면 스스로法輪(파룬)을 수련해 낼 수 있는바, 단지 하나만 수련해 낼 수 있다. 당신이 아주 높은 층차에 도달해도法輪(파룬)은 단지 하나일 뿐으로, 그것은 당신 자신의 체현으로서 내가 당신에게 준, 아랫배 부위에 있는 그法輪(파룬)을 대체하는데,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과실(果實)이다. 그러나法輪(파룬) 또한 법의 체현으로서 그는 분체(分體)할 수 있다. 당신이神通(神通)을 조금 쓰면 그는 분체(分體) 될 수 있다. 당신 역시 얼마간의法輪(파룬)을 내보낼 수 있지만 내가 오늘날 수련해 낸 그런 형식의 그렇게 많은 독립체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法輪(파룬)은 그렇게 크고 진귀한 것으로서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창조해 낸 것이다. 당신이 한 수련과정을 거쳐 내가 수련한 바의 이렇게 큰 것을 수련해 내기는 불가능하며 절대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하나의法輪(파룬)을 수련해 낼 수 있다는 이 점은 틀림없다. 이法輪(파룬)의 위력은 대단히 크다. 정말 이 공간으로 가져와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며 아주 굉장한 것이다. 당신이 장래에 수련해 낼 그法輪(파룬)이 이 공간에서 돈다면, 내가 보전대 거대한 회오리 바람(龍捲風)이 휘몰아칠 것이다. 그의 위력은 대단히 크다. 왜 그로 하여

금 속인사회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가? 왜 그로 하여금 이 공간을 뚫고 나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가? 바로 그의 위력이 실로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설령 그가 다른 공간에서 작용한다하더라도 당신을 돌봐주기에는 족하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자: 法輪(파룬)이 우주의 축소판이라면 法輪世界(파룬쓰제)는 우주와 마찬가지로 큼니까?

사부: 아니다. 法輪世界(파룬쓰제)는 우리 이 우주에 있는 아주 높은 층차상의 한 단위(單元) 세계이다. 우주는 매우 방대한 것이다. 일부는 신수련생이기 때문에 어떤 말은 내가 하기 어려운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이 방대한 우주 중에는 무수한 소우주(小宇宙)가 있다. 인류는 하나의 소우주 속에 존재한다. 이런 소우주 중에는 무수한 은하계가 있다. 여래 층차의 부처는 소우주를 봄에 있어 변두리를 보아내지 못한다. 대우주(大宇宙)가 얼마나 큰지를 과거에는 인류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방대하다. 사람은 수련과정 중에서 신체가 밖을 향해 확장될 수 있다. 즉 신체의 용량이 증대(增大)되는데 신체의 용량이 점차 크게 변하고 마음도 크게 변하며, 사상이 승화되고, 층차가 제고된다. 그러나 속인 이쪽의 신체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속인과 마찬가지로 있다가 오직 원만에 도달할 때에야 그는 비로소 합쳐진다. 그리하여 합하는

며, 여러분의 열성으로 법에 대한 여러분의 애호로 이런 일을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일을 잘하지 못하겠는가? 물론 내가 방금 학습반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였다. 내가 보전대 장래에 우리는 신수련생 혹은 보도원을 양성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정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지역에는 노수련생이 한 사람도 없는데 역시 보도소를 조직해야 한다. 그렇다면 곧 그들을 상대로 일부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물론 양성하는 이것은 나중의 일이다. 우리는 당신이 학습반에 참가했든 혹은 참가하지 못했든,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여 모든 보도원이 모두 이 법을 잘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나이가 많거나 기억력이 좋지 못한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 능력이 있거나 젊고 기력이 왕성한 사람들은 모두 이 책을 외워야 한다. 아마 내가 제출한 요구가 너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많은 수련생이 모두 아주 익숙하게 외웠다. 그들은 공부할 때에 책이 전혀 필요 없으며 모두 외운다. 그렇다면 비교해 볼 때……. 나의 집은 비록 동북에 있지만 나는 늘 베이징(北京)에 가 있다. 우리 베이징은 연구회 소재지이며 내가 여기에서 연 학습반도 아주 많다. 지금 우리 본거지가 아직 여기에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 베이징은 마땅히 선두 역할을 해야 한다. 본래 이 선두 역할은 마땅히 베이징에서 이끌어야 했지만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두 배우고 있다.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점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장래에 전국 각지의 연공인이 모두 학습반에 참가한 다음 비로소 보도원이 되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이 한 보도원으로서 표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법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지를 보아야 한다. 심지어 말과 행동에서 전혀 수련자 같지 않고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과 같지 않다면, 이러한 사람은 보도원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수련하는 목적은 아주 명확한 것으로 고층차로 수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학습반에서 아주 똑똑하게 말했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 득도(得道)한 그 진인(眞人), 혹은 불가에서 말하는 그 부처, 보살이라면 당신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가 당신처럼 사상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신처럼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도 여러분에 대해 반드시 이처럼 높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쨌든 아직도 수련 중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마땅히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해야 하지 않는가?

대다수 수련생, 대다수 보도원은 모두 아주 잘하였고 아주 큰 공헌을 하였으며 여러 사람을 조직하여 학습하느라 아주 수고하였다. 우리는 모두 자발적으로 수련하러 온 것으로, 또 누가 당신에게 벼슬을 주거나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얼마 벌게끔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거니와 또 얼마간 노임을 달라는 말도 없다. 여러분은 모두 무보수로 일하

순간, 심지어 당신이 속인 중에서 법력을 체득하지도 못했는데, 당신을 데려간다. 왜냐하면, 그의 속인에 대한 교란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 모두 이러하다. 나는 늘 말했다. 어떤 도사(老道)는 심산 속에서 다년간 수련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재주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들의 재간이 아주 작으므로 그들이 세간(世間)에서 신통을 열어놓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 그들도 속인 사회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도 끝장에게 마련이다.

제자: 학습반에 참가하지 않아도 法輪(파륜)을 수련해 낼 수 있습니까?

사부: 이 문제를 나는 여러 차례 말했는데, 책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당신이 진정하게 대법에 따라 수련한다면 당신이 가장 외진 곳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문제가 없다. 나의 책 속에는 나의 법신(法身)이 있고, 매 하나의 글자는 얇은 층차에서 보아도 모두 法輪(파륜)만큼 큰 것으로서, 당신이 의념(意念)을 굴리기만 해도 그는 무엇이나 다 안다. 진정하게 수련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혼자서 책을 보고 연마(煉)하거나 연공장에서 노수련생과 함께 연마(煉)해도 다 된다. 오로지 당신이 진정하게 수련하기만 하면 모두 얻을 수 있다. 다들 알

다시피 석가모니가 세상에 있지 않은 지 이미 이천여 년이 지났지만, 말법(末法)시기 이전에 아주 많은 승려가 수련해 나왔으며 어떤 사람은 수련한 층차가 아주 높았다. 당신이 반드시 사부 앞에서 친히 전수를 받아야만 수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 이 공간에 있는 제가 수련하여 法輪世界(파룬쓰제)에 가면 다른 공간에 있는 수많은 저도 수련하여 法輪世界(파룬쓰제)에 갈 수 있습니까?

사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만약 그들이 수련을 잘하여 당신과 전체적으로 일체(一體)가 된다면 당신의 호법(護法)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좌우한다. 그를 호법이라 할 수 있는데 副元神(푸웬션)과 큰 차이가 없다. 만약 그가 잘 수련하지 못했다면 그는 안 되는 것으로 그 역시 독립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수련했으면 오로지 당신이 얻는 것으로, 수련하는 자가 얻는다.

제자: 法輪大法(파룬따파)는 점오(漸悟)하는 것인데 저희는 언제 점오 상태에 들어갑니까?

사부: 우리 많은 수련생이 이미 점오 상태에 들어갔다. 많은 수련생이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소리소문없이 괜찮게 수련했다. 내가 하얼빈(哈爾濱)에서 수련반을 열 때 말했다. 지금 사천여 명의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지만 얼마나 되는

어떤 사람은 그런 과시심리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계속 발전해 간다면 곧 법을 파괴할 것이다. 또 일부 학습반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과 각 연공장에서 연공하는 사람에게 일부 착오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덩달아 얼떨떨하게 할 것이다. 이 속에는 보도원의 책임문제를 말하고 있다. 보도원의 책임은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기억하건대 내가 광저우에 가서 공을 전수하기 전에 한마디 말을 한 적이 있다. 보도원이라면 그의 책임은 절의 그 주지(住持)만 못 하지 않다고 나는 말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진정하게 고층차로 공을 전수함은 바로 사람을 제도하는 문제이다. 진정하게 전업으로 수련하는 사람 그 역시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다. 다만 그는 종교 중에서 수련할 뿐이고 우리 대다수는 사회라는 이 형식 중에서 수련할 뿐이다. 그렇다면 기왕 여러분은 모두 수련하는 사람인바, 여러분이 함께 연공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함께 제고한다면, 그럼 이 담당자(主持人), 다시 말해서 이 보도원은 절의 그 주지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내가 말하는데 말법시기에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 수련생의 心性(썬썬)은 화상보다 더욱 높다. 나는 나의 수련생의 心性(썬썬)이 화상보다 높다고 말했는데 그럼 우리 보도원은 절의 그 주지, 방장보다 높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일부 보도원은 이 요구에 도달했는가 도달하지 못하였는가?

물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 아직도 학습반에 참가한 적이 없는 사람이 보도원이 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신이 지구를 에워싸고 한 바퀴 돈다 해도 이틀 시간에 불과하다. 내가 어느 곳에 간다고 하여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또 어떤 한 사람은, 이번에 리홍쯔(李洪志)가 가면 자신은 아마 대왕(大王)이라 불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별의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 있다.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의 수련은 곧바로 사람의心性(심성)수련을 중요시하기에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수련인의 표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 수련생들은 모두 가늠해 낼 것이다. 하지만 또 일부 사람이 명백하게 자신의 이런 착오적인 성향과 그릇된 행위를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수련생이 많은 집착심, 과시심과 각종 마음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조성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모두 이 법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은 또 이 법이 사람을 제도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 당신이 생각해 보라. 이 법은 사람을 제도할 수 있다는데, 왜 사람을 제도할 수 있다고 하는가?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좋게 변화도록 할 수 있는가? 이 일의 선결 조건은 바로 당신 자신이 좋게 변화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제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좋게 변화하려면 오로지 당신 자신이 좋게 변화려고 생각해야 한다.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그 진정한 수련인의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엄숙한 일이다!

사람들이 수련해 낼 수 있고, 장래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도를 얻을지 나는 아직 낙관적이 못하는데, 이는 여러분이 어떻게 수련하는지에 달렸다. 어찌 이 사천여 명이 단번에 성불(成佛)하고 사천여 명이 모두 점오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바로 연공장에서法輪大法(파룬파파)를 연마(煉)하는 사람 중 얼마나 되는 사람이 점오 상태에 들어갔는가? 진정으로 실속 있게 수련(實修)했는가? 진입하는 점오 상태가 같지 않은데, 당신이 점오 상태에 들어간다 해서 곧바로神通(神通)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나는 말한 김에 한 가지 더 말하겠다. 우리 많은 사람이 이미 점오(漸悟) 상태에 들어갔지만, 그는 늘 두려워한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지금 인류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집착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방면을 나는 더욱 강조하는데, 공능이 나와도 상관하지 말고 천목이 열려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당신의 천목이 정말로 열렸고 또 아무런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당신이 봐도 상관없다. 당신의神通이 나왔다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좀 운용(運用)해도 문제가 없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주는데, 그것을 집착심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 자신의 법이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법을 좀 운용하는 이것은 집착심과는 별개의 일이다. 지금 어떤 사람은 이미 점오(漸悟) 상태에 들어갔지만, 그 자신이 두려워하고 늘 정색하

며 사용하지 않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안 된다. 많은 사람은 천목이 열렸지만, 그는 늘 환각(幻覺)이라고 여기는데 이러면 안 된다. 열려서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라. 이는 상관없다. 집착과 체험은 별도의 일이다.

제자: 현재 삼화취정(三花聚頂)에 도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과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부: 현재 많은 사람이 이미 삼화취정을 초과하였다. 원만에 도달한 사람은 아직 없다. 모두 과위(果位) 중에서 수련하고 있으며 부동한 층차의 과위에서 수련하고 있다.

제자: 저희가 지금부터 각고(刻苦)의 노력으로 연공하고心性(썬썬)을 닦는다면 일년 반의 시간에 出世間法(추쓰젠파) 수련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사부: 시간적 제한이 없다. 수련하고 안 하고는 당신 개인의 문제이다. 얼마만 한 높이로 수련하고 인내력이 얼마나 크며 감당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 역시 당신 개인의 문제이다. 당신이 말해 보라. 사부가 당신에게 시간을 정해 놓고 수련하도록 한다면 당신의心性(썬썬)이 그 한 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心性(썬썬)이 승화되어 올라갈 수 있는가? 법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은 데로 도달할 수 있는가? 속인 중의 집착심을 당신은 내려놓을 수 있는가? 개인의 이익 앞에서, 남과 다투는 일에서 당신은 내려놓을 수 있는가?

공인만으로 보지 않는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法輪大法(파룬따파) 수련자로 보고,法輪大法(파룬따파)의 형상을 대표한다고 여길 것이다. 이 일은 아주 중요하다. 전국 각지의 적지 않은 사람이 다法輪大法(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좋다는 것은 바로 그가心性(썬썬) 수련을 중요시하고, 본질적인 것을 짚었기 때문이다.法輪大法(파룬따파) 수련자는 모두心性(썬썬)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당신들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목할 것이며 당신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할 것이다. 당신이 잘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당신들은 다만 입으로만 말할 뿐, 행동으로 실행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만약 당신들이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이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내가 말하는데, 이렇다면 좋지 않다.

내가 방금 말한 것은 공을 전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또 이런 한 가지 상황을 보았다. 이 회의를 열면서 내가 출국하기 직전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문제를 말해야겠다. 베이징은法輪大法(파룬따파)를 연마하는 사람 숫자가 비교적 많으므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내가 출국하여 공을 전함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공을 전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는 오늘은 동북으로 가고 내일은 서남으로 가며 모레는 남방으로 간다. 그런 다음 또 여기로 가고 또 저기로 가는데 모두 이렇게 나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 역시 마찬가지다. 당

이 아니다. 이 역시 하나의 문제를 설명한다. 무슨 문제인가? 우리 대법의 발전은 갈수록 빠르며 사람 숫자는 갈수록 많아진다. 이처럼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것은 두 개 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한 가지 원인은, 많은 기공이 가짜이며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도덕을 중시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한두 차례는 속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모두 알게 되는데 이것이 한 면이다.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를 전하기 시작하여 우리는 수련생에 대해 책임지고 사회에 대해 책임지는 데 입각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이득을 얻을 수 있게끔 하였고, 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하게 대법을 수련하게 함으로써 사회 기풍 축성에 촉진 작용을 할 수 있었기에, 이처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럼 다시 말해서法輪大法(파룬파파)의 전파속도는 대단히 빠르고 지금 더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갈수록 더욱 널리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내가 말했듯이, 아주 좋은 형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는데 이는 확실하다. 우리 아래의 보도원, 또 우리의 많은 연공인, 또한 일부 노수련생의 여러 일 처리 방식은 대법의 요구와 차이가 너무나 크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法輪大法(파룬파파)를 더럽히는 일종 파괴 작용을 하였다. 우리는 한 수련생이라도 좋고 한法輪大法(파룬파파) 수련자라도 좋은데, 더욱이 보도원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한 개인, 한 일반적인 연

모두 자신이 수련해야 하는 것으로서 당신에게 규정해 줄 사람이 없고 시간적 제한이 없다. 다른 사람은 나한(羅漢)과위로 수련해 올라감이 아주 빠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평생 수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신 자신의 감당 능력에 달렸으며 자신에 대한 요구가 엄격한지 엄격하지 않은지에 달린 것으로, 이는 모두 자신의 문제이다.

제자: 저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데까지 수련했지만 저희가 여전히 더 높은 데로 수련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내가 방금 말하였다. 석가모니는 이미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의 제자들은 여전히 위로 수련할 수 있었다. 설령 사부가 정말로 세상에 있지 않는다 해도 나의 법신이 여전히 있잖은가. 나 또한 정말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형신전멸(形神全滅)되는 것도 아니다.

제자: 일부 사람들은 난(難)을 피하고자 연공하는데, 그들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사부: 그 어떤 구하려는 마음을 품고 연공한다면 모두 정과(正果)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법을 대하는 인식면에서, 사람에게에는 하나의 인식과정이 있음을 당신은 용인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연공을 시작하는데, 나중에 점차적인 인식과정을 거쳐서야 고층차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지금 고층차에서 법을 전하고 있는바, 사람들이 막 학습반에 들어왔을 때는 아직 어떤 일인지 모르다가 뜻밖에 고층차로 공을 전한다는 말을 듣는데, 우리의 설법을 통해 그는 점차 인식하게 된다. 당신은 그에게 이런 하나의 과정이 존재함을 용인해야 하는데 이는 확실하다. 그가 병을 치료하려는 마음, 난을 피하려는 마음,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왔든, 그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수련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설령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목적에 도달하고자 할지라도 그가 난을 피하려는 생각을 품고서는 역시 안 된다.

난(難)이란 사람 자신이 조성한 것으로 자신이 생생세세에 일부 좋지 못한 일을 해서 빚진 것이므로 갚아야 한다. 당신이 볼 때 당신이 수련과정 중에 겪는 고통, 그것은 모두 당신 자신이 조성한 업력이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좋은 일로서 우리가 당신의 心性(심성)을 제고하는 데에 이용하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부처로 수련될 수도 있고 또 마(魔)가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이치이다. 업력이 존재하고 미혹 속에 있으므로 비로소 당신으로 하여금 수련할 수 있게 한다.

제자: 다른 공간의 많고 많은 저는 육신(肉身)의 층차 공간에 있습니까?

사부: 아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층차 공간에 있다.

베이징(北京)法輪大法(파룬파파) 보도원회의에서 말씀하신 정법(正法)에 관한 의견

李洪志

1995년 1월 2일

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설을 쇠는 데도 여러분을 소집해 회의를 여는데, 이 회의를 열지 않아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수련생이 알겠지 만 나는 곧 외국에 나가 공을 전(傳)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아주 촉박한 상황에서 나는 여러분을 소집했다. 이는 일부 상황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이미 일부 조짐이 드러났는데 우리 대법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선法輪大法(파룬파파)의 전수(傳授) 현황을 말해 보겠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전국 각지에서 우리 이法輪大法(파룬파파)의 영향은 비교적 크다. 지금 기공계의 지도자, 또 각 지역의 많은 기공조직, 각 성시의 기공과학연구회는 모두 이러한 느낌이 있다. 모든 기공이 모두 아래로 미끄러져 치고 있는데 유독法輪大法(파룬파파)만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또한 발전도 매우 신속하다. 이 상황은 각지 기공과학연구회와 기공 방면의 지도자가 한 말이지 나 자신의 말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가 있는 공간 외에 동등한 층차 공간에 역시 사람의 신체가 있는 다른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의 사람은 우리 여기의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들은 명(名)과 이(利)가 없으며 단지 정(情)이 있다. 그러므로 그도 색신(色身)을 갖고 있다. 생김새는 우리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보다는 잘 생겼다. 그러나 그들의 그 신체는 날아다닐 수 있으므로 그들은 길을 걷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리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고 날아서 오가는데, 이런 하나의 공간이 있다. 이는 동등한 층차 공간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공간에 관한 문제를 더 해석해 주겠다. 우리 지금의 과학자들은 전자가 원자를 에워싸고 돌고 있음을 연구해 발견하였는데, 그것의 운행은 우리 지구가 태양을 에워싸고 돌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것은 마찬가지로 아닌가? 우리는 지금 그 전자 위에 무엇이 있는지 보아낼 수 있는 이런 현미경이 없다. 만약 당신이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위에 생명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말했지만, 이런 것은 모두 우리 오늘날 물리학의 인식에 들어맞는다. 하지만 우리 현재의 과학수단은 아직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제자: 많은 수련생이 주위환경, 병기(病氣), 흑기(黑氣)에 모두 지극히 민감해하는데 이는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이런 유형의 수련생은 모두 공이 나오는 것에 근접

했으나 아직 기(氣)를 연마하는 낮은 층차를 벗어나지 못했다. 기를 연마하는 최고형식에서 유백체(奶白體) 상태로 들어갔을 경우 이러한 체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짧은 과정이므로 당신은 그것을 상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 당신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역시 일종 집착심이므로 그것을 상관하지 말고 일체를 모두 필연으로 간주하고 자연스럽게 되어감에 따르도록 하라. 이 층차를 지나가면 당신은 더는 체험하고 관찰할 수 없다. 공이 나온 후 당신의 신체는 공으로 둘러싸이게 된다. 이런 흑기, 병기는 당신의 신체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감각이 없다.

제자: 어떤 수련생은 心性(썬썬)이 끊임없이 제고되지만, 가부좌를 할 때 결가부좌를 하지 못해 억지로 무거운 물건으로 내리누르고 끈으로 묶는데 됩니까?

사부: 내가 알기로, 과거에 어떤 스님이 가부좌할 때 연자매·맷돌로 짓눌렀다. 하지만 연자매거나 맷돌이거나 모두 자원(自願)해서 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 짓누른 것이다. 그러나 도사(道士)는 안된다. 도가(道家)가 도제(徒弟)를 거느림에 단지 한두 사람을 거느릴 따름인데, 그중에 다만 한 사람에게만 진짜로 전한다. 도제에 대한 단속도 아주 엄해 툭 하면 도제를 때렸다. 그는 제자가 감당해 낼 수 있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제자로 하여금 넘어가도록 한다. 그러므로

베이징(北京)

法輪大法(파룬파파)

보도원회의에서 말씀하신

정법(正法)에 관한 의견

李洪志

1995년 1월 2일

다. 많은 사람이 모두 내가 온 것을 알고, 이 사람도 나에게 좀 좋은 것을 주려 하고 저 사람도 나에게 좀 좋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목적은 나에게 그의 이 한 문의 것을 승인케 하여 장래에 그가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하려 했을 뿐이다. 바로 이런 일을 말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좀 높게 말할 수 있다. 물론 좋고 나쁜 것을 가늠하는 데는 방법이 있게 마련이다. 좋은 것이라면 틀림없이 보호할 것이고 나쁜 것이라면 제거해 버릴 것이다. 하지만 진정하게 이法輪功(파룬궁)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法輪功(파룬궁)이라는 진정한 이 한 문(門)을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제자: 광시(廣西)에서 보도소를 설립하려 합니다.

사부: 할 수 있다. 지금 당신들은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일백여 명이다. 광저우에서 당신들을 돕도록 하고 당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당신들을 도와 총보도소를 설립하도록 하라. 당신들은 시간이 짧은 만큼 잠시 광저우에서 대신하여 관리하도록 하라. 장래에 당신들 자신이 독립하고 활동할 수 있을 때 당신들이 다시 분리하도록 하라.

法輪大法(파룬따파) 베이징(北京) 총보도소 녹음

그는 일반적으로 다 강경한 방법을 취했다. 제자의 다리를 묶어놓고 손을 몸 뒤로 묶어 스스로 풀지 못하도록 하는데, 눕는다 해도 풀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파서 까무러친다. 과거에는 이렇게 한 것이 있었다. 그때의 수련은 대단히 고생스러웠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이 한 문(門)은 직지인심(直指人心)으로 수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心性(썬썬) 제고를 지극히 중요하게 여기며 형체(形體) 상의 수련은 제2위로 여긴다. 당신은 될 수 있는 한 참고 견디어 당신이 다리를 트는 시간을 점차 늘리도록 하라. 하지만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석가모니 시대에는 계율(戒律)이 있었다. 석가모니가 세상에 있을 때는 경서가 없었고, 어떠한 문자도 남기지 않았다.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난 후, 후인(後人)들이 석가모니가 한 말, 그것을 정리하여 경서로 만들었다. 석가모니가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수련규정을 제정하여 계규(戒規)로 삼았는데 이는 문자로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법이 있기 때문에 계율이 없다. 수련하는지 안 하는지, 수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두 법으로 가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련함에 천편일률(千篇一律)로 규정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말겁(末劫) 시기에 이르러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되는 것으로서 도화(度化) 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훼멸(銷毀) 내에 속한다. 학습반을 열 때 아마 이러한 사람이 들어왔을 텐데 이끌어 왔을 것이다. 당신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경우, 골절(骨折)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격한 규정을 내리지 않는다. 자원적인 방법을 취하므로 당신이 참아낼 수 있다면 되도록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정말 수련하고자 한다면, 정말 법의 위력을 느낀 사람이라면 모두 수련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신이 공력을 들여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무방하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제자: 우주는 변두리가 있습니까?

사부: 우주는 변두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탐구하지 말라. 이 변두리는 너무나 크다. 여래 이 층차에서 가리킨 우주의 변두리는 모두 소우주의 변두리이다. 이 소우주는 인류는 물론, 여래 부처가 보아도 끝없이 넓어 탐측(探測)할 수 없는 것으로 그는 너무나도 방대하다.

제자: 『문예지창(文藝之窗)』 중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리홍쓰(李洪志) 스승님께 길을 안내했다고 써어 있는데 정말입니까?

사부: 이는 『문예지창』이 문예작품의 각도에서 쓴 것이다. 그 수련생은 강의를 두 번 들었는데 이해가 깊지 못했다. 첫번 강의를 들을 때 그는 쓰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주 격동되

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겠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을 할 두 번째 사람이 없다. 또 무슨 나의 사형제(師兄弟)가 있이란 불가능하다. 당신들은 모두 보도소 소장이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좀 높게 말해줄 수 있다. 우리 이法輪功(파룬궁)은 다른 공파들처럼 그렇게 내가 금생금세에 누구를 따라 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아마 책 속에서 내게 사부님, 전각법사(全覺法師) 등등 또 무슨 법사가 있다고 써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어찌 된 영문인지 알려주겠다. 이 전각법사 또는 팔극진인(八極真人) 등등 이런 사람을 말하자면, 여러분 알다시피 천상(天象)이 이 일보로 발전되었을 때, 혹은 이 일이 역사의 어느 한 단계에서 이런 큰일을 해야 할 때가 되면, 모든 역사는 이 일보로 발전하게 되는데, 아마 발전과정 중 나타나는 현상은 모두 이 법을 위한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모든 마는 모두 이 법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 일보로 걸어왔다. 내가 출생할 때에는 개오(開悟)하기가 불가능하며 또한 나를 개오하게 할 수도 없다. 이런 상태로는 사람을 제도할 수 없으므로 나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 내가 이 단계에서 반드시 어떤 사람이 나의 예전의 것을 나에게 일깨워 주고, 방법을 써 그의 방식으로 나로 하여금 개오하게 해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전각법사이다. 개오한 후에 나의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절반 닫힌 상태에서 또 다른 것을 배웠는데, 나 자신의 것은 움직이지 않았

형성되게 하기 때문이다. 공은 자동으로 위로 가는데, 오로지 당신이 心性(심성)을 제고하기만 하면 그것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반드시 주의하라, 일단 다른 동작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것을 배척해야 한다. 수련생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스승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짜다. 나는 절대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제자: 수인(手印)을 배우는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부: 그 수인을 배우지 말라. 무엇 때문인가? 그 수인은 내가 수련생에게 이야기하는 말이며, 마치 내가 오늘 이야기 한 말과 같다. 당신이 나의 이 각도에서 나의 말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제자: 광둥(廣東)에서 반영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는 法輪功(파룬궁)의 제 몇 대 계승자(傳人)이다.”, “리홍쯔(李洪志)와는 동문(同門)이다.”라고 자칭합니다.

사부: 이 사람은 아마도 난잡한 부체(附體)든지 무엇일 것이다. 돈을 벌려고 하거나 法輪功(파룬궁)을 파괴하려 하는 모두 이런 부류의 것들이다. 여러분에게 이 점을 명백하게 말하겠다. 法輪功(파룬궁)은 이 세상에서 오로지 나 한 사람만 전할 뿐이다. 설령 法輪世界(파룬세계)의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감히 내려와 전하지 못한다. 이 일을 여러분

있고 그는 이 대법이 너무나도 좋다고 여겨 쓰게 되었다. 두 번째로 강의를 들을 때 그는 글을 쓰려는 생각을 품고 들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로지 아주 조용하게 들어야만 비로소 깨달을(領會)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잘 깨닫지 못한 채 우리 여러분이 보게 된 이 문예작품 형식으로 써냈다. 어떤 일은 예술적으로 각색한 것으로서 그 큰 구렁이에 대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음보살이 나의 사부라고 하는데 그 역시 존재하지 않는 예술적 각색이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좋다. 우리 이 법을 널리 선양(宣揚)하고자 한 것으로 동기는 좋은 것이다. 이 한 점은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그의 이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작품을 써내게 되었다. 문예작품인 만큼 그는 본래 문예란 이 각도에서 쓴 것이다. 왜냐하면, 소설은 가히 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신축성이 아주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 학습의 지도적인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중 오계(五戒), 십악십선(十惡十善)에 대한 것은 모두 원시불교 중의 것이다. 우리는 계(戒)를 말하지 않으며 수련하고 수련하지 않고의 표준을 우리는 법 중에서 모두 여러분에게 말하였다.

제자: ‘현법지극(玄法至極)’과 ‘선법지허(旋法至虛)’의 구별은 무엇입니까?

사부: 우리가 말한 현법지극(玄法至極)이란 하나의 개괄적인 용어이다. 이는 법을 전하는 초기의 이해문제이다. 이

‘현(玄)’이 아니라 마땅히 돌 선(旋)자여야 한다. 우리의 법은 본래 원용(圓容)한 법이기 때문에 그는 회전(旋轉)하고 있는 것이며 法輪(파륜)은 바로 바퀴와도 같은 표현형식이다. 선법지극(旋法至極)이란 틀리지 않다. 가히 대단히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극점(極點)에 도달할 수 있다는 바로 이 뜻이다. 선법지허(旋法至虛), 이것은 우리 수련과정 중의 하나의 용어이며 또한 우리 이 공(功) 중의 주결(咒訣)이기도 하다.

여러분 아다시피 그 주결이란 그것은 각자(覺者), 또는 이 한 법문 중에서 수련된 각자, 또는 이 한 법문 중에서 성취가 있는 각자를 불러와서 당신에게 호법(護法)해 주며 당신을 가지(加持)해 주는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다. 종교 중의 주문 역시 이 작용을 한다. 결(訣)을 외우면 공이 자란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것은 단지 이런 작용을 할 뿐이다. 지허(至虛)란 역시 아주 높은 층차를 가리킨 것이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경지를 허계(虛界)라고 하는데 바로 이 뜻이잖은가. 도교 중에 늘 이 용어가 나타나는데 태극이 아직 형성되기 전을 태허(太虛)라고 한다. 바로 그것이 아주 높고 아주 원시적이라는 말이다.

제자: 가부좌할 때에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구결을 반복적으로 묵념(默念)하며 천여 번 외우는데 法輪(파륜)이 변형될 수 있습니까?

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부: 우리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그가 뭘 말하려 하는지를 들어 보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가 일부 대형 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반드시 발언 원고를 심사해야 한다. 한 가지 문제에 주의하라. 만약 한 수련생이 말 한마디를 잘못한다면 우리 이 일은 자칫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자: 돈을 기부하는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부: 내가 방금 말한 것과 같이, 그의 사업이 확실히 아주 잘 되고 아주 큰 기업인데, 그가 찬조(贊助)하려 한다. 만약 그가 국외에서 왔으며 확실히 아주 큰 능력이 있어 우리에게 찬조하려고 해도 우리 현지 보도소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가 한 몫 이바지하려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신들은 그를 연구회와 관계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총괄해서 안배하고 통합하여 수련기지 건설에 이바지하게 할 것이다. 장래에는 수련생이 여기저기로 갈 필요가 없게 몇 개 지역 북방, 남방에 몇 개의 수련 기지를 세울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건의 기부금도 받지 않았다.

제자: 연공 중의 동작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부: 더욱 높은 층차로 돌파할 때에는 아무런 동작도 없으며 완전히 가부좌한다. 당신이 불가든, 도가든 막론하고 전부 가부좌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이 완전히 자동적으로

깊지 못했는데 처음 제공한 원고는 그래도 그리 큰 문제가 없었다. 이 편집자는 몇몇 강의를 듣고 나서 함부로 편집하고 함부로 고쳤다. 이렇게 고치자 면목이 완전히 달라졌고 써낸 것은 그런 모양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그들의 출발점은 法輪功(파룬궁)을 파괴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 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확실히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의 출발점은 좋은 것이고 그는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어휘구사 능력상, 상상력 발휘에 아마 일부는 法輪功(파룬궁)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나는 이것을 한 권도 보지 못했다. 우리는 수련생에게 이 일을 똑바로 말해 주어야 하며 그것을 우리 수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우리 수련의 근거는 지금 펴낸 책 法輪功(파룬궁)이며, 정식으로 발행한 책이거나 나의 연설녹음이다. 나 자신이 수련한 그런 것에 대해 말한다면, 적당한 시기에 나는 그것을 써낼 것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쓰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은 법을 전(傳)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써낸 다음 남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수련생들이 그렇게 높은 인식이 없을 때에는 일종 신기함과 공능을 추구하는 이런 것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할 것이다. 당신 이것은…….

제자: 수련생의 심득체험 담론 모임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사부: 구결을 외우는 것은 좋은 점이 있는 것으로 천여 번 외운다 하여 法輪(파룬)이 변형될 수 없다. 물론 당신이 개공개오(開功開悟)한 후에 당신은 알게 되는데, 대단히 높은 층차에 이르면 당신은 구결을 외울 수 없다. 당신이 외우는 진동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신이 늘 외운다면 뒹뒹거리며 남을 진동하여 괴롭히기 때문이다.

제자: 왜 어떤 수련생은 연공(煉功) 후에 머리가 갈라지는 듯합니까?

사부: ‘갈라졌다(裂開)’면 맞다. 우리는 정수리를 열어줌을 말하는데 ‘갈라졌다’면 맞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갈라질 때 ‘팍’ 하는데 그리 큰 감각이 없다. 어떤 사람은 갈라질 때 천천히 열리는데, 아주 괴롭다. 하지만 일이란 두 방면에서 봐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집착심을 내려놓지 못해 좋지 못한 것을 초래하고도 버리기 싫어한다. 그러므로 연공(煉功)할 때 법이 그 좋지 못한 것을 청리(清理)하려 하기에 그 좋지 못한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머리가 아프게 하고 당신이 정법을 수련하지 못하게 하는데, 또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관건문제는 당신이 수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으로 가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을 버릴 수 있는지에 있다.

제자: 어떤 사람은 연공(煉功)할 때 머리에 식은땀이 나고 쇼크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이번 학습반에 바로 이런 사람이 있으며 어느 학습반에서나 모두 있었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신체를 청리(淸理)하여 병을 제거할 때면 모두 아주 강렬한 반응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공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병을 천천히 제거하기 때문에 반응이 그리 강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괜찮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그래도 정상적일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며, 때로는 이 공을 연마하고 때로는 저 공을 연마하며,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心性(썩썩)도 높지 않다면, 아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당분간 휴식하도록 권할 수 있으며 그에게 어떤 공을 연마한 적이 있는지, 또는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를 물어보도록 하라. 그 상태가 지나간 다음 다시 연마하도록 해 보라. 왜냐하면, 지금 와서 연공하는 사람이 모두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라고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자: 혈위(穴位) 안마를 해도 됩니까?

사부: 우리 무슨 혈위 안마를 하지 않는다. 世間法(쓰젠파) 수련에서 다른 사람에게 병 치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이런 것이 없다. 진짜로 수련하는 사람은 병이 없다. 나의 법신이 모두 제거해 버렸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면 모두 해주는 것으로 무슨 혈위 안마의 일이 없다. 수련자의 업력을 안마로 제거할 수 있는가? 당신이 공을 갖고 다른 사람에

어야 한다. 만약 그래도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연마하지 말 것을 권고해야 한다. 만약 그가 연마하겠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누구도 그가 말하는 것을 듣지 말아야 하고 누구도 그를 둘러싸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시장(市場)이 없다면 그 마는 더는 재미없어 할 것이다. 그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고, 우리를 파괴할 수 없어 그도 재미가 없어 한다.

제자: 『문예지창(文藝之窗)』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부: 나는 『문예지창(文藝之窗)』의 일에 대해 이미 그들에게 이 문제를 말하였다. 편집자에서 원고를 제공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목적은法輪功(파룬궁)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고 역시法輪功(파룬궁)을 선전하려는 데 있었지만, 그들은 흔히 문예의 각도에서 쓰게 된다. 문예작품은 제 나름대로 편집하고 과장하며 한껏 표현하는바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되도록 우리의 이 법을 이해(理解)한 후에 다시 쓰라고 했다. 원고를 제공한 이 사람은 이미 몇 차례 강의를 들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 대단히 좋다고 느꼈고 대단히 격동되어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해가 깊지 못했고, 게다가 나중의 몇 차례 강의를 들은 것은 작품을 쓰기 위해 들은 것이고, 필기하느라 바빴기에 결국은 잘 듣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해가 그리

근기는 좋으나 집착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을 조성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것을 초래하게 된, 단지 이 두 방면의 원인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 그가 버릴 수 있고 명백해질 수 있다면 명백해지는 것이고, 명백해지지 못한다면 우리도 방법이 없다. 물론 한 가지 가장 좋은 강박(強迫)적인 방법이 있다. 만약 이 사람이 괜찮고 영향력 또한 대단히 크다면, 우리는 단체적으로 그의 상태에 근거하여 그를 마주하고 책을 읽으며 그에게 배울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그가 배우려 한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책을 읽는데, 여러 사람이 그를 둘러싼 채 그를 향해 읽는다. 책을 읽는 와중에서 선택적으로 읽을 수 있다. 그가 정신이 흐리멍덩하다면 그것은 바로 초마(招魔)와 생마(生魔) 이런 일이 아닌가. 그에게 읽어주고 그에게 들려주며 그 자신도 읽으면서 터득한다. 그의 主元神(주원선)이 되돌아와 명백해지고, 알게 되면 그도 명백해질 것이다. 만약 그가 명백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역량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내가 생각하건대 이 사람이 우리 수련생에게 영향을 주게끔 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두뇌가 청성(淸醒)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좀 횡설수설하거나, 자신이 어떠어떠하게 높다고 말하거나 혹은 일부 전혀 허황하고도 얼떨떨하게 그리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곧 정신이 비정상적이며,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이, 만약 보도원이라면 즉각 바뀌야 하고, 만약 일반 수련생이라면 그에게 말해 주

게 안마를 해주게 되므로, 우리 역시 이렇게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만약 의사라면 그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속인 중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제자: 사람의 副意識(푸이스)는 사람의 일생을 동반하는데 그는 어떤 작용을 합니까?

사부: 사람의 副意識(푸이스)가 하는 역할은 주로 사람에게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다. 사람의 主意識(주이스)가 대단히 강할 때에는 그도 막아내지 못한다.

제자: 저는 가부좌할 때 어떤 때는 오랜 시간 다리를 틀 수 있으나 어떤 때는 단지 십 분밖에 틀지 못하는데 무슨 원인입니까?

사부: 그것은 정상적이다. 다리를 트는 것 역시 소업(消業)이므로 심적인 고통(苦其心志)과 신체적인 고생(勞其筋骨)을 겪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신체적인 고생(勞其筋骨)을 겪는가? 그것은 바로 연공 시간을 좀 길게 하고 다리를 트는 것이 좀 괴로워야 하는데 주로 이 두 방면에서 체현된다. 신체적인 고생 자체가 바로 소업과 제고의 과정이다. 다리를 트는 것이 소업이 아닌가? 그러나 이 업은 단번에 모두 다리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덩이 한 덩이로 된 것으로, 한 덩이가 나오면 아파서 못 견딜 정도이지만 없어

져 버리면 가뿐하다. 다리를 트는 것은 흔히 한동안 괴롭고 한동안 흥가분해졌다가 다시 괴로운데 모두 이러하다. 당신이 이 한 덩이 업을 없애버렸다면 이번에 다리를 트는 시간이 길 수 있다. 그러나 업이 막 나올 때에 당신이 다리를 바로 올려놓으면 아마 아주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참을 수 있을 때에는 가부좌한 시간이 마찬가지로 원래 얼마를 틀었다면 여전히 그만큼 틀 수 있는데 다만 아파서 견디기 어려울 뿐이다.

제자: 술을 마시면 연공인이 연마해 낸 생명체가 몸에서 떠나게 됩니까?

사부: 그렇다. 담배를 피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당신 그것이 그을리기만 하면 그는 당신의 몸에 있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당신의 몸에는 공이 없다. 우리가 말했지만, 만약 진정하게 수련하려고 한다면 이까짓 것 집착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겠는가? 수련은 아이들 장난으로 간주할 수 없는바, 이것은 대단히 엄숙한 문제이다. 우리는 인류가 어떤 큰 번거로움에 부딪혀 명을 보존하기 위해 수련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으며 또한 이것을 일종의 동력으로 삼아 당신의 수련을 추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느바, 진정한 수련은 당신 개인의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사부: 시간의 추이(推移)에 따라 아마 그들은 최후에 가서야 인식할 것이다. 지금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추세이다. 왜냐하면, 먼저 법을 얻을 사람은 이미 다 얻었기 때문이다. 장래를 보자! 당시 내가 나올 때 이 일은 이미 명확하게 나에게 말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그런 일이 이미 존재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알 때에야 귀착할 곳이 없음을 느낄 것이다. 일부분 사람은 아마 환속하려 할 것이고, 일부분 사람은 法輪功(파룬궁)을 수련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 일이다. 거사라면 어렵지 않다. 거사는 흔히 사회적으로 기공을 좀 배우려 하고 이것저것을 밖에 나가 찾는데, 法輪功(파룬궁)을 찾게 되어도 배울 것이다. 어쨌든 그가 진정하게 깨달아야 한다. 내가 말하는데, 법에 대한 이해와 진정한 인식은, 이미 접촉하였기에 그가 계속해서 배울 수만 있다면 인식할 수 있다. 관건은 법 공부이다. 그를 조직하여 법 공부를 하도록 하라.

제자: 정신이 비정상적인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이 문제는 곧 이렇게 파악하도록 하라. 만약 그의 말과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면 이는 결코 法輪功(파룬궁)을 배우고 연마하는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무릇 이 문제가 나타나는 사람은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사람이다. 하나는 아마 자신의 근기가 좋지 못한 데에 있고, 다음은 이 사람이

확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

지방에서는 등록해도 되는데, 그들 거기에 등록할 수 있다. 사실 그들 거기에 소속된다 해도 아무 활동이 없으며 아무 일도 없다. 그들은 때가 되면 당신을 불러, 어느 기공사가 와서 학습반을 여는데 당신들이 가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수련생 그 자신이 파악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라고 해도 수련생 자신이 가지 않는 데 바로 이런 문제이다. 인체과학연구회는 일반적으로 이 일을 그리 상관하지 않는다. 광저우(廣州)의法輪功(파룬궁) 총보도소는 이미 광저우시 인체과학연구회에 등록했다. 지금이 아니라 일찍이 등록했다. 무슨 활동이 있으면 우리 소장이 참가할 수 있는데 그건 문제가 없다. 바로 이런 관계이다. 파롄(大連)과 같은, 많은 지역의 기공과학연구회와 우리의 관계는 대단히 좋다. 아울러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모두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한다. 이럼으로써 우리法輪功(파룬궁)이 활동을 전개하고 대중이 연공하는 데 아주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였으며 방해받지 않는 이것은 대단히 좋다. 바로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잘 조절하는지는 우리 자신이 원칙을 잘 파악해야 하는바,法輪功(파룬궁)이 규정한 원칙이라면 우리는 지켜야 한다. 다른 사소한 일은 별문제가 없다.

제자: 승려와 거사(居士)에 대해 어떻게 홍보해야 합니까?

불교에서, 사람들이 육도윤회(六道輪廻)를 말하는데, 속인사회 중에서 사람은 시간이 대단히 길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더욱 긴 공간에서 보면 인류의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고 한다. 두 사람이 거기에서 이야기하면서 한 번 머리를 돌려보니 당신이 출생했고, 두어 마디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 머리를 돌려보니 당신은 이미 일생을 끝마치고 땅속에 들어갔다. 사람은 왜 인체(人體)를 가진 이 단계에서 다그쳐 수련하여 인체를 보존하지 않는가? 불교 중에서는, 일단 육도윤회에 들어가면 당신이 무엇으로 전생(轉生)될지 모른다고 말한다. 동물로 전생된다면 몇백 년, 몇천 년 만에야 비로소 다시 한 번 인신(人身)을 얻을 수 있다. 만약 돌로 전생되어 그 돌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올 수도 없는데 만(萬)년이 지나도 나올 수 없다. 동물, 그것은 수련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동물은 자체가 수련할 수 있는 선천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환경이 조성한 것이다. 그러나 동물이 높은 공이 나오게 되면 마(魔)가 되기 때문에 높은 공이 나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본성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것을 죽여 버려야 한다. 동물이 높게 수련되었다면 그것을 죽여 버려야 하기에 벼락으로 그것을 친다. 동물이 왜 사람 몸에 붙으려 하는가? 목적은 인체(人體)를 얻으려는 것이다. 인체를 얻는다면 정정당당하게 수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이러했는데, 동물이 인체를 가지고 있으면 수련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

나 지금은 인체가 있다 해도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수련하려고 하고 법을 얻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머리를 씻고 숙인 중에 와서 얻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이미 고정불변의 규정으로 되었다. 아주 명백한 상태로 숙인 중에 왔다 해도 다 안 되며, 머리를 씻은 다음 깨달음 속에서 수련해야 한다. 무엇이든 다 안다면 누가 수련하지 않겠는가? 그 부처도 충차를 제고하려고 숙인 중에 와서 고생을 겪자면 역시 머리를 씻어야 한다. 것처럼 명명백백하게 무엇이냐 다 보았고 무엇이냐 다 안다면 누가 수련하지 않겠는가? 제고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러분에게 수련은 아주 엄숙한 일로서 그 어떤 집착이든지 모두 수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이다.

제자: 갱년기를 지난 노년 부녀가 생리가 오지 않았다면 수련할 수 있습니까?

사부: 갱년기를 지난 노년 부녀가 생리가 오지 않았다면 아마 수련에서 늦어질 것이다. 어떤 노년 부녀는 확실히 다 그쳐야 하며 그녀들 중 일부 사람은 다그치지 않으면 역시 안 된다. 다그치라고 말하면 줄곧 동작만 연마하는데 마땅히 心性(썬썬) 수련이 가장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극소수의 사람은 이 방면에서 좀 늦게 오지만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은 마땅히 모두 있어야 한다.

어떻게 바로잡아야 합니까?

사부: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방금 내가 말하였다. 원칙적으로 현지 기공과학연구회, 인체과학연구회 혹은 기공협회는 모두 우리의 지도적 일에 참여할 수 없으며 우리 法輪功(파룬궁)의 소장, 보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잘 협조(協調)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기공과학연구회는 명문으로 규정하기를, 무릇 직속(直屬)공파는 수련에서 본 파(派)의 스승이 자체로 관리하고 또한 지방 행정에서는 그들에 귀속되어 관할 받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관리가 없으며 공파관리는 완전히 느슨한 관리이다. 우리는 보도소 소장을 그들 거기에 등록하게 하여 공식적인 회의가 있으면, 우리 소장이 참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수련생을 데리고 가서 우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의 것을 하게 한다면, 우리는 하지 않는바, 이러한 일을 그에게 명확하게 말해 줄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좀 유익한 활동을 하려 조직하는데, 다른 문제에 관련되지 않고, 마치 체조를 하는 것처럼 몇백 명씩 모인 대중적인 활동을 하려고 각 공파(功派)를 조직하여 몇 가지 동작을 하면서 누구의 것이 좋은가를 비교해 평가하고 포상한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체육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체육 활동이므로 이는 참가할 수 있는데, 이는 문제가 없다. 만약 그가 우리의 공파를 이용해 다른 것을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을 그에게 명

사부: 창춘(長春)에서 녹화를 했는데 수련생들의 이야기가 몹시 생동감이 있어 듣는 수련생도 아주 감동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렸다. 회의가 아주 생기발랄하게 열렸고 분위기 역시 아주 좋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매우 기뻐하였다. 마치 당신이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장(場)에 나 본인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모자라는 것이 없었으며, 마치 내가 학습반을 연 것과 같이 그 장(場)은 대단히 강했다. 그것은法輪功(파룬궁)이 집결하여 법회를 연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효과가 아주 좋았다. 장래에 수련생이 많아지면 수련생들은 이런 형식으로 심득체험을 말할 수 있다. 법 공부하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교육이 된다. 수련생 자신이 공(功)을 배운 이후 어떤 수확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방면에서 본다면 이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도 더욱 생동적이다.

제자: 모두 심득체험 교류를 말합니다.

사부: 고층차에 이르러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은 모두 인연과 층차의 제고에 따른 것인데, 이런 것은 교류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여러분이心性(심성)수련에서 어떻게 제고하는지를 교류할 뿐이다. 우리는 정법수련이므로 복잡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자:法輪功(파룬궁) 보도소와 현지 기공협회의 관계를

제자: 왜 수련생의 어떤 부위가 아릅니까.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것은…….

사부: 연공(煉功)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은 모두 정상적이다. 소업(消業)에 괴롭지 않은 것이 없다. 병을 제거하려 해도 또 괴로워야 하지 않는가. 어떤 수련생은 공이 나오게 되는데, 그의 몸에 있는 이 공은 만여 가지도 넘는다. 매 하나의 공은 모두 에너지가 대단히 크고 밀집도가 아주 높으며, 위력이 아주 강한 하나의 고에너지물질 덩어리라, 당신 몸속에서 움직이기만 하면 당신은 온통 괴로울 것이다. 또한, 부동한 형태의 공, 부동한 형태의 공능, 부동한 형태의 술류(術類)들이 당신의 몸속에서 체현되어 나오는데, 그것이 움쩍거리기만 해도 당신은 괴롭게 마련이다. 당신은 그것을 병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말해 보라. 당신이 이래서야 어찌 수련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진정하게 법에 따라 수련하면 일체가 모두 정상적임을 발견할 것이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몸에 부체(附體)가 있었다. 한 기공사가 그에게, 그의 몸에 큰 구렁이 부체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후부터 그는 늘 큰 구렁이 부체가 있다고 느꼈다. 내가 그에게 지금은 없다고 알려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믿지 않고, 그의 몸속에서 여전히 꿈틀거린다고 여겼다. 그래 당신이 늘 부체가 있다고 여기면, 그 큰 구렁이가 있을 때의 상태가 당신 몸에 반응되어 나오게 마련이다. 그가 언제까지 이 마음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것인즉, 바로 당

신의 그 마음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약 그것이 일 중 집착으로 된다면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아주 긴 시간이 걸려야만 그 사람은 비로소 제거할 수 있다.

제자: 어떻게 공능을 대해야 합니까? 예컨대 천목이 어떤 것과 빛을 보았다면 보아야 합니까, 보지 말아야 합니까?

사부: 볼 수 있다면 보아도 된다. 연공할 때 조용히 관찰하라. 이는 집착에 속하지 않는다.

제자: 어떤 수련생은 천목이 열려 일부 광경을 보았으나 보도원은 공능이 없어서 보지 못 합니다.

사부: 부동(不同)한 사람이 부동(不同)한 층차에서 수련하는바 그 점오한 상태에 따라 보이고 안 보이고 한다. 즉 점오 도달도, 당신의 공이 대단히 높다고 하여 꼭 당신에게 대단히 높게 열어주고, 그의 공이 아주 낮다고 하여 꼭 아주 낮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므로,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천목 층차의 높이는 사람의 공의 층차 높이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요소, 조건, 여러 방면의 원인에 근거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똑똑히 볼 수 있게 하거나 똑똑히 보지 못하게 하고, 또는 볼 수 있게 하거나 볼 수 없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바, 이는 여러 방면의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천목 층차의 높이로는 사람의 수련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해

말아야 한다. 개별적으로 아직도 결함이 있는 수련생은 당신이 그에게 알려주도록 하라. 어느 점은 아직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어느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면 된다. 만약 당신이 공개적으로, 이 사람의法輪(파룬)은 얼마나 크고 저 사람의法輪(파룬)은 어떤 모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 사람이 날마다 이런 일로 당신을 둘러쌀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높게 수련되었는지를 물어볼 텐데 절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집착심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

제자: 어떤 사람은 연공을 함에 직장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부: 많은 지역에서, 추운 지역에서 겨울에 연공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생스럽다! 그런데 일부 직장에서는 크게 지지하고 나서서 장소를 제공해 주는 이러한 사례 역시 아주 많다. 왜냐하면, 우리로 인해 미친 영향이 아주 좋았기 때문이다. 수련생들은 연공을 마친 후 장소를 깨끗이 청소하며 심지어 눈이 내리면 뜰까지 다 쓸어놓았다. 우리가 곳곳에서 모두 이처럼 잘 보였기에 사람들이 자연스레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제자:法輪功(파룬궁) 수련생들이 집회를 갖고 심득체험을 담론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면 여러 사람을 조직하여 들을 수 있다. 지난(濟南)의 테이프도 있는데 아주 좋다. 여러 사람을 조직하여 단체로 녹음을 들을 수 있다. 시작부터 끝까지 들으려 하지 말고, 한 단락 듣고 나서 정지하고 자신의 이해능력에 따라 여러 사람에게 좀 알려주고, 말해 주며 여러 사람이 또 자신의 감수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좀 생동감 있게 해야 한다.

제자: 찬조(贊助)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부: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이,法輪功(파룬궁)을 위해 얼마를 찬조(贊助)하려 해도, 우리는 가지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만약 당신이 돈을 저축하였다면 다른 보도소에서도 돈을 저축할 수 있지 않은가? 모든 보도소가 다 돈을 저축하게 되어 장래 돈에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면 인심(人心)은 곧 변하게 마련이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로法輪功(파룬궁)을 위해 공헌하고자 한다면, 예컨대 자료를 좀 사거나, 우리가 법 공부를 하는 이 방면의 활동을 넓히게 하여, 그에게 활동에 유익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데, 그가 기존의 필요한 일을 한다면 이런 것은 괜찮다.

제자: 천목이 열린 보도원은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사부: 천목이 열린 보도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평소 여러분은 모두 연마를 잘하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말하지

야 한다. 내가 천목이 열렸다고 하여 내가 다른 사람의 공보다 더 높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우리 창춘(長春)에 이런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는 천목이 열려 누구보다도 모두 낫다고 느꼈다. 이 사람의 몸에는 부체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또 무엇이 있다고 말했는데 모두 그 자신이 생각해 낸 것이다. 우리 연공장에서 난잡한 짓을 하였는데, 최후에 그는 누구에게도 불복하며, 그는 나보다도 더 높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목이 열린 것으로 누가 얼마나 높은 층차로 수련되었는지 가늠하지 말아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상보상성(相輔相成)하면서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는 특수하게 잘 수련된 사람이 있는데 그조차도 보지 못하게끔 하며 무척 높게 수련되어야만 비로소 그에게 보게끔 한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수련이 잘되고 잘못되고를 가늠하지 말아야 한다.

방금 어떤 사람이 제기한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이 나를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스승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다. 당시 석가모니가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었다. 사존(師尊)님, 당신께서 계시지 않으면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야 합니까? 석가모니는 계율을 스승으로 모셔라(以戒為師)라고 했다. 우리는 법을 스승으로 모셔야(以法為師) 한다.心性(썬썬)의 고저로 수련의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공능의 대소(大小)를 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

은 모두 공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능이란 당신의 수련과정 중에서 부수로 나오는 것이다. 世間法(쓰젠파)에서 수련해 낸 공능은 모두 사람의 본능인데, 사람의 사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점차 퇴화하였다.

당신이 수련함에 따라 공능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당신이 반본귀진(返本歸眞)하여 되돌아갈 때라야만 비로소 사람의 본성이 되돌아 나오게 된다. 그가 아무리 똑똑히 본다 해도 내가 본 층차를 보아내지 못한다. 그가 아무리 똑똑히 본다 해도 우주의 최고 진리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 그가 본 것은 다만 그 한 층차의 체현일 따름이니, 공능을 진리로 간주하지 말라. 수련과정 중에 있는 사람을, 어느 한 층차를 가늠하는 표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법무정법(法無正法)’을 말함이 바로 이 이치인즉, 어느 한 층차의 체현을 진리로 삼지 말아야 한다. 법무정법이라, 어느 한 층차의 법이 든 단지 그 한 층차에서 작용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가 본 어느 한 층차의 것은 그 한 층차의 상태이다. 만약 아주 똑똑하게 보았다고 우쭐거린다면 그것은 아주 얇은 층차의 것이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

제자: 어린아이가 수련하는데, 다섯 가지 공법을 반드시 다 해야 합니까?

사부: 어린이는 많이 연마할 수 있다면 많이 연마하고 적게 연마할 수 있다면 적게 연마하도록 하라. 수련의 주요 목

제자: 하얼빈(哈爾濱) 총보도소에서 보도원을 조직하여 창춘(長春)에 가서 학습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부: 하얼빈(哈爾濱)의 상황은 아주 좋다. 보도원을 조직하여 창춘(長春)에 가서 총보도소에서 조직한 한 차례 심득 교류회를 가진 이후, 그들의 인식이 아주 높아졌으며 여러 가지 활동도 전개하였는데 이 방면에서 아주 잘했다. 창춘(長春) 총보도소에서 이미 하얼빈(哈爾濱)의 상황을 보고 하였기에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보기에 하얼빈(哈爾濱)의 여름은 아주 좋다. 더욱이 여러분이 강변에 모여 앉아 함께 책을 읽는다면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제자: 따칭(大慶)에서 스승님을 초청하여 학습반을 여는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부: 학습반을 여는 일은 말하지 말라. 장래에 내가 통일적으로 배치할 것이다. 지금 요청편지가 대단히 많은데, 따칭의 초청장을 두 통이나 받았다. 작년에 치치하얼(齊齊哈爾)에 따칭(大慶) 사람들이 가서 배웠다.

제자: 스승님께서 학습반을 열지 않은 지역에서 법을 전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부: 가히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번에 광저우(廣州)에서 법을 들은 후, 여러분은 돌아가서 통일적으로 수련반에 참가하지 못한 수련생들을 찾아 말할 수 있다. 당신들이 녹음했

합니다. 그는 이것을 스승님에 대한 숭배라고 말합니다.

사부: 그가 학습반에 참가한 적이 없는가? (대답-없습니다.) 당신이 말한 이 일은 아주 중요하다. 많은 지역의 수련생은 그가 책을 보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녹음을 듣고 그는 대단히 좋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므로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장래에 다른 지역에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무릇 이러한 보고를 들었다면 당신이 어느 지역의 보도소든지 막론하고 모두 그에게 마땅히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이런 일은 흔히 法輪功(파룬궁)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을 얼떨떨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람은 학습반에 참가한 적이 없어 그리 명백하지 못하므로 이를 계기로 하여 자신을 표현하고자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말아야 한다. 장래에 그가 학습에 참가한 다음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는 확실히 문제가 되므로 여러분은 이 점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이 생겼든지 막론하고 보도소에서 들었다면 그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전화하거나 혹은 다른 형식을 통해 그를 제지할 수 있으며, 이런 일을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상하이(上海) 이곳은 장래에 내가 기회가 있으면 가려고 하며 나는 줄곧 생각하고 있다.

적은 사람의 心性(썬썬)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心性(썬썬) 방면에 연관되는 것을 많이 말해 주면 그에게 좋은 점이 있다. 내 나이가 아주 어릴 적에는 외형(外形)적인 것은 전혀 연마할 수 없어 주로 心性(썬썬) 상의 수련을 했다. 지금의 일부 어린이들, 당신이 그를 일반적인 어린이로 여기지 말라. 어떤 어린이는 아주 대단하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이 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대단히 높은 층차의 사람이 따라 내려왔기 때문이다. 내가 올 적에 각 층차 중에서 모두 사람들이 따라 내려왔는데 그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예측할 수 있었다. 특히 근래 이 시기에 이르러 우리 이 소우주와 은하계에서 온 사람이 특별히 많다. 왜냐하면, 좀 더 일찍이는 그들이 예측해 내지 못하고, 바로 내가 출산하기 전 그 한 기간에서야 그들은 알게 되었고,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지를 보게 되어 적지 않게 따라 내려왔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려고 내려왔는가? 법을 얻으러 왔다. 그는 예전의 법이 이미 부패(敗壞)한 것을 알고 새롭게 단련(錘煉)하고자 온 것이다. 당신은 그들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지 말라. 그들은 모두 아주 훌륭하다. 하지만 어느 집 어린이든지 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일부 어린이는 아주 훌륭하다.

제자: 자신이 어떤 층차로 연마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부: 우리 어떤 수련생은 이미 점오 상태(漸悟狀態)에

도달하였고 어떤 수련생은 점차 점오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도달했거나 도달하지 못했거나, 혹은 똑똑히 볼 수 있거나 똑똑히 보지 못하거나 하는 것을, 연공장에서 연공을 끝마친 후 서로 토론할 때 여러분에게 말해도 상관없다. 당신이 과시 심리를 품지 않고 말한다면 우리의 전반 수련에 좋은 점이 있다. 어떤 사람은, 천목으로 본 것을 말할 수 없으며 말하기만 하면 천목이 닫힌다고 하는데, 이는 과거의 연공에서 이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된 일이다. 그가 천목을 말했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기공을 보급하는 그대에 연공하는 사람 중 어디에 德(더)를 아주 중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는가?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 아주 적었고, 그는 德(더)를 중시해야 함을 몰라 무엇을 보게 되면 바로 말하는데, 그 자신에게 집착이 있고, 과시하는 심리가 있으면 천목은 당연히 닫히게 마련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해야 할 말이든 하지 말아야 할 말이든 모두 말하기 때문에 그의 천목이 닫히게 되는데, 바로 이 원인이다. 만약 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서로 탐구하고 토론한다면 어떤 문제도 없다고 나는 말한다. 이 점을 똑똑히 분간해야 한다. 만약 그의 천목이 닫혔고 훼손되었다면 그가 속인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거나 혹은 과시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연공인의 과시심이란 그것은 집착심의 체현이 아닌가? 그래서 닫히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의 천목이 닫힐 때는 먼저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가 똑똑히

거나 회의실을 빌리거나 혹은 사람이 많을 때 강당을 빌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경영적인 업체로 만들 수 없다고 이미 아주 절대적으로 말하였다. 반드시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극히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수련생이 많고 법을 배우는 사람이 많아서 반드시 큰 장소가 필요한데 우리 또한 빌릴 수 없어 반드시 남의 강당을 써야 하고, 강당 측에서 비용을 받는다면, 이런 극히 특수한 상황에서는 모두 베이징(北京)과 직접 연계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말로 이런 상황이라면 강당을 임대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일전 한 푼도 남길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 수중에 돈을 모을 수 없으며 보도소는 돈을 모을 수 없고 어떤 경영활동도 할 수 없다. 나는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하였다. 왜냐하면, 아주 엄숙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이 공파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은 바로 이 점에서 다른 공파와 근본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제자: 상하이(上海)에서 보고하기를, 학습반에 참가한 적이 없는 한 法輪功(파룬궁) 연공인이 여러 사람을 조직하여 연공하기 전에, “존경하는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을 모시고, 대법 法輪功(파룬궁)을 배우며, 心性(썬썬) 眞(쩐)·善(싼)·忍(런)을 수련합니다.”라고 외운 다음 연공합니다. 끝나고, “입정을 거듭시다. 스승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고

름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학습반을 열 때 누구도 이 법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만약 누가 여기에서 나서서 法輪功(파룬궁)을 말하고 마땅히 어떠어떠하게 해야 한다면 이 법을 말한다면, 그것은 그가 사법(邪法)을 전하는 것이며 대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法輪大法(파룬따파)는 오로지 하나일 뿐이다. 만약 책을 들고 읽는다면 괜찮다. 우리 소장이 누구를 지정하여 책을 읽게 하는 이것은 된다.

그 밖에 사람들을 조직하여 내가 강의한 설법 비디오를 보는 것인데, 제1강을 본 다음 공법을 배우고, 다음날은 제2강을 본 다음 또 공법을 배운다.

또한, 녹음을 듣더라도 역시 한 강 한 강씩 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전달자가 동작을 가르치는 이것은 문제가 없다. 동작은 여러 사람이 함께 배울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모두 이런 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가장 좋은 한 가지 형식이다. 우리는 여러 사람을 조직하여 단체로 공을 배우는 이런 형식으로 배울 수 있다.

또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연공장에서 직접 여러 사람을 따라 연마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책을 보고 녹음을 듣는 이런 형식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공을 전하는 활동 전반을 무슨 경영적인 성질로 만들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교실을 빌리

보거나 똑똑히 보지 못하는, 즉 때로는 볼 수 있고 때로는 볼 수 없는 때가 바로 그를 일깨워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 깨닫지 못하고 철저히 닫혀버린다. 어떤 사람은 아예 훼손되는데, 대단히 심하게 훼손된다.

제자: 정과를 얻는 것과 원만(圓滿)은 어떤 층차입니까?

사부: 이 문제를 나는 이미 말하였다. 정과를 얻는 것이란 나한과위(羅漢果位)에 도달하면 바로 정과를 얻은 것이다. 원만이란 그것은 수련의 결속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정과를 얻고 또 공(功)이 열린 것을 가리킨다. 즉 양자(二者)가 동시에 수련이 결속된 것을 원만이라고 한다.

제자: 앞으로 어떻게 수련해야 합니까? 속인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부: 여전히 속인 중에서 속인과 마찬가지로 고생을 겪어야 한다. 당신이 이미 나한과위를 얻었다 하더라도 속인 중에서 하찮은 어린아이마저 당신을 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속인 중에서 수련하고 있으며,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계속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 그 근기가 높은 사람은 그의 마음이 이미 괜찮게 제거되었지만, 여전히 당신에게 또 하나의 반복을 거치게 한다. 일반적인 수련, 정상적인 수련은 한 개 과정이면 곧 원만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듭 나타나게 하는데 두 번 반복하도록 한다. 당신

이 높이 수련하려고 하면 세 번 반복하고, 모두 수련해 냈다면 또 되돌아와 당신에게 수련하도록 한다. 더욱 높은 데로 수련하고자 한다면 곧 이 반복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당신은 여전히 속인 중에서 수련해야 한다. 가령 당신이 나한 과위로 수련되었는데 당신에게 번거로움을 조성해 줄 사람이 없고, 속인 중에서 누구도 당신에게 번거로움을 조성해 주지 않아, 속인 이 환경을 이탈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계속 수련할 수 있겠는가! 만약 당신에게 번거로움을 조성해 주는 것이 속인이 아니고, 속인 중에서 일부 무슨 부처요, 보살, 나한이 나타나서 당신에게 번거로움을 만들어 주어 당신의 집착심을 제거하게 한다면, 그 어찌 가능하겠는가. 바로 사부가 당신에게 이러한 일을 만들어 주거나 이러한 일을 배치하며 일체 난(難)을 배치할 때도, 모두 속인을 이용하여서 하며 속인이 당신을 교란하게 하여 속인 환경 중에서 제고하게끔 한다.

제자: 어떤 수련생은 수련반에 참가한 후, 또 다른 공법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이런 사람, 그는 흔히 오성(悟性)이 비교적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는 수련이란 인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가 얻고자 하는 생각에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웠지 그에게 배우라고 한 사람이 없다. 그가 法輪大法(파룬파

사부: 어떤 지역의 기공과학연구회는 체육위원회에 소속되었다. 체육위원회는 기공을 체육 활동의 일종으로 여긴다. 대중적인 체육 활동이므로 어떤 때에는 각 문파(門派)의 각종 공법(功法)이 단체 활동을 조직하는데 마치 체조를 하는 것과 같다. 어떤 장소에서 기공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들은 필경 기공을 일종의 체육 활동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비록 이런 유형의 일을 우리는 하려 하지 않지만,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하려 한다면 존중하는 의도에서, 우리도 여러 사람을 조직하여 갈 수 있으며 체조를 하는 것처럼 동작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바, 전제는 우리가 그 활동을 무슨 일로 간주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인 상황에서 기공과학연구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해서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바, 단체로 한두 가지 공법을 시연하면 그들의 체육 활동을 지지해 준 셈이 되므로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만약 이 속에 다른 기공사와 한 조를 짜 시연하는 이런 유의 활동이 있다면 우리는 참가하지 않는다. 단순한 체육 활동과 같은 행동은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를 똑바로 파악해야 한다.

또 한 가지가 있다. 지금 우리 각지 보도소에는 한 가지 상황이 있다. 여러분은 모두 法輪功(파룬궁)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어떤 곳에서는 학습반을 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가장 좋기로 우리는 ‘학습반 개강’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

따라 배우라!”라고 할 것이다. 발전해 간다면 중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 생기기 쉽기에 즉각, 그로 하여금 이러한 집착심을 정말 내려놓도록 지적해 주어야 한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모두 나를 아주 존중하였다. 어떤 사람은 또 나에게 혈서(血書)까지 써서 바쳤다.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써서 法輪功(파룬궁) 수련을 끝까지 하겠노라고 표시하였다. 중국에 가서는 그는 ‘부처’라고 하면서 그는 “당신은 리홍쯔(李洪志)를 따라 배우지 말고 나를 따라 배워라.”라고 했다. 그는 미끄러져 내려갔으며 그 자신이 명리심, 환희심을 추구한 데다 마의 교란까지 받아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法輪功(파룬궁)이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의 행동은 法輪功(파룬궁)을 파괴하고 있다. 내가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말한다. 法輪功(파룬궁)은 좋다. 法輪功(파룬궁)을 배우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당신이 보라, 내가 이 책을 가지고 큰길에서 걸어가면 자동차도 나를 감히 들이박지 못한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法輪功(파룬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겉으로는 마치 法輪功(파룬궁)을 수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法輪功(파룬궁)을 파괴하고 있다.

제자: 이전 한 시기 광저우(廣州)지역 기공과학연구회에서 기공 시연을 한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파)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배우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나중에 또 法輪大法(파룬따파)가 좋다고 생각하여 또 배우려 한다면, 배울 수 있는바 와서 배우도록 하라. 수련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개인의 문제이다.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 이 테두리에 들어와서 진수제자(眞修弟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정중(鄭重)하게 그에게 말해야 한다. 당신이 우리 여기에서 수련한다면 반드시 전일 하게 수련을 해야 하며 전심(專心)으로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며 당신이 여기에서 전일(專一)하지 않고 난잡하게 연마한다면 역시 소용이 없다. 우리는 선의(善意)로 그에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은 우리 여기에서 연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말라. 우리에게는 이렇게 할 권한이 없으며 남에게 명령할 자격이 없다. 단지 남에게 권(勸)할 수 있을 뿐으로서, 선(善)을 권하고, 선(善)을 권할 따름이다.

제자: 각지의 수련반 상황과 法輪大法(파룬따파)의 전국적인 형세는 어떻습니까?

사부: 현재 法輪大法(파룬따파) 수련반을 여는 것을 잠시 모두 뒤로 미루었다. 뒤로 미룬 원인은 지금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많고 또 각 방면의 일을 모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다. 하는 일이 끝난 다음, 일이 마무리되는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다. 法輪大法(파룬따파)의 발전상황에 대해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다. 현재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하여 法輪大法(파룬따파)를 배우는 수련생 숫자가 이미 상당히 많아졌는데, 내가 보기에 몇십만은 된다. 내가 매 도시에 가서 수련반을 열 때 주변의 각 시(市), 현(縣)에서 온 사람들도 있으며 거의 한 현도 빠지지 않았다. 이리하여 그들이 돌아가서 전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발전이 아주 빨랐으며 수련하는 사람 숫자가 아주 많아졌다. 호북(湖北)의 어느 현성(縣城)에서는 처음에 두 사람이 배웠는데 지금은 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사례가 아주 많다. 어떤 사람은 연공장에 가서 연마하고, 어떤 사람은 연공장에 가지 않고 연마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통계(統計) 내기가 몹시 어렵다.

제자: 이전에 정신병을 앓았거나 간질병을 앓았던 사람이 연공할 수 있습니까?

사부: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이러한 사람을 우리 연공장이나 혹은 우리 학습반에 끌어들이지 말라. 당신이 잘못하면 우리의 법을 파괴하게 된다. 만약 학습반이나 또는 우리 연공장에서 병이 발작된다면 남들은 모두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연마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할 텐데, 이는 당신이 우리의 법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서 사람의

말한다. 어떤 사람은 제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제도할 수 없는데 우리는 연분에 따른다. 그가 얼마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를 보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할 수 있을지, 전일 하게 연마할 수 있을지, 모두 문제이다. 여러분은 돌아가서 법 공부를 하는 붐을 일으켜야 한다. 이 요구는 보편적으로 모두 할 수 있으며 모두 인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장래 갈수록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자: 저희가 연공책임자를 늘릴 수 있습니까?

사부: 된다. 사람을 늘릴 때 당신들 자신이 한두 사람을 선정하여 더 배치해도 된다. 반드시 법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좋고 이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제자: 한 수련생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미 삼화취정(三花聚頂)에 도달했는데, 8월 15일 리홍쯔(李洪志) 스승님께서 그의 ‘법신’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사부: 여러분 주의하라! 무릇 이런 현상은 모두 각종 집착심으로 조성된 환각(幻覺)이다. 이런 사람이 몇 개 지역에 잇따라 나타났다. 바로 당신이 방금 말한 것과 같은데 그는 아주 위험하다. 그는, “나는 이미 삼화취정에 도달했고 나에게서는 얼마나 큰 재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나는 부처다, 당신들도 리홍쯔(李洪志)를 따라 배우지 말고 나를

사부: 나는 아직 이런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함을 절대로 금지하며 절대로 안 된다. 그가 전일 하게 法輪功(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인가? 예전에는? [삽화(插話)-이 사람은 다른 공법을 배웠는데, 그의 공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한 후에야 비로소 공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는 ‘삼화취정(三花聚頂)’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 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하려면 法輪功(파룬궁)의 요구에 따라 해야 한다. 그는 전혀 法輪功(파룬궁)의 요구에 따라 하지 않았으며 전혀 法輪功(파룬궁) 연공인의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마 부체가 있을 것이다. 그 자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여길 것이다. 자신이 구하고자 할 때 나의 법신은 그를 아예 상관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상황은 다른 하나의 각도에서 우리의 법을 파괴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사람이 진정하게 수련을 견지하고 우리의 표준에 따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에게 어떠한 조건도 제공해 주지 말아야 한다. 法輪功(파룬궁) 수련자라고 할 수 없다. 다른 공법을 연마(練)하던 사람이 법을 배우려고 한다면 배우면 되는 것이며 연분(緣份)에 따라야 한다. 사람에게 와서 배우라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일부 사람을 이끌고 와서 배우거나 혹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두 배워니까 따라와서 배운다면, 이것은 좋은 점이 없다고 나는

병을 치료해 줄 수 없다는 한 가지 전제(前提)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바,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작은 병은 즉석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 큰 병을 얻은 사람, 신체에 좋지 않은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진 사람은, 오로지 그가 생각을 개변해야만 비로소 그에게 움직여줄 수 있으며 그가 수련하려고 해야만 비로소 그의 업을 제거해 줄 수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직 수련하려는 생각이 없는데도 그에게 움직여 주는데, 책을 보기만 해도 그에게 움직여 준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그는 근기가 아주 좋아 그가 마땅히 얻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런 것은 천편일률로 볼 수 없다. 집에 있는 이런 환자가 대법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로 하여금 배우게 할 수 있는바, 당신은 그가 집에서 배우도록 할 수 있다. 우리는 미리 말해 두겠다. 나 역시 이러한 속인의 문제를 함부로 해결해 줄 수 없다. 그가 수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자신에게 달렸다. 그가 수련할 수 없다면 당신도 그에게 수련하라고 하지 말라. 일단 문제가 생기면 대법을 파괴하게 되는데 내가 어찌 이런 속인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그는 곳곳에 가서 선동(煽動)한다.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연마하여 정신병에 걸렸는데 사부님이 치료도 해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는 또 나의 명예까지도 손상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는 미리 말한다. 학습반에서는 받지 않으며 연공장에도 그가 오지 못하도록 한다. 간질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 우리는 학습반에서 간질병 환자가 학습반에 참가할 수 없다고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사업일꾼은 그가 들어오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사상을 개변하기 전까지는 병이 쉽게 발작하기 때문이다. 병이 발작하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간질병 환자는 정신병 환자와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단일한 원인으로 단지 그의 머리 안에 어떤 것이 들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좋지 못한 것을 꺼내버리면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이러하다.

제자: 정체(整體) 제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부: 정체(整體)제고란 바로 완전(完整)한 제고이다. 우리가 수련과정 중에서 당신 신체의 모든 생명체와 당신이 수련한 생명체는 모두 당신과 함께 제고한다. 우리는 정체적인 조절을 말하며 정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수련생들에게 신체를 조절해 준다. 정체제고란 주로 당신의 心性(썬썬)이 올라가면 당신의 공(功)도 따라 올라가는 것을 가리키는데 방금 내가 말한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제기한다. 왜 생리가 오지 않습니까? 당신의 心性(썬썬)이 올라간다면 공 역시 따라 올라갈 것이다. 압력이 아주 큰 사람의 신체를 조절할 때면 일부분은 따라 올라올 수 없어 아마 뒤떨어질 수도 있는데, 정체적으로 제고해 올라오려면 그 선결 조건으로 반드시 먼저 心性(썬썬)을 제고해야 한다. 신체만 개변하려 하거나,

나는 과거에 이런 문제를 말한 적이 있는바, 그 절에서 수행하는 승려들, 그 한 절의 장(長)을 주지, 방장이라고 일컫는데 그는 전업으로 수련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속인사회 중에서 수련하고 있지만, 우리 이 법 또한 좋아 고층차로 수련할 수 있으니, 당신 연공장의 보도원은 절의 방장, 주지와 무슨 다를 바가 있겠는가? 여러분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공덕이 무량한 일이다. 연공장에서 얼마나 되는 사람이 수련되어 나올 수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수련되어 나온다면 이 보도원은 공덕이 무량한 것이다. 이는 아주 엄숙한 일로서 마땅히 이 일을 잘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가장 편리한 조건을 취해 수련하고 여러분을 제고하게 하지만, 편리한 조건이라고 해서 법에 대해 함부로 제멋대로 하며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 장래에 또 전업으로 수련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다 가능한 일이기에 일부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동안의 연공을 통해 각 지역에 아마 적지 않은 문제가 반영되어 나왔을 것이므로 여러분은 문의해도 된다. 연공에서, 대법 사업에서 일부 일을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문제를 제출하라. 여러분에게 해답해 주겠다.

제자: 法輪功(파룬궁) 수련생이 특이기능(特異功能) 경연에 참가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로지 참답게 배우기만 한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창춘(長春)에서는 법 공부 붐을 일으킨 후부터 수련생이 나를 만나도 별로 물을 것이 없게 되었으며 또 묻지도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집을 나서기만 하면 누구나 다 나를 알고 있어, 고향이지 않은가, 거리에 나서기만 하면 법을 배우는 사람이 많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데, 그 많은 사람이 이것저것을 물을 것이다. 지금은 만나면 “사부님,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뿐이고 무슨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무엇을 물어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책 외우기를 시작한 후부터 수련생은 일한 이후에 법과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법과 대조하여 마땅히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다. 모두 법 공부를, 연공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면서 배우고 있다. 내가 생각하건대 각 지역에서도 마땅히 창춘(長春)에서처럼 법 공부를 해야 한다. 법 공부 붐을 일으키기만 하면 많은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되어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밖에 보도원을 선택할 때, 절대로 당신과 관계가 괜찮다든지, 친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고려하여 정에서 출발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일단 보도원으로 정한 후에 다시 바꾸려면 바꾸기 쉽지 않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안 된다. 법을 책임져야 하며 반드시 이러한 일에 주의해야 한다. 표준에 부합하여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안 되면 임시로 다른 사람을 쓸지언정 그러모으듯 해서 안 된

난(難)만 피하고자 한다면 그건 여전히 안 된다. 왜냐하면, 수련하여 자신을 개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心性(썬썬)수련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층차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공, 다시 말해서 당신의 心性(썬썬) 제고 이런 것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제자: 어떤 수련생이 제기했습니다. 대법에 대한 마(魔)의 교란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사부: 여러분에게 말해 주는데, 우리가 정법을 전함에 만약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만약 내가 오늘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장 편안할 것이다.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해 줌으로써, 나 여기에서 부딪힌 번거로움과 당신들이 부딪힌 번거로움은 모두 이 법에 대한 장애로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람이 이 일보(一步)에 이르러 법을 얻고자 하면 그 마(魔)는 가만있지 않고 당신을 방해하려 한다. 마는 생각한다. 당신은 나에게 빛을 지지 않았는가, 나는 당신을 찾아 갇으라고 해야 할 텐데 당신이 법을 얻는다면 나에게 진 빛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는 또 당신을 미워한다! 각 방면의 요소가 모두 방해 작용을 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는 모두 사람에게 업력이 있어서 스스로 조성한 것이다. 과거에 예수가 말했다. 사람이여! 당신은 죄(罪)가 있다. 그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고 업(業)을 죄라고 했는데

사실 이러하다. 바로 사람 자신이 좋지 못한 일을 하여 지은 업력이므로 그것은 죄가 아닌가? 그것이 여러 방면에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당신은 정법을 얻었기에 물론 당신을 교란하게 마련인데 바로 이런 원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일에 부딪힘은 모두 우리의 心性(심성)을 고험(考驗)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면 여하 여하하게 좋지 않다거나 혹은 어떠어떠하다고 할 것이다. 바로 당신의 의지가 확고한지 하지 않은지, 본질상에서부터 이 법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 당신이 본질에서 이 법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면서 또 어떻게 수련할 것인가? 당신이 개오(開悟)하기 전까지 모두 줄곧 법에 대해 확고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데, 어느 한 문(門)에서든지 모두 이러하다. 당신이 본질적인 것에서 아직도 견정하지 않다면 당신은 또 무엇을 수련하겠는가?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이 면의 고험과 교란이 있게 마련이다.

당신이 보라. 내가 학습반을 열기만 하면 보증하고 많은 기공학습반이 동시에 열린다. 만약 내가 거기에서 학습반을 열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일이 없지만, 내가 학습반을 열기만 하면 많은 사이비 공(邪功)이 우르르 모여 모두 학습반을 연다. 무엇 때문인가? 당신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므로 상보상성(相輔相成)으로 일부 마(魔)가 따르게 마련인데, 역시 이렇게 배치된 것이다. 즉 이 사람이 어느 문(門)으로

보도원에 대해 우리는 요구가 있는 것(수련생에 한해서는 당신이 배우고 싶으면 배우라)으로 반드시 전일(專一)하게法輪功(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은 수련생이 모두 그에게 잘못 이끌려간다. 기왕 보도원이 된 이상 마땅히 잘해야 한다. 우리는 보도원으로 하여금 법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려면 그들이 평소에 책을 더욱 많이 읽도록 해야 한다. 물론 많은 보도원이 아주 진지하며 또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종종 문화수준의 한계로 책을 보는 것조차 힘들며 나이 또한 아주 많다. 이것은 괜찮다. 그는 여러 사람을 조직하여 학습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을 조직하여 학습할 때, 책을 읽을 때 그도 듣게 되지 않는가? 여러 사람이 체험을 담론할 때 그도 여러 사람과 함께 제고된다. 오로지 여러 사람이 배우기만 하면 모두 제고될 수 있다. 마땅히 법 공부와 동작 연마를 결합하여 동시에 전개해야 한다.

지금 많은 지역에서 동작 연마는 잘 조직하고 있지만, 흔히 법 공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수련생이 문제를 제출하면 보도원이 해결하지 못하며 또 똑똑히 말하지도 못한다. 사부님께 여쭙보라고 하며 사부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만 찾는다. 사실 어떤 문제는 책 속에서 모두 말하였다. 정말 해결이 안 되면 여러 사람을 조직하여 녹음을 들을 수 있다. 많이 들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는 책에 모두 해답이 있다. 『파룬궁(수정본)』에서 개괄적으로 다 말했으므로 오

수 없다. 우리는 조직 형식상 대단히 느슨한 것으로, 당신이 연공에 참가하고 싶으면 참가하고, 당신이 연공에 참가하고 싶지 않으면 가면 그만이다. 당신이 온다면 우리는 당신을 책임지며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당신이 배우려 하지 않는데 당신의 이 마음을 누가 잡아둘 수 있는가? 당신을 여기에 잡아두어도 당신은 잘하지 않고 당신은 무엇이나 다 말하고 무엇이나 다 제멋대로 하면서 내부에서부터 우리의 법을 와해시키고 파괴할 텐데, 우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누가 배우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스스로 배우고, 법에 대해 인식이 되면 그 자신이 수련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선(善)을 향하는 것은 모두 자의적인 것으로서 당신 이 사람이 잘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누가 강요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가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당신인들 그에 대해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남들은, 이 사람이 수련하려 하지 않는다면 부처마저도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가 자원(自願)해야 하며 강박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가 있다. 우리는 많은 수련생이 있는데, 그 숫자가 상당하다. 날마다 묵묵히 책을 읽고 있는데, 매번 문제에 부딪힐 때에도 모두 보고 있다. 이 한 점에서 볼 때 심지어 우리 보도원보다도 더 잘하였다. 그러므로 각 보도소에서는 마땅히 여러 사람을 조직하여 법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더욱이 각 연공장의 보도원은 마땅히 선두역할을 해야 한다.

들어가는지, 정법(正法)을 얻는지 아니면 사법(邪法)을 얻는지를 본다. 당신이 어느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사람이 수련하기란 몹시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바로 마땅히 이러해야 하며 아주 어려운 것 역시 마땅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체는 모두 자신이 조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난(難)은 그 와중에서 또 사람의心性(심성)과 깨달음(悟)을 표현하고, 제고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등 여러 방면의 요소를 표현하는데 이 역시 상보상성하는 것으로서 변증법적으로 이러한 일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이러한 교란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창춘(長春)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내가 바로 부처이니, 당신은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며, 자신은 어떠한지 하는데, 여러 방면의 교란, 심지어는 나 개인의 명예에 대한 파괴도 모두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당신이 듣는지 듣지 않는지, 당신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 그것은 갖가지 수단으로 파괴할 것인데 바로 당신의 그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이라, 당신이 안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을 굳게 다지고 한마음으로 정법을 수련할 것인즉 나는 당신의 그런 것을 믿지 않겠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 많은 수련생이 이미 법의 위력을 체험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변화 역시 아주 큰 것으로 내가 말한 이 이치를 알고 있다. 그가 아직도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그것은 오성

(悟性) 문제가 아닌가. 오성이 너무 낮기 때문인데 바로 이런 이치이다. 그러므로 이런 교란은, 내가 말한다면, 역시 정상적이다. 수련이란 바로 큰 파도가 모래를 이는 것과 같은데, 모래를 말끔히 쳐내면 남아 있는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금(金子)이다. 얼마나 많은 금이 남을 수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수련하는지에 달렸다.

제자: 法輪大法(파룬파파)에 관한 선전자료를 좀 많이 제작하여 연공장에서 선전하면 어떻습니까?

사부: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의 선전과 공을 전하는 전반 방법은 모두 오늘날 기공을 선전하는 방법과 같지 않다. 여러분은 아마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으며 또한 무슨 일을 내놓고 자랑하지 않는바, 무슨 이러한 일이 없다. 다른 기공사는 환자 하나를 치료했다면 그는 선전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며 더 듣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줄곧 널리 선전한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없다. 우리는 수련생이 수천수만 명이 되고, 그들 모두 병이 없지만 우리는 무엇을 말한 적이 없으며 이런 일을 자랑하지 않았다. 물론 초기에 여러분은 보도에서부터 일부 소식을 보았을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초기에 우리는 통상적인 기공형식으로 나온 것으로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높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런 첫 단계에서부터 점차 인식하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 왔다.

하고 관찰하는데 예전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기공사가 반을 열기도 몹시 어렵다. 일단 그가 수강생을 모집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수련생을 끌어들이 참가시킨다. 그는 학습반을 열고 돈도 벌었으나 우리 수련생을 망쳐버렸다. 우리가 이처럼 큰 한 가지 일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큰 힘을 들였는데 한순간에 우리 수련생을 망쳐버렸다. 물론 어떤 수련생은, 당신이 그에게 너무 높게 요구하면 안 된다. 어쨌든 그는 방금 법을 배웠으므로 법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다. 무형 중에서 자신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 예전에 우리는 이런 하나의 규정이 있었다. 무릇 각지 성(省)과 시(市)에 이렇게 하는 보도소 소장이 있다면 모두 사람을 바꾸어야 하며 절대로 남겨둘 수 없다.

각 지역 보도소의 사람, 연공장의 보도원 중에 우리 수련생을 끌고 가서 다른 기공사의 보고를 듣고 우리 수련생 중에서 다른 기공자료를 팔거나 혹은 우리 수련생을 데리고 가서 왜문사도(歪門邪道)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보도원은 발견하는 대로 모두 바뀌야 하며 절대로 남겨둘 수 없다. 남겨둔다면 후환(後患)이 극심하다. 이는 이미 심하게 법을 파괴하였고, 내부에 들어와서 법을 파괴한 것으로서 이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고, 이는 절대로 사정을 봐줄 수 없다.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원칙은 느슨한 관리(鬆散管理)이지만 연공이란 이 문제에서는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누구도 파괴할

깊지 못한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주로 어떻게 돈을 번다든가, 각 공파의 관리라든가, 원래의 틀이 그의 머릿속에 아주 깊게 박혀있다. 이러니 그가 우리를 일반적인 기공으로 여기고 관리한다면 아마 우리 수련생들을 망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태까지 기공과학연구회의 사람이 우리 보도소 일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우리 보도소의 소장은 모두 우리 연구회에서 비준(批准)한 것으로 대다수는 모두 내가 직접 임명하고 지정하였다. 이는 우리 대법이 빗나가지 않게 하는 직접적인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기공처럼 관리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거기에는 난잡한 자료가 대단히 많은데, 그 자료를 좀 갖고 와서 판단하면 그는 기뻐할 것이며, 이는 돈벌이를 하는 좋은 기회이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그는 돈을 벌자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일부러 우리 공법을 파괴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파괴적인 작용을 한다. 그 속의 어떤 난잡한 것들은 모두 우리의 수련생을 교란할 수 있다. 법에 대해 이해가 깊지 못한 일부 사람은 빗나가기 쉽다. 또 난잡한 기공책을 갖고 와서 파는데 다른 기공 공파는 바로 이렇게 한 것이다.

지금은, 어떤 기공사가 와서 학습반을 연다 하면 사람들은 모두 냉정하게 검토한다. 이전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기공사가 와서 학습반을 열기만 하면 참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은 모두 아주 냉철하여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관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창춘(長春)에서 초기에 학습반을 열 때 내가 말한 것 역시 대단히 높았다. 하지만 늘 기공을 입에 담고 있었다. 우리는 오늘날 고층차로 공을 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 역시 사람으로 하여금 점차 인식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제자: 자동차성(汽車城)은 십여 만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체인데 잘 전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우리 이法輪大法(파룬파파)는 본래 자동차 공장에서 비교적 잘 전개했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러한 마(魔)를 알 것이다. 그것들의 교란이 아주 대단했는데 그 역시 마이다. 하지만 우리는 말하였다. 이러한 일은 모두 상보상성(相輔相成) 하는 것으로 얼마나 되는 사람이 수련할 수 있고 얼마나 되는 사람이 수련할 수 없는지는 그 개인에게 달렸다. 교란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 어찌 가능하겠는가. 교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너무 쉽게 수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도(大道)가 이처럼 평탄하고, 위를 향해 수련함에 어떠한 난(難)도 없다면, 이 어디 수련인가. 그렇지 않은가? 마난(魔難)이 있어야만, 비로소 사람이 수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낼 수 있고, 비로소 사람의 각종 집착심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마는 정말 대단히 커서 상당히 큰 파괴작용(破壞作用)을 했으며 많은 사람을 망가뜨린 것으로서, 일으킨 작용은 이미 일반 마의 범주를 벗어났다.

이런 일은 아주 높은 층차에서도 다 알고 있으며 고급 생명도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일은 나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한 차례의 기회를 남겨 주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보아하니 이 기회를 남길 수 없을 것 같다. 장래에 자동차 공장에서 대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많아질 것이다.

제자: 일부 수련생은 학습반에 참가하려고 준비했으나 시종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저녁 연공장의 수련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일부 수련생은 학습반에 참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의 이 학습반을 계속 연다면 십 년을 더 연다 해도 여전히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노수련생들이 있고 또 나의 책,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가 있으므로, 모두 법을 전파하고 사람을 도화(度化)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주력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 기간에 당신은 확실하게 주력(主力)이 되었다. 내가 직접 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닌가? 기왕 이러하다면, 내 생각에는 우리 여러분이 이 방면의 일을 좀 더 많이 하여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사람들이 연공장에 와서 배울 때면 보도원은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당신의 책임은 작지 않은 것으로서 간단하게 사람을 소집하는 것으로만 보지 말라. 되도록

또 法輪功(파룬궁) 수련은 일반적인 기공수련이 아니고 그는 고층차(高層次) 상의 수련이다. 이 일을 하기란 몹시 어렵다. 한 사람의 신체를 정화(淨化)해 주고 진정하게心性(썬썬) 수준을 모두 제고시켜 올리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나는 아주 많은 공을 내보내어 그들의 신체를 정화해 주고 신체를 청리(淸理)해 주며, 그들에게 아주 많은 것을 넣어주어야 하고 또한 법을 투철하게 이해시켜 주어야 하므로 이 일은 몹시 어렵다. 나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일을 모두 해낼 수 있다. 만약 그들이 혼자서 수련한다면 몇 십 년이 되어야 이 일보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설령 다른 일반 사부라 하더라도 한두 해 내에 그 정도에 도달하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진정하게 한 사람을 이끌기는 쉽지 않다. 만약 일단 한 사람을 망치자면 그것은 다만 한순간의 일로서 대단히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관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한 가지 규정이 있다. 각 지역 기공협회에서 직무를 맡은 사람은 우리 보도소의 일을 담당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 예컨대 어느 보도소 소장을 말하자면, 이 사람이 대단히 좋고 그가 기공협회를 탈퇴해 나와 보도소의 일을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의 이 기공협회는 반 마비(癱瘓)상태에 처해 있고, 그 본인은 또 아주 좋으며 또 잘할 수 있다. 이는 유일한, 극히 특수한 사례이다. 다른 지역 기공협회의 사람은 우리 이 법을 이해함이

한다. 만약 하나하나가 모두 베이징(北京)과 연락을 취한다면 이처럼 편리한 조건이 없을지도 모른다. 대도시 근처의 각 현에 대해서도 관찰해야 하며 그들이 일을 전개하는데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은 法輪功(파룬궁)에 대해 책임지는 데 입각해야 한다. 당신이 관찰하지 않는다면 그는 제멋대로 하고 또 정신(精神)을 파악하지 못해 실제적으로는 빗나가게 된다. 이는 法輪功(파룬궁)에 대해 하나의 손실이다. 또 우한(武漢)과 같이 이렇게 큰 보도소는 인접한 몇 개 성(省)을 관찰하는데, 내가 생각하건대 역시 아주 좋다. 그들에게는 경험이 비교적 많으며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나 역시 마음이 놓인다. 그들의 법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좋고 일도 비교적 잘 전개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다. 우리 보도소는 절대 빗나가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쪽지를 건네 제기하였다. 보도소 인원을 어떻게 배치(配備)해야 하는가? 인원은 모두 자원적이다. 하지만 한 가지 규정이 있다. 보도소 소장은 반드시 내가 연 학습반에 참가한 사람이어야 한다. 들은 것이 많을수록 깨달은 것이 더욱 깊을 것이며, 들은 것이 적다면 흔히 깨달은 것이 깊지 않거나 심지어 또 어떤 것은 어찌 된 영문인지 잘 몰라 비뚤게 이끌어나가기 쉽다. 물론 아래에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해도 풍부해질 수 있으며 더욱 진일보로 인식할 수 있다. 사람을 선택할 때에 열성적이고 정직(正派)하며 사문왜도(邪門歪道)를 하지 않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법을 많이 깨닫고 법을 많이 배우며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특별히 또 한 가지 점을 말하겠다. 우리 연공장에 무릇 번거로운 일과 편차가 생겨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나타난 것은 모두 다른 공(功)을 연마(練)하며, 기타 추구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틀림없으며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무릇 이러한 사람은 백이면 백 다 다른 것을 연마(練)했거나 혹은 그의 집에서 다른 것을 공양하며 버리지 않았는바, 이것이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法輪(파룬)이 변형되는 것인데, 역시 다른 공법을 섞어서 연마했거나 의식 중에 섞어 넣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상황은 틀림없이 이런 원인이 조성한 것이라고 나는 말하느바, 이 두 가지 상황에서만은 나의 법신이 일반적으로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공을 연마(練)하고 그가 섞어서 연마(練)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는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의 사람이 아니므로, 나의 법신은 그를 상관하지 않으며 법도 주지 않는다. 그런 난잡한 마들이 그가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연마(煉)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그를 희롱하고 그를 해치려 한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라서 또 法輪大法(파룬따파)를 파괴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한마음으로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연마(煉)하지만 그는 의념 중에서나 동작 중에서 늘 자신이 감수하고자 다른 것을 좀 가해 넣는다. 과거에 다른 공을 연마(練)할 때는 감각이 좀 있었

으나 이번에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연마(煉)하자 그런 감각이 없었다. 그는 아직도 느껴보려 하는데, 그것은 집착하여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가 그의 원래의 것을 섞기만 하면 法輪(파룬)은 변형되게 마련이며 법은 문제가 생기게 마련인데 보증하고 이러할 것이다.

제자: 인생의 진정한 의의는 더욱 잘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사부: 어떤 사람은 또 이러한 생각이 있다. 내가 부처로 수련되어서 뭘 하겠는가 하고 말한다. 이는 부처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함을 말한다. 부처를 수련하여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한다. 당신은 웃지 말라. 그는 확실히 모르고 있다. 왜 부처수련을 하는가? 첫째는 사람의 신체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고, 둘째는 고생을 영원히 겪지 않으며 영원히 아름답다. 사람의 일생이란 아주 짧은 것인데, 사람의 신체를 보존하는 이것이 한 면이며, 그 외에 그는 고생을 겪지 않는 것인데, 당신의 생명이 생긴 곳은 대단히 높은 우주 공간에 있다. 우주 공간에서 온 것인 만큼, 성품(性)은 본래 선량한 것이다. 바로 자신이 좋지 않게 변해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떨어져 내려온 것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멸이라는 이런 과정이다. 되돌아가서는 뭘 하는가라고 하는데, 진정 당신이 생긴 곳은 고층공간이며 그곳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서 당신이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이다.

모두 상관없다. 그럼 이 경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속에는 곧 돈의 문제가 관련된다. 내가 알기에는, 무릇 이러한 것을 만든 지역에서는 모두 이런 방법을 취했다. 하나는 수련생 중에 일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사를 갖고 있다. 또는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거나 행정 관리인으로 이런 편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직장에 인쇄소가 있다면 이런 편리한 조건을 이용하거나 혹은 기업가가 당신이 이 일을 하계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 준다. 우리 보도소도 돈을 만지지 않으며 그가 우리를 도와서 한다. 우리는 다만 원고를 제공해 줄 뿐이고 제작된 후에 우리가 배포하는 것으로 모두 이렇게 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며, 안 되면 방법을 생각한다. 우리는 부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조건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조건이 안 되면 억지로 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원칙이다.

보도소의 관리상에도 이미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여러분은 곧 이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 보도소를 설립하는 데도 조건이 있는데 역시 여러분에게 말해 주어야겠다. 새로운 보도소는 베이징(北京) 혹은 몇 개 큰 보도소에 보고해야 하며 특히 성(省) 혹은 대도시의 보도소는 그 행정범위 내의 것, 예컨대 꾸이양(貴陽)시 보도소는 꾸이저우성(貴州省)을 관할해야 하고 각 현의 보도소는 제때에 그들과 연락을 취해야

이다. 물론 대법 일을 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일부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는데 내 보기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 예컨대 우리 수련생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느 기관, 기업, 혹은 기타 직장에서 책임자거나 기업의 사장인, 편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어 다들 한자리에 모여 앉아 회의하게 하는 이것은 문제가 없으며, 그것은 돈 문제에 연관되지도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왜냐하면, 여러 분야에 모두 우리 수련생이 있으며 이러한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바 法輪功(파룬궁)을 위해 좀 봉사하고, 좀 공헌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각지에서 모두 이러한 일이 나타났다. 法輪功(파룬궁)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데 다들 이러한 일에서 아주 적극적이었다.

또한, 각지의 보도소는 수련생들의 연공(煉功)을 위해 연이어 일부 소형 신문을, 예컨대 「창춘(長春) 法輪大法(파룬따파)」, 「베이징(北京) 法輪大法(파룬따파)」, 「우한(武漢) 法輪大法(파룬따파)」 등등을 발간했다. 나는 이 형식 또한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무슨 신문이든, 무슨 판단이든 상관없이 모두 우리 수련생 내부의 체득이다. 여러 수련생이 해야 할 일부 일을 제때에 수련생들에게 전달할 따름이다. 그러나 흔히 그들은 이 일을 모두 매우 간단하게 하는데, 종이 한두 장이거나 좀 잘 인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대각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모두 진흙탕 속에 빠진 것과 같고, 모두 여기에서 흠장난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람이 올 때는 모두 이러하기에 아주 좋다고 여긴다. 사람은 모두 아주 좋다고 여기고, 진흙탕 속에서 뒹굴면서도 그는 아주 편안하고 아주 좋다고 여긴다. 우리 예를 들어 보자. 사람을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돼지를 말하자면, 돼지우리 안에서 자며, 똥오줌이 뒤섞인 흙 속에 있지만, 그의 경지로는 대단히 좋다고 느낀다. 사람이 그 경지 중에서 일단 승화되어 올라와 되돌아본다면 정말 보아줄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아니다. 바로 그런 이치이지 않은가. 남들이, 사람속인 중에서 진흙을 이기고 있으며, 곳곳마다 모두 아주 더럽다고 하는데 바로 이 뜻이다. 이 깨끗하지 못한 환경 중에서 그는 그래도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좀 깨끗하다면 괜찮다고 여기는데, 실제로는 흙 범벅이 된 신체를 흙물로 씻는 데 불과하다. 말하자면 얼마 더 깨끗하지도 못하다.

제자: 인생의 진정한 의의는 수련을 잘하여 부처가 되는 것입니까?

사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본귀진(返本歸真)하는 것이다. 수련을 잘하여 되돌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의의(意義)이다. 고급 생명이 볼 때 이리하다. 그러나 당신이 속인 속에서 당신의 속인 중의 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본다면 그는 당신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속인은

우주의 그런 진상을 보지 못하고, 속인 중의 일을 너무나 중히 보기 때문이다. 인류는 지금 서방(西方)에서부터 전해 온 이러한 지식으로 충만해져 너무 절대화되었기에 도리어 사람으로 하여금 갈수록 더욱 물질적으로 변하게 하였다. 현재의 이론으로 일체를 가늠하기 때문에 인류는 갈수록 이 속인 중으로 더욱 심하게 빠져든다.

제자: 꿈속에서 사망으로 화장실을 찾다가 겨우 한 곳을 찾았는데 깨어나 보니 이미 배설하였는데요?

사부: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들어주겠다. 무당산(武當山)은 진무(眞武), 다시 말해서 현무(玄武), 도가에서 말하는 현무대제(玄武大帝)가 수련한 곳이다. 무당산에는 현무(玄武)가 수련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그의 수련 과정을 이야기한 것으로 그 속에는 이런 사연이 적혀 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수련했는데, 아마 사십여 년이 될 것이다. 그는 이미 대단히 높은 층차로 수련되었다. 어느 하루,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마(魔)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미녀로 변해 진무를 교란하였다. 결국, 그는 혼미해져 단단히 지켜내지 못하고, 정(情)을 움직이고 말았다. 그런 후 그는 화가 치밀었고, 대단히 후회스러워하며 생각했다. 내 이 수련이 아직도 희망이 있단 말인가? 이처럼 여러 해 수련했으나 이런 일이 없는 데다 또 자신의 마음마저 지켜내지 못하다니,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김에 하산(下山)해 버렸다. 산을

우리가 오늘날 이 법을 내놓아 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법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로 하여금 원형을 잃지 않고 빛나가지 않게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첫 시작부터 잘하지 못한다면 후인(後人)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이전에 리홍쓰(李洪志)가 있을 때 어떻게 했다면 오늘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내가 있기에, 어떤 일은 여러분에게 바로잡아 줄 수 있지만, 내가 없다면 어떤 모양으로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첫 시작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엄격히 요구하며 업체를 꾸리지 않는다. 우리의 공파(功派)관리는, 보도소는 돈을 모으지 않고 완전히 무보수로 도우며 지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 어떤 단체, 방파(幫派)로 나가지 않고, 모두가 무보수로 대중을 위해, 더욱 많은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수련하려 하면 우리는 그를 보도(輔導)해 주는데, 우리 자신 또한 수련인인 바로 이런 원칙이다. 그러므로 보도소를 설립함에 여러분도 무슨 집이요, 전화요, 이것저것을 가지려 하지 말아야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어떤 보도소는 현재 조건을 이용하거나 혹은 집에서 혹은 자신의 사무실을 이용하여 모두 잘할 수 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이것은 상관없다. 관전은 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며, 수련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것이 관전이다. 어떻게 자신을 제고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며 기타 일체 일은 모두 부차적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것은 속인 중의 일이다. 우리의 수련과정은 바로 이 법을 수호하고, 이 법으로 하여금 원형을 잃지 않고 빗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또 다만 오늘날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래 역사에 오래도록 남겨질 것이다. 여러분은 모두 이 법을 배우며 이 법을 따르고 있다. 만약 우리가 첫 시작부터 그것을 잘하지 못하고 첫 시작부터 빗나간다면 장래에 가서는 면모가 전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 여기에서, 나 개인의 이 방면에서 될 수 있는 한 그것을 잘하도록 하여 어떤 좋지 못한 일과 좋지 못한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래에 각지 보도소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이 하는 이런 일 역시 法輪功(파룬궁)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어느 한 점에서 본다면 역시 法輪功(파룬궁) 형상의 체현이다.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의 몸가짐에 주의해야 하고 일 처리 방식에 주의해야 하며 法輪功(파룬궁)에 먹칠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직장을 만들고 돈벌이를 한다면 이것은 무슨 법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이 속에 돈이든 물질이든 이익의 문제가 관련되기만 하면 곧 당신이 많이 벌었고 나는 적게 벌었다,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 보상을 좀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사회에서는 또 당신을 찾아 할당하려고 한다는 등등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만약 정말로 이 형식을 취하게 되면 그것은 수련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회사로 되어버린 것으로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절반쯤 내려왔을 때 한 노파가 거기에서 바늘을 갈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쇠막대기로 바늘을 갈고 있었다. 아마 당시 고대인들은 모두 이런 방법으로 바늘을 갈았을 것이다.

여보세요, 하고 그는 이 노파에게 물었다. 당신께선 어찌하여 이렇게 굵은 쇠막대기로 바늘을 갈고 있습니까? 노파는 그에게 알려주었다. 시간이 길어지면 반드시 바늘로 갈 수 있다네. 진무(眞武)는 마음이 움찔했다. 노파는 바늘을 갈면서 사발에 물을 부었는데, 물이 넘치는데도 그녀는 계속해서 물을 부었다. 이에 그는 노파에게 말했다. 물이 넘칩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찼으면 자연히 흘러나오게 마련이라네. 그녀는 사실상 그를 점화해 준 것이다. 그녀가 그에게 알려준 뜻은,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그런 일을 너무 중하게 보지 말라. 한 번 잘하지 못했다면 다음번에 잘할 수 있다. 바로 인체에는 모두 본능이 있기 때문에 차면 그것은 배설되게 마련이다. 그녀는 진무에게 이런 뜻을 점화해 준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한마디 고사(故事)일 뿐이고, 그리 완전하지도 않으며 또 그리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이 일 역시 아마 그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방금 쪽지에 쓴 것처럼 아마 이런 일일 것이다.

제자: 매번 참장(站樁)을 하거나 혹은 가부좌를 하고 연공 상태에 들어가지만 하면 즉시 연마하기 싫어 중단했다가 나

중에 후회하게 되는데요?

사부: 그것은 바로 사람이 자심생마(自心生魔)의 교란을 받는 것인데, 속인의 마음은 마(사상업력의 교란)를 생기게 할 수 있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당신이 마음속에서, 사상 속에서 생긴 과거의 그런 좋지 못한 사상물질이 모두 저촉(抵觸)하는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당신이 잘 수련하면 이런 나쁜 물질은 소멸하게 마련이므로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당신을 연마하지 못하게 한다. 왜 당신은 연공을 하면서 늘 동요(動搖)하는가? 의식 중에서 생각한다.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연마하지 말자.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그 사상은 원인이 있다. 외부적인 마의 교란이 없다 해도 또 자신의 마(魔)로부터 교란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런 좋지 못한 물질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어떠한 물질이든 다른 공간에서는 모두 영체(靈體)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당신이 잘 수련하려면 그것을 소멸해야 하고, 그것을 소멸해야만 당신이 비로소 잘 수련할 수 있으며 비로소 그 나쁜 사상을 제거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가부좌할 때 자꾸 잡생각이 일어나 조용함(靜)에 들지 못하는데, 이는 바로 당신에게 그러한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 역시 살아있는 것이며 과거에 당신 사상 중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교란작용을 한다. 당신이 잘 수련하면 그것은 소멸하며, 소멸할수록 더욱 적어져 최후에는 전부 소멸한다. 그러니 그것이 가만히 있겠는

으므로 우리는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진정한 수련이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석가모니가 그 해에 법을 전할 때 사람에게 이 마음이 일지 않게끔 하기 위해 그는 제자를 거느리고 출가하여 사원(寺院)에 가서 수련하는 이런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일부 다른 종교, 예컨대 서양의 일부 종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시 명예요, 이익이요 하는 것을 아주 담담히 보는 이런 문제가 언급되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가 정말로 수련하고, 제고하며, 이 좋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제실체(經濟實體)로 만들 수 없고, 또한 직장처럼 만들 수 없다. 여러분은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그 밖에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만약 당신이 돈을 구해 쓰고 그것으로 돈벌이한다면 곧 완전히 이 법을 파괴하게 된다. 왜냐하면, 법은 사람을 제도하는 것으로 경영과 장사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에 많은 기공사가 병 치료를 한다든가, 자문을 받아 일부 돈을 벌기도 하였고 다른 공파(功派) 중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돈이 없으면 도(道)를 키울 수 없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모두 터무니없는 논리다. 마치 중국 고대에 수련인은 모두 돈이 아주 많은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난하였다. 물론 우리 역시 당신에게 돈이 많음을 반대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나는 이미 말한 적이 있다. 당신이 사업에서 많은 바 일을 잘 하여

는데, 무슨 행정수단이나, 억지로 남을 배우게 하거나, 누구에게 무슨 벼슬을 주거나, 돈을 얼마나 벌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없다. 여러분은 완전히 자원적이며 또 모두 이 법을 배우고자 한 것이고, 더욱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보게 하려고 여러분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부가(附加)조건이 없지만, 이 일은 아주 수고스럽다. 오로지 여러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대가를 치를 뿐 보수가 없다. 물론 보수가 없다고 말하는 그것은 속인의 각도에서 한 말이다. 내가 말하는데, 대법을 널리 알리는 것은 공덕이 무량한 일이다. 우리는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규칙을 정하였고 책에도 보도소 설립 조건이 있다. 우리가 조직한 보도소는 사회의 그 어느 직장과도 같지 않고, 또한 어느 회사 혹은 어느 행정부서와도 같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바, 이는 우리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사업(事業)을 좀 해볼 생각을 조장하기 쉬우며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 밖에 또 일부 문제에 연루되는바, 만약 우리 보도소를 정말로 하나의 직장처럼 만든다면 많은 문제가 그 속에 연관된다. 예컨대 주택에는 돈이 필요하고 전화를 설치하는 데 돈이 들어가며, 물이나 전기요금도 모두 돈이 든다. 그럼 이 자금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은 모두 비용을 받지 않고 공을 가르치며, 우리 또한 무슨 회비를 받지 않고 여러분의 돈도 받지 않으며, 완전히 자원하여 나왔

가? 당신이 수련하기만 하면 그것은 교란하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사상 중에서 또 사부를 욕하고 우리의 대법을 욕한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 자신의 主意識(주이스)가 욕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업이란 이런 나쁜 물질이 당신의 사상 중에 반영되어 조성된 것임을 반드시 똑똑히 분간해야 한다. 일단 이 문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것을 즉시 배척하라! 主意識(주이스)는 반드시 강해야 한다. 수련하지 못하게 해두는 수련하겠다면 그걸 배척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나의 법신이 당신의 사상이 아주 견정(堅定)한 것을 보고 당신을 도와 대부분을 없애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제자: 연공의 층차는 이미 정해졌지만, 대법은 끝없는 것으로 또 가히 고심(高深)한 큰 부처로 수련할 수 있다는데 자신이 수련된 층차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컨대 나한에 도달한 후에 다시 새롭게 수련하고자 다시 발원(發願)한다면?

사부: 한 사람이 나한과위로 수련되었다. 원래는 나한과위에서 원만하기로 정해졌지만, 안 된다, 나는 아직도 더 높이 수련하겠다고 한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고 당신이 다시금 발원(發願)한다면 여전히 높은 데로 수련할 수 있다. 과거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다. 왜 많지 않았는가? 흔히 사람의 수련을 배치할 때에 배치한 그 층차는 이미 그 자신의 상황에 근거하여 배치한 것이며 각종

물질의 많고 적음은 자신의 감당 능력에 의해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그리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특수하게 좋은 사람도 있다. 그의 어떤 것은 숨겨졌기 때문에 일정 층차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발전하기에는, 일정한 층차로 수련되면 그 사부가 책임질 수 없어 자동으로 물러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책임지는 이런 상황도 있다. 더욱 높은 층차로 이끄는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부가 높은 층차로 이끌 것이다.

제자: 어느 날 꿈속에서 리(李) 스승님을 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저의 상황은 좀 특수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마치 제가 어느 방면에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스승님께서 저의 신체를 조절해 주셨는데 저는 아랫배와 발바닥이 썩 하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사부: 이는 아주 간단한 것으로 당신이 수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수련 과정 중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법신(法身)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상태는 꿈이 아니며 진실하고도 확실하게 모두 접촉할 수 있다. 낮에는 당신의 정력(定力)이 부족하여 당신이 입정 중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꿈속에서 보게 한 것인데 괜찮다. 꿈속에서 나를 만나는 것은 정상이다.

제자: 수련을 더욱 잘하기 위해 일상생활 중에서 眞(眞)·

전국 일부 보도소 소장들을 위한 광저우(廣州) 설법

李洪志

1994년 12월 27일

우리의 보도소는 잇따라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많은 사람이 외지에서 학습반에 참가하고 이 공법(功法)이 아주 좋다고 여겨 이 공법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 주고자 공원에서 주동적으로 공(功)을 가르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공을 전함으로써,法輪大法(파룬파파)의 영향이 갈수록 더욱 커지게 하였다.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하였고 크게 공헌했다. 한마디로 총괄하자면 더욱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얻게 하고, 더욱 많은 사람을 제고하게 하며, 더욱 많은 사람이 이득을 얻게 하였는바, 여러분은 모두 좋은 일을 하였다. 전후로 많은 보도소가 설립되었는데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장래에 이 문제 역시 두드러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때에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좀 담론하고 말하고자 한다.

우리 보도소 관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줄곧 명문(明文) 규정이 있다. 여러분 알다시피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

善(싼)·忍(런)을 속으로 묵념(默念)해도 됩니까?

사부: 일상생활 중에서 眞(쩐)·善(싼)·忍(런)을 묵념하는 이것은 좋지 않을 것이 없으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연공할 때는 의념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제자: 창춘완바오(長春晚報)가 보도하기를, 올해 여름 티베트 모모모(某某某) 대사가 경을 강의하는데 크고 작은 2백여 활불(活佛)이 참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사부: 화상·라마 역시 사람이라, 그들이 뭘 하려고 하든 상관할 것이 없다. 그들이 하는 일은 부처가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부처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다. 속인은 이러한 것을 대단히 중하게 본다.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분명해야 한다. 경을 강의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수행인의 일종 종교 활동에 불과하다. 더 말하자면 말법시기라 무슨 말 할 것이 없다. 그 외 한 가지 문제를 말하겠다. 여러분 알다시피 화상(和尚)이든 라마든 간에, 국가 정치, 법령을 간섭할 수 없으며 속인 중의 일을 간섭하지 않는다. 그 무슨 시위를 하고, 무슨 독립을 한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라. 한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어찌 이런 일을 하는가? 이것은 속인 중의 집착심이 아닌가? 속인의 일을 너무 중하게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일로 말하자면 그것은 수련인으로서 제거해야 할 집착심 이 아닌가?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 이곳은 정토(淨土)라

고 나는 말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수련생들의 心性(썬썬)이 대단히 높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수련생들이 心性(썬썬) 수련을 중시할 것을 요구한다. 영웅, 모범인물이라 해도 그는 아직도 필경 속인중의 영웅, 모범인물이라고 나는 말한다. 우리는 당신이 완전히 속인을 초월한 한 사람으로 되며, 완전히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한다. 그 대각자(太覺者), 그는 무엇을 위하는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련생에 대한 나의 요구 역시 대단히 높으며 수련생이 제고되는 것 역시 아주 빠르다.

내가 방금 한 이 말은 지나치지 않다. 우리 예를 들어 말해보자. 전국 각지 어떠한 업종에서든지 대형회의를 열 때 분실한 물건을 되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아직도 있으나 아주 적다.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 학습반에서는 분실한 물건을 모두 찾을 수 있으며, 때 수련반이 모두 이러하다. 몇천 명의 학습반인데 때 학습반에서 주운 시계, 금목걸이, 반지, 그리고 돈, 큰 금액에서 소액에 이르기까지 웬만큼 큰돈도 다 있다. 천여 원까지도 있었지만 주우면 가져왔다. 내가 거기에서 공표하면 잃어버린 사람이 와서 찾아갔다. 다른 수련생들도 말했다. 이런 일은 레이펑(雷鋒)을 따라 배우던 그 시대에 본 적이 있을 뿐 지금은 여러 해 동안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학습반이 결속된 후 수련생들은 모두 자각하여 남을 위하고 사회를 위해

전국 일부 보도소 소장들을 위한 광저우(廣州) 설법

李洪志

1994년 12월 27일

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상관해선 뭘 하겠는가. 그것이 어떤 난(難)이든 당신과는 상관이 없다. 만약 정말로 겁난이 있다면 하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 이 겁난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에 사람들이 말한 무슨 지구 폭발이며, 무슨 위성 충돌이며, 무슨 홍수가 난다고 하는 이런 난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정한 하나하나 잇따른 난, 부동한 층차에서 정한 난은 모두 지나갔다. 혜성은 목성에 부딪치고 지구에 부딪치지 않았다. 그 물(水)은 이미 지나갔다. 작년의 그 물은 아주 큰 것으로 세계적이었지만 이미 아주 작아졌고 그 정도로 작아진 것마저 지나가 버렸다. 많은 일이 모두 지나간 것으로 이제 이러한 난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무슨 숨길 것이 없는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면, 장래에 많은 사람을 도태시키는 일일 것이다.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강력한 질병 중에서 도태될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한다. 일부 사람은 늘 이런 일을 담론하는데 당신은 그러한 일을 상관하지 말라. 이런 재난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수련하고 어떻게 자신을 제고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 관건 문제이다.

나는 이만큼 말하겠다. 다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회의를 열도록 하자(열렬한 박수).

法輪大法(파룬파파) 베이징(北京) 총보도소 녹음

책임지는 心性(썬썬)이 필요한바, 자신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다. 그래서 우리 이곳은 정도라고 말하는데 그래 옳지 않다 말인가?

제자: 어떤 수련생이 무슨 자연(自然)의 무슨 공이라는 책을 펼치자, 책 속에는 다른 사람을 논박하고 자신의 공을 자랑하며 法輪大法(파룬파파)를 깎아내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수련생이 두 페이지를 본 후에 공(功) 속에 그 공(功)의 동물 그림자가 어른거리 입정(入靜)에 영향을 주었는데 요?

사부: 이런 것은 볼 수 없다고 우리는 늘 말했다. 당신이 그것을 봐서는 뭘 하는가! 진수(眞修) 제자는 이런 가짜, 사악한 것을 모두 불태워버렸는데 당신은 아직도 보고 있으니 이 격차가 크지 않은가? 당신이 그것을 보는 것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닌가? 난잡한 것은 어떤 것도 보지 말라. 기공을 보급하는 기공사들은 공을 전하는 일을 끝냈기에 진정한 공법(功法)은 나와서 전하는 이가 없으며, 당신의 그런 일을 상관하지도 않는다. 현재, 오늘은 이런 공이 뛰쳐나오고 내일 저런 공이 뛰쳐나오는데, 그러한 기공은 거의 모두 가짜다. 바깥에는 정법을 전하는 것을 화란(禍亂)하고 파괴하는 것뿐이다.

올바른 기공사는 모두 전하지 않는다. 당신이 계속 전한다면 당신은 법을 교란하는 것이 아닌가? 해야 할 일을 했으

로 큰 공(功)을 세운 셈이지만 당신이 계속 한다면 바로 교란이다. 그러므로 돈을 위하고 명예를 위하며 이익을 위하는 가짜 기공사들은 거의 다 마(魔)이지만, 그 본인은 자신이 마인 줄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학습반에서 절대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주된 원인은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기본적으로 모두 마가 교란하고 있다.

제자: 수련생이 입정(入靜)하여 연공할 때 늘 사악한 염두가 나타나는 것은?

사부: 그렇다. 이 역시 내가 방금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이 좋지 못한 일을 하여 생긴 각종 사상물질이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모두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당신이 거기에 앉아서 연공할 때 나오는 그런 좋지 못한 생각은 아마, 남을 욕하려 하고, 또 나쁜 짓을 하려 하는 것들이 당신을 강박하여 나오게 한 생각으로, 바로 과거의 사상 중에서 생긴 그 나쁜 물질이 아직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또 사부까지도 욕할 수 있다. 당신은 걱정하지 말라. 당신이 되도록 그것을 억제하고 배척한다면 곧 없어질 것이므로, 반드시 이런 좋지 못한 생각을 배척해야 한다. 일단 나타났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당신이 사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업력이 당신 대뇌에 반영된 것이다.

한 사람들은 표면상으로는 속인과 같지만 실제로는 연공인으로서 또 속인과는 같지 않다. 그러면 보도원으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당신이 한 무리의 사람을 조직하여 연공할 때 당신의 책임은 무엇인가? 만약 전업수련이라면 바로 절의 방장(方丈)이고 주지(住持)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마땅히 잘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수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사람의 수련을 도와주기도 해야 한다. 여러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로 이러하다. 여러분은 꼭 이 선두 역할을 잘하여 수련생을 잘 조직해야 하며 이法輪大法(파룬따파)로 하여금 더욱 잘 발양(發揚)되고 빛나게 하여 인류에게 복을 주게끔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낮은 층차에서 말한 것이다. 실제로 역시 이러하다.

나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각나는데 방금 말한 것은 우리 여러분에게 제기한 이런 몇 가지 요구다. 또 일부 사람은 늘 일을 그리 열심히 하지 않는다. 사회적인 일은 무엇에나 다 무관심하고 이 겁난(劫難)이 오기만 기다리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또 나에게 묻는다. 이 겁난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내가 학습반을 열 때 이 문제를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무슨 겁난인가? 하고 물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 겁난은 누구를 향해 오는 것인가? 좋은 사람은 겁난 속에 있지 않다. 정말로 겁난이 있더라도 좋은 사람은 모두 남겨야 하고 나쁜 사람을 도태시킬 뿐이다. 그런데 당신은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제

으면서 일이 있으면 사부가 그에게 해답해 주기를 기다린다. 사실 그 법 속에는 무엇이든 다 들어있는 것으로 오로지 당신이 배우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모두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당신이 법을 믿지 않고 동요한다면 그것은 오성(悟性) 문제라고 나는 말한다. 또한,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모두 보도원으로서 보도원 일을 하고 있다. 물론 모두 무보수이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찌어찌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보도원으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져야 하고, 전일(專一) 하게 연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무슨 행정수단으로 제약할 필요가 없다. 수련은 자신에 달린 것이라 우리 또한 이런 권한이 없다. 우리는 단지 여러분을 조직하고 여러분을 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하나의 임무를 감당할 뿐이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보도원은 마땅히 법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 수련생보다 높아야 하기에 법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일부 수련생이 문제를 제기하면 해답하지 못하는데 내가 생각하건대 이 역시 문제다. 당신이 교양(文化)이 없다 해도 괜찮다. 여러분을 조직하여 공부할 때,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인식을 담론할 때가 바로 당신에게는 제고이다. 내가 창춘(長春)에 있을 때 그들이 개최한 한 차례 보도원회의에서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 오늘날 이런 수련형식을 말하자면, 속인사회 중에서 수련하는 이러

제자: 수련생이 입정(入靜)하여 연공할 때 종종 모모(某某) 공(功)은 족제비 부체의 공이라고 다른 사람과 말하는 수련생이 있습니다. 그 수련생이 저녁에 꿈을 꾸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향을 피우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사부: 앞으로는 그런 난잡한 공을 연마했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일부 수련생에게는 그런 부체 공을 연마(練)하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당신이 그에게 말해주어도 괜찮으나 가장 좋기에는 돌려서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안면이 없는, 부체의 공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런 공이 어떻게 나쁘다고 말한다면, 그는 당연히 당신을 공격할 것이며 여럿이 당신을 둘러싸고 공격할 것이다. 심지어 듣기 거북한 말까지 할 텐데 우리는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선(善)을 권할 것을 주장하며 그가 인식할 수 있다면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되도록 이러한 일을 피해야 한다. 진정으로 그런 공(功), 그런 문(門)에 들어갔고 그 속에서 또 나오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 그는 이미 왜문사도(歪門邪道)에 들어간 것이다. 그의 본성은 이미 방향을 잃었으며 기본상 오성(悟性)이 좋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뉘우친다면 물론 좋지만 뉘우치지 않는데 당신이 억지로 권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책략과 방법에 주의해야 하고 이러한 일에 주의하면 되는 것으로, 사악한 것이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제자: 어떤 사람이 벽에 거는 달력을 찍어서 원가대로 수련생들에게 나눠주면서 한 푼도 벌지 않으려고 하는데 되는지요?

사부: 이런 일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이 수련생이 참으로 좋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을 해주려고 한다면 원칙상 또 아무것에도 위배(違背)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속에는 금전교환의 문제가 있기에 원가라 해도 돈을 만진 것이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이러한 일을 피하고 돈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당신이 돈을 만지기 때문인데, 시간이 길어져 자칫 잘못하면 마음속 평형을 잃을 수 있다. 늘 이러한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내 이견 밑지는 장사구나. 나의 교통비도 여기에서 뽑아야 하지 않는가, 내가 여기에서 손해를 좀 보았는데 마땅히 추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리하여 그것은 사람의 각종 마음을 조장할 수 있다. 점차 이런 데서 파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왜 여러분에게 돈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지 여러분은 아는가? 석가모니는 이천오백 년 전에 그들이 돈과 재물을 만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심산 수림에 가서 수련하였다. 오로지 동냥하는 사발 하나만 있었을 뿐인데, 또 이 동냥 사발에 대해 한 차례 설법하였다. 동냥 사발마저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잘못하면 사람을 심하게 교란할 수 있으며 사람의 수련에 영향을 줄 수

은 믿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물론 나는 병에 걸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병, 병균, 병독(病毒) 등 이런 미생물은 모두 업력이 우리 이 공간의 신체에 체현된 것이다. 나의 책을 읽으면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데, 책을 읽을 때 나가는 것이 모두 공이고, 모두 법이라 소업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정신이 아주 맑아지고 좋아짐을 느낀다. 그러나 그가 돌아가면 또 재발한다. 왜 또 재발하게 되는가? 사실 이때에는 그의 사상업력이 비교적 커서 그가 감당해야 할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가 깨닫고 견뎌낸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법신이 그를 도와 소업해 주어 나머지를 없애버림으로써 그는 지나오게 된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주 좋아졌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여러분도 그것을 무슨 정신이 잘못되었다거나 혹은 부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희망 사항을 좀 말하겠다.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점하고 싶지 않다. 보도원회의인 만큼 당신들 보도소 내에 또 다른 일도 있다. 여러분이 앞으로 법 공부 붐을 일으키기를 바란다. 매일 연공하는 것을 법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 연공하는 것을 견지해야 하며 매일 법 공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견지해야 한다. 진정하게 이 법을 잘 파악해야만 비로소 당신의 수련을 지도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사부만 기다리고 있

누구도 제도할 수 없다. 많은 지역에 모두 이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한다. ‘나는 어찌하여 스승님께 미안한 짓을 했을까? 내가 어찌 되어 스승님을 욕할 수 있을까?’ 창춘(長春)의 한 수련생은 “저는 어찌하여 스승님을 욕하고法輪大法(파룬파파)를 욕하는 것입니까?”라고 말하면서 나의 사진 앞에서 “스승님, 저는 연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연마하기만 하면 사상 속에서 스승님을 욕하는데, 저는 수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께 죄송합니다.”라고 했다.法輪大法(파룬파파)를 접촉하기만 해도 욕을 하고 책을 들기만 하면 사상 속에서 욕을 했다. 최후에는, “이렇게 좋은 스승님과 이렇게 좋은 법인데 저는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라고 했다. 물론 우리 이 수련생 그는 사상이 조금도 흐리멍덩하지 않고 그는 아주 명백한 것으로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승님께 미안하다고 하였다. 나중에 그가 연공할 때 이 일을 우리 연공장의 보도원에게 알려주었다. 보도원은 즉시 총보도소로 알렸다. 여러 수련생이 이런 상황에 대해 이는 모두 마가 작용을 일으킨 것이라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사실 이런 업력, 그것 역시 마의 일종 형식이지 않은가. 그가 연공초마(煉功招魔)한 이 한동안에 여러 수련생이 그를 둘러싸고 연공하고 또 그를 에워싸고 둘러앉아 책을 읽어주자, 그의 머리가 맑아졌다. 사실상 그를 도와 소업해 준 것이다.

물론 나의 책은 이와 같은 한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다. 당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당신이 말해 보라. 그 해 예수 역시 사람들을 거느리고 어디에 가면 어디에서 먹으면서 돈을 만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나는 이 일을 말하면서 이 사례를 들 뿐이다. 당신들은 아마 이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바르게 나아가야 한다. 나 역시 당신이 이렇게 하도록 가르칠 수 없다. 수많은 해가 지난 후에 사람들은 리홍쯔(李洪志) 시기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을 또 전해갈 수 있겠는가? 벌써 끝장이다. 그리 오래가지 않아 끝장나고 만다. 어떤 사람은 사진을 갖고자 하는데 가지려면 당신 자신이 가서 찍고 당신 자신이 가서 사진을 뽑도록 하라. 하지만 우리는 되도록 수련생 내부에 한해서만 해야 한다. 장래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아마 사회적으로 공개 발행할 것인데, 나의 달력마저 책 번호가 있기 때문이다. 장래에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것이므로 절대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하면 또 대법을 더럽힐 수도 있다.

어떻게 파는가, 원가대로 받아도 안 된다. 이 면에서 어떠한 마음이든 일지 말아야 하는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신이 수련하여 제고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 반드시 이런 형식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법을 얻게 하기 위해 법을 좀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낫다. 사람心性(썬썬) 상의 제고는 외형적인 것에 비해 훨씬 더 낫다. 이런

것은 法輪功(파룬궁) 연구회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총보도소, 분보도소, 보도소에서 모두 돈을 만져서는 안 된다. 우리 法輪功(파룬궁) 연구회는 어떤 일을 하든 모두 나의 동의를 거쳐서 한다. 각종 명목으로 사사로이 한 것은 모두 안 되며 권리 침해이므로 사회의 법률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

제자: 어떤 사람은 心性(썬썬) 수련을 잘 하려고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그의 심령(心靈)을 건드리는 일이 없으며 또 꿈을 꾸는 적도 없습니다. 스승님께서 그를 책임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데요?

사부: 이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자신이 지닌 것과 그 본인의 상태가 다 같지 않기 때문인데, 지닌 것이 복잡할 수 있다. 물론 나는 또 여러분에게 예를 들겠다. 어느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은 온 층차가 비교적 높으므로 고생을 겪을 필요가 없다. 그는 이 법에 동화(同化)하려 왔기 때문에 동화가 끝나면 그는 일을 끝낸 것으로 친다. 또 일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극소수이지만 당신이 말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나는 다만 이 뜻을 말할 뿐이다. 많은 사람이 각종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고생을 겪든 겪지 않든 이 법에 동화되고 이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반에서도 그 업력, 그것 또한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신이 소업하여 그 업을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죽어 없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업이 말을 듣겠는가? 당신이 그것에게 죽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말을 듣겠는가? 그것은 이미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을 연마하지 못하게 한다. 연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살아남고자 당신이 그것을 없애버리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신의 머릿속에 더러운 욕을 반영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法輪大法(파룬따파)를 믿지 못하게 하며 심지어 나머지도 욕하게 하는데 어떠한 말이든지 모두 생각나게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누가 그를 점화(點化)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인지 똑똑히 분간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똑똑히 분간되지 않으면 그 사상업을 따라가는바, 이런 사람은 끝장이며 누구도 제도할 수 없다. 사실은 바로 이 사상업력이 방해 작용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한 단계, 아주 짧은 한 단계로서. 오로지 당신의 사상이 확고할 수 있다면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고, 이 업력을 없애버릴 수 있다. 예전에 학습반을 열 때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최근 한 시기 적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이 상황을 알려왔다.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라. 당신이 나를 욕하든 아니면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욕하든 그것은 당신 자신이 욕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똑똑히 분간해야 하는데 만약 主意識(주이스)가 똑똑하지 않으면 곧 끝장이며

서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나는 어찌하여 스승님을 욕하는가?’ 그 사상 중에는 ‘이 법은 가짜다! 그를 따라 배워서 안 된다.’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사상이 확고하지 못해 바로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데, 더는 연마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말하였다. 이 한 세트 공법의 수련은 바로 사람의 主意識(주이스)를 수련하는 것으로 당신 자신이 자신마저도 파악할 수 없다면 누구도 당신을 제도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정신병 환자가 수련반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을 강조하는가? 바로 그 자신이 자신마저도 파악하지 못하며 자신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제도의 것은 누구인가? 우리는 당신 자신을 제도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말한다.

그러면 일부분 사람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나는 도대체 왜 스승님을 욕하게 될까? 왜 나는 법을 욕하게 되지? 나는 그것을 억제하겠다.’ 장기간 정신이 긴장되어 자신마저도 통제하지 못하지만, 나의 법신은 모두 알 수 있다. 당신의 사상이 이처럼 확고한 것을 보고는 당신을 도와 이 사상업력을 없애버릴 수 있다. 사실 모두 그 사상업력이 장난치는 것이다. 당신이 과거에 사람을 욕했던 것, 과거 당신의 그 좋지 못한 사상이 모두 뒤집혀 나올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우리의 연공이란 바로 소업(消業)이다. 다른 공간 속의 일체 물체는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나는 일찍이 이 말을 했고 나는 학습

제자: 적지 않은 수련생이 꿈에 사부님께서 공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는데 다섯 가지 공법 중의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다섯 가지 공법 중의 동작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마가 와서 당신을 가르친 것으로 그것은 다 가짜이다. 틀림없이 내가 당신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바로 이 다섯 가지 공법이다. 이것은 당신의 신체를 개변시키고 모든 술류(術類)와 유형적인 것을 연마해 내기에 충분하다. 진정하게 당신 층차 고저를 결정하는 그 공은 연마해 내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이면 쓰기에 충분하다. 꿈속에서 연공하는 것을 느꼈다면 연마하지 말라. 이에 따라 연마한다는 것은 心性(썬썬)이 아직 그리 확고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확고하다면 생각이 조금만 움직여도 곧 알아차릴 것이다.

제자: 일단 어떤 사람이 원만으로 수련되지 못하고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원만으로 수련되지 못하고 원만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가 있는 그 위치에서 과위를 얻었다면 그 역시 수련성취 한 것이다. 하지만 世間法(쓰젠파)마저도 벗어나지 못했다면 곤란하다. 그러나 世間法(쓰젠파)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는 삼계 내의 다른 층차의 공간 중으로 갈 곳이 있다. 그가 어느 한 층차로 수련되었으면 바로 그 층차에 있게 마

련인데 이 역시 좋은 점이 있다. 만약 그가 그건 안 된다 하며, 나는 잘 수련하지 못했기에 나는 한마음으로 내세에 이어서 수련하기를 발원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내세에 또 정말로 수련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또 이어서 수련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다. 만약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주 위험하다. 계속하여 잘 수련하지 못하면 여전히 아래로 떨어질 것인즉 원래보다도 못할 것이다. 만약 잘 수련했다면 그건 원래보다 낫게 되는데 그에게는 이와 같은 이해 관계가 있다.

제자: 心性(썬썬) 수련 과정에서 때때로 자신이 잘못을 저지를까 봐 두려워하며 늘 법으로 가늠하지만, 여전히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사부: 매 한 가지 일을 그렇게 걱정하다니 내 생각에도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 관계는 바로잡기가 어렵다. 생각을 많이 하면 집착이 되고 생각을 적게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하게 될까 봐 걱정인 것 같다. 내가 생각하건대 마음을 그렇게 긴장하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매 한 가지 일을 할 때, 일반적인 일이라면 하자마자 곧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일을 내려놓으면 또 저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일이 있지 말아야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속인 중의 일은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알 수 있다. 일부 갑자기 나타난 일에 대해서

마땅히 여러 방면에서 모두 제고를 가져와야 한다. 동요하는 마음 역시 일종 불안정한 집착으로서 역시 집착심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김에 나는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한 가지 일을 말하겠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말했는데, 내가 보기에 여러분이 나에게 좀 더 많이 말해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수련반을 열 때 한 가지 문제를 말했는데 바로 업력에 관한 문제였다. 나쁜 일을 하면 업력을 얻고, 좋은 일을 하면 德(더)를 쌓고 德(더)를 얻는다. 내가 마지막 몇 기의 학습반을 열 때에도 사람들에게는 일종 사상업력(思想業力)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전에 나는 다만 업력의 존재를 대충 말하였을 뿐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사상업력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업력 그것은 어떤 나쁜 작용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모두 보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에 부딪히면 모두에게 해석해 줄 수 있다. 어떤 신수련생은 연공하기만 하면 스승님을 욕하고 어떤 신수련생은 연공하기만 하면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욕하는데, 사상이 확고하지 않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가? 또한, 아주 더러운 욕을 하는데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욕마저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입 밖에 내지는 않는다 해도 사상 중에 욕하는 말이 떠오르게 한다. 많은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특히 연공 초기에 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진정으로 착실히 수련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모두 이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그래

마가 나타나 우리의 법을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나를 욕하고 어떤 사람은 法輪大法(파룬따파)가 어떠어떠하게 나쁘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수련을 심각하게 교란한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런 일,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당신이 수련하는 과정 전반에는 모두 법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당신이 확고한지 확고하지 않은지의 문제가 있으며, 줄곧 당신이 수련하는 최후의 일보까지 법에 대해 확고한지 확고하지 않은지 계속해서 고려했다. 이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문제는 모두 논할 바가 못 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이 문제가 아닌가? 당신이 법 자체에 대해 확고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법에 따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럼 다른 것도 모두 동요하지 않겠는가? 그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이 가짜라고 여기는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런 일종 마의 형식으로 우리를 교란하고 있다. 만약 이런 마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도 말했다. 만약 당신의 이 法輪大法(파룬따파) 속에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없고, 이러한 것이 교란하지 않는다면, 당신 이것은 너무나도 쉽게 수련하는 것이다. 그럼 사람이 제고하여 올라갔는지를 어떻게 보아 낼 수 있겠는가? 단지 좀 괴롭기만 한데, 신체가 좀 괴롭고, 평소에 부딪히는 그런 번거로운 일뿐이라면 그럼 당신은 무언가 빠뜨린 것이 아닌가? 법에 대해 확고한지 확고하지 못하지 이 방면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의 수련은

우리는 이것이 좋은 일인지 아니면 나쁜 일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때때로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매 한 가지 일을 할 때마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며 작디작은 일마저도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너무나 집착한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대범하게 수련하고 큰일에 눈을 두어야 한다. 물론 이 점에서 수련과정 중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일을 잘 파악하지 못해 잘못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건대 그것은 당신이 아직도 거기까지 수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은 아직 당신에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당신은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 마음을 제거할 때가 되면 그것은 자연히 반영되어 나올 것이다.

제자: 성명쌍수(性命雙修)와 원영(元嬰)은 중합(重合)되는 것이 맞습니까?

사부: 당신이 성명쌍수 한다는 것은 本體(번티) 개변과 수련한 원영(元嬰)이 때가 되면 모두 당신의 元神(웬션)과 합하며, 합하여 일체(一體)가 되는 것이다.

제자: 고기를 먹으면 업력이 있습니까?

사부: 고기를 먹는 그 자체는 업력이 없으며 또 살생의 개념이 없다. 고기를 먹는 자체는 집착이 아니지만 고기를 먹음으로써 고기 맛에 대한 사람의 집착심을 조장할 수 있다.

제자: 매 사람의 몸에 있는 德(더)는 제한되어 있고 높은

공으로 수련되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개공개오(開功開悟)한 후에도 여전히 德(더)를 쌓고 제고할 수 있습니까?

사부: 德(더)는 제한되어 있다. 개공개오 한 후에는 절대로 더 제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공한 후에 이 사람은 무엇이나 다 보았고 무엇이나 다 접촉했으며 무엇이나 다 명백해졌기 때문에 오성(悟性)이 존재하지 않는다. 명백하고도 명백하게 고생을 겪어서 높이 수련할 수 있다면 그럼 누가 하지 않겠는가? 그 부처도 여전히 이어서 위로 수련할 텐데 그는 왜 수련하는 것이 아주 늦는가. 바로 그는 이미 고생을 겪을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오로지 특수한 공현을 해야만 그는 비로소 조금이나마 제고하는데 이 속에는 이런 한 층의 관계가 있다. 德(더)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德(더)가 모자라면 또 업력이 있지 않은가. 고생을 겪은 후에 업력은 또 전화될 수 있는 것으로 德(더)로 전화(轉化)될 수 있지 않은가. 만약 정말로 여전히 이어서 수련할 수 있다면, 자신이 계속해서 수련할 수 있고, 계속해서 수련하고자 한다면 친지, 친우의 업력을 당신이 가져다 없애버림으로써 德(더)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德(더)는 사람의 心性(썬썬) 그리고 마음의 용량과 상보상성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德(더)는 그 한 경지에 이르면 가득 차서 더는 담을 수 없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고생을 더 겪는다면 사람은 아마 용량이 모자라 나쁘게 변해 떨어져 내려가고 헛되게 수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건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법을 잘 파악하는지에 달렸다. 법을 여러분에게 남겨주었다. 사실 나의 목적이란 바로 이 법을 여러분에게 남겨주는 것이다. 내가 가까이서 오래도록 누가 수련함을 지켜보고 있다 한들 당신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두 소용이 없다. 나는 나의 법신이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사실 나는 더욱 높은 경지를 말하지 않았으며, 더 큰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 사람은 다른 공간에 모두 신체(身體)가 있기 때문에 매 사람이 그 신체에 일정한 에너지가 있을 때에는 모두 크게 변할 수 있다. 저쪽에서 수련하는 나의 신체는 상당히 큰데, 어느 정도로 큰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스승님께서 미국에 가신다면 저는 어떻게 연공해야 합니까? 당신께서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법신이 당신을 보호해 준다고 말했다. 사실 또 다른 한 층의 뜻이 있는데, 단지 나의 법신만이 당신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큰 공간범위, 일정한 우주공간범위마저도 아직 나의 그 배(肚子)를 벗어나지 못했다! 당신이 어디로 간다 해도 그것은 모두 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당신은 잘 수련하기만 하면 된다.

물론 또 일부 마(魔)가 존재할 것이다. 그럼 왜 마가 존재할 수 있는가? 내가 말했지만, 최근에 이르러 일부 문제를 처리하였는데 그중에는 이런 일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전국 각지 혹은 우리 어느 연공장에도 늘 이런

다. 석가모니가 만년에 이르러 수련과정 중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련하며, 수련하여 올라가게끔 하기 위해 많은 계율을 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이런 것이 없다. 실제로 석가모니가 남겨놓은 가장 관건적인 것이 바로 계율이다.

우리는 무엇을 계(戒)할 필요도 없고 또 당신에게 어떻게 하라고 규정할 필요도 없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남겨 놓은 이 법이 곧 당신에게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데, 내가 있지 않거나 당신이 나를 보지 못한다 해도, ‘법을 스승으로 모시고(以法爲師)’ 바로 이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이 성취하고 못하고, 되고 안 되고는 모두 이 법이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리홍쯔(李洪志)가 오늘 어느 수련생이 괜찮은 것을 보고 당신에게 뒷거래하면서 또 당신에게 공을 좀 주어 당신을 올라가게끔 한다고 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렇게 한다면 내가 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사람마다 모두 수련해야 하며 모두 수련해야 하는바, 실속 있게 수련해야 한다. 물론 우리 어떤 사람은法輪大法(파룬파파)에 극히 특수한 공현을 하였다. 그것 역시 수련하고 있는 것으로 단지 수련형식이 같지 않을 뿐이다. 그는 다른 일종의 수련방법이다. 사실 내가 한나절 말한 것은 여러분이 진지하게 법 공부를 하고 진지하게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장래에 내가 국내에서 공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다.

제자: 석가모니는 이미 개공했는데 왜 법을 전한 지 4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여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까?

사부: 대단히 높고 대단히 높은 층차에서 온 한 사람, 여래를 몇 배나 능가한 그가 수련한다면 아마 개공한 후 49년이 필요 없으며 그의 절반 과정을 거치거나 혹은 더욱 짧은 과정을 거쳐 대단히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그의 근기와 관계가 있고 또한 그가 있는 층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그가 전세(前世)에 있었던 층차와 아주 큰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사람마다 모두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것이 아니다.

제자: 석가모니는 49년이란 시간에 여래 층차에 도달했는데 누가 그에게 공을 연화(演化)해 준 것입니까? 그는 돈오(頓悟)에 속합니까, 아니면 점오(漸悟)에 속합니까?

사부: 그는 돈오에 속한다. 그는 사람을 제도하러 온 것이지 수련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누가 그에게 공을 연화(演化)해 주었는가? 누구도 그에게 공을 연화해 주지 않았다. 무릇 내려와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내려오기 전에 많은 대각자와 공동으로 이 일을 토론하며 그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봐서 정한다. 정해졌다면 바로 계획에 따라 하는데, 어느 때 가서 개공하고, 어느 때 가서 원만하며, 어느 때에 일을 마무리하는가 하는 이것은 모두 정해 놓은 것이다. 그는 또 우리가 말하는 개공·개오에 속하지 않는다. 당신은

아마 그리 이해하지 못할 텐데 그는 단번에 기억이 열렸고 그가 예전에 자신이 수련하던 것을 상기(想起)하게 되어 그는 그것을 내놓아 사람에게 전하였다. 내가 말하자면 석가모니가 당시에 전한 법, 종교 중의 법, 불교 중의 법은 높지 않다. 여기에서 석가모니가 높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도 자신의 것을 완전히 다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2500년 전 원시사회에서 갓 벗어난 이런 사람들에게 전한 것으로, 그것은 그의 법 전부(全部)가 아니다.

제자: 오로지 가부좌하는 중에서만 비로소 공이 연화되니까? 아니면 心性(썬썬)이 제고되는 동시입니까?

사부: 가부좌하는 중에서, 연공 중에서, 고생을 겪는 중에서, 난(難)을 겪는 중에서 모두 공이 연화된다. 心性(썬썬)이 제고되는 과정에서도 층차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공이 자란다.

제자: 어떤 사람은 관세음이나 또 성불(成佛)했다고 말하는데요?

사부: 남이 함부로 하는 말을 듣고 믿지 말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말법시기에 이르러 인류사회는 각자(覺者)들이 모두 손을 떼고 상관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상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류사회에서 모두 손을 떼고 상관하

절대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수련생들도 천목이 열린 사람을 높게 보고 층차가 높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천목의 층차가 열린 것이 어떠한가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수련한 층차에 따라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당신이 열리지 않았지만, 당신은 그보다 훨씬 높을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남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아주 보편적이다. 우리가 한 사람의 수련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보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心性(썬썬) 고저를 보고 법에 대한 이해 정도를 본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만약 스승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스승님께서 공을 전함을 끝마치시어 모두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러면 수련할 수 없다고 한다. 수련하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내가 이 법을 전함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석가모니가 그 당시 세상에 있을 때 그는 문자를 남겨놓지 않았다. 그가 남겨놓은 것은 다만 후인(後人)들의 비연속적인 기억 속에서 더듬어낸 석가모니가 말한 한 단락 한 단락의 그러한 일로서 체계적이지 못하다. 여러분이 본 경서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때는 다만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정도로만 알게 하였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으로, 이 속에는 또 일부 석가모니가 말하지 않은 것이 섞여 있다. 오늘 우리는 이 법을 아주 명료하게 말했다. 석가모니는 그 당시 단지 계율(戒律)만 남겼을 뿐 석가모니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문자를 남기지 않았

렇게 함부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심리적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은 누구누구에게 부체가 있다고 말하는 데 사실 그는 전혀 부체가 아니다.

과거에 불교 중에서는 육도윤회를 말했는데, 또 이런 한마디 말이 있다. 사람이 사람으로 전생된 것은 아주 적고, 동물이 사람으로 전생된 것은 비교적 많다. 물론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는 불교 중에서 말한 것이고, 나는 이 예를 들어 이런 뜻을 말할 따름이다. 물론 여러분 역시 비관할 필요가 없다. 그 생생세세에 무엇이었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오늘은 보도원회의이다. 강의를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이 믿지 못하겠다면 그냥 이야기로 들어도 된다. 과거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저쪽에서부터 올 때 모두 동물이 되려 한다는 말인데, 동물은 복잡한 사회관계가 없고 사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동물로 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나, 이에 비해 사람으로 되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쉽다는데, 사람이 되면 고생을 겪어야 한다는 바로 이 뜻이다. 그러나 사람은 또 고생스러우니까 수련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은 수련하지 못하며 수련해 올라가도 사법(邪法)이므로 그가 높아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천목이 열린 사람은 당신이 본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으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데, 반드시 이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그 밖에 당신은 일부 일을 감응(感應)할 수 있는데 당신이 감응하는 신호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아마 마(魔)가 당신에게 전해 줄 수도 있으므로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걸 중에서 그들의 처지 역시 아주 곤란한 것으로 자신을 돌보아도 모두 바쁘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있는 그런 층차 중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나는 예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지금은 상 관하는 사람이 없다고 나는 말했는데, 나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이런 일은 엄연한 사실이다. 당신이 부처에게 빌어도 좋고 당신이 여러 가지 종교의 상(像)에 빌어도 좋은데,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매우 드물게 한 그림자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는 말을 할 수 있는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는 말걸을 의미하며 이때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는 관음보살(觀音菩薩)은 바로 몇 년 전 사람들이 모신 관음보살이다. 공은 실제로 여래불보다 높고, 아미타불(阿彌陀佛)보다도 좀 높다. 왜냐하면, 대보살 자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여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공은 여래를 능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련한 것이 바로 보살이기 때문인데, 그 자신은 하는 일이 따로 있다. 이 속에는 아주 많은 고심(高深)한 이치가 있고 이런 것은 인류가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역시 속인의 그런 상하급(上下級) 관계가 아니며, 이는 별도의 일이다.

제자: 어떤 사람은 法輪世界(파룬쓰제) 중의 나한과 보살, 심지어 다른 일부까지도 다른 세계의 부처보다도 높다고 말하는데 그렇습니까?

사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일부 세계의 부처는 다른 세계의 부처보다 높다는 이것은 맞다. 왜냐하면, 층차 역시 부처가 있는 세계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여래 층차의 부처라 하더라도 만약 부처 과위 중에 도달한 많은 사람을 거느린다면 이러한 사람 역시 높고 낮음이 있다. 전반 法輪世界(파룬쓰제) 역시 모두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 法輪世界(파룬쓰제)의 나한, 보살은 다른 세계의 부처보다 높고 法輪世界(파룬쓰제)의 층차는 대단히 높다고 말한다. 우리가 오늘날 전한 법은 아주 큰 것으로 法輪世界(파룬쓰제)에만 국한하여 전하지 않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알게끔 한 것이 法輪世界(파룬쓰제)이다. 하지만 法輪世界(파룬쓰제)의 것을 벗어난 것은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였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많은 사람은 이미 감수하였다. 이 법은 아주 커서 그렇게 많은 대각자가 모두 와서 이 법에 동화하고 있는바, 이 법은 일반적인 법이 아니며 사람을 이끌어 아주 높은 데로 수련시키는데, 이 점은 확실하다. 매 개인의 수련이 모두 法輪世界(파룬쓰제)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것 역시 확실하다. 석가모니, 아미타불도 누가 그 한 문에서 수련한다고 하여 모두 그의 그곳으로 간다거나 혹은 다른 어디로 간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려온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여 미혹 속에 떨어져 수련하게끔 하기 위함이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나도 말하겠다. 우리 많은 사람의 천목(天目)이 열렸는데, 같지 않은 층차 중에서 열렸다. 그러나 모두 아주 높은 층차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본 것은 사물의 본질이 아니며 그것의 인연관계를 보아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데, 바로 그가 함부로 제멋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함부로 제멋대로 말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사람은 말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 정도로 수련되었는가? 어찌 이룰 수 있는가? 사실 그가 본 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천목이 열린 많은 사람이 말한다. 당신은 부체(附體)가 있고 그도 부체가 있는데 모두 부체가 있다. 나는 일찍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法輪大法(파룬따파) 수련생, 우리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은 부체가 없다고 했으며 내가 이런 것을 모두 청리(清理)했다고 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일부 동물의 형상을 보았고 일부 이런 형상, 저런 형상을 보게 되는가?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겠다. 우리 많은 사람은 主元神(주웬선), 副元神(푸웬선)과 부체가 존재하는 형식을 똑똑히 분간하지 못한다. 사실 그가 본 것은 다만 당신의 副元神(푸웬선)의 전생(前世) 혹은 당신의 主元神(주웬선)의 전생일 뿐이며 단지 이러한 현상에 불과할 뿐이다. 당신이 이

다. 어느 사람이든지 모두 수련을 거쳐야만 비로소 제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수련과정이란 바로 소업(消業)이며 바로 고생을 겪는 것이다. 당신이 고생을 겪지 않는다면, 그 업을 없애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신체상의 그 고통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당신이 생활 속에서 부딪힌 그 번거로운 일, 그것도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당신이 감당해 냈지만, 당신은 모르고 있다.

우리 사례를 들어 말해 보자. 과거에 불교 중에서 말하기를, 수련이란 많은 고생을 겪어야 한다고 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당신이 요만한 고생을 겪는 것은 다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미 사부가 있어 당신을 책임지고 당신에게 많이 없애주었기 때문이다. 생생세세 누군들 좋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내가 말한다면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른 사람 중에 살생한 적이 없고 큰 업을 빚은 적이 없는 사람을 찾기는 모두 매우 어렵다.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 말해 보자. 그때 당신이 크게 나쁜 짓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얼마나 큰 난(難)을 감당했겠는가? 그런데 당신이 오늘날 요만한 것을 감당하게 되자 당신은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기까지 말한 뜻을 많은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련이라, 곧 오성(悟性)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보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다 본다면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역시 수련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이 지경으로 떨어져

그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아마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제자: 나한에 도달하였을 때, 공의 높이는 표준이 있는 것입니까? 초과(初果)나한은 心性(썌썌)과 공의 높이로 결정된 것입니까?

사부: 나한의 증차는 부동한 부처의 세계가 확정한 불변의 표준이다.

수련생의 心性(썌썌) 고저(高低)와 공의 연화 형식 전반은 같은 것으로서 전부 다 고에너지물질로 대체되는 이 단계에 도달해야 하는바, 그것은 상보상성(相輔相成)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것을 모두 아주 중하게 강조했는데 보도원은 이러한 문제를 마땅히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世間法(쓰젠파) 수련을 벗어났다면 바로 불체(佛體)수련이 아닌가? 出世間法(추쓰젠파) 수련에서 당신은 불체가 있게 되는데 불체는 고에너지물질로 완전히 대체된 신체이다. 世間法(쓰젠파)를 벗어나 정백체(淨白體)로 진입함은 전신이 고에너지물질로 대체된 투명체(透明體)가 아닌가? 더 앞으로 수련한다면 그것은 바로 불체가 아닌가. 초과나한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러하다.

제자: 신체에서 나온 생명체, 예를 들어 용(龍) 등은 육도윤회(六道輪廻) 중에 있습니까?

사부: 육도윤회 중에도 일부 생물이 있고 육도윤회 밖에도

동물이 존재한다. 더욱 높은 층차 중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은 수련하여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자연환경 중에서 생겨난 것이다. 고층차에서 수련하는 사람의 신체에서 나온 용(龍) 등의 생명체는 물론 당신의 것이며 또한 당신이 원만함에 따라 고층으로 간다.

제자: 신체에서 나온 생명체는 반드시 어느 한 도(道)를 수련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수도인(修道人)이 전일(專一) 하다면 부처 수련을 해도 됩니까?

사부: 이 문제에는 엄격한 규정이 없다. 부처 수련을 하든 당신이 또 것처럼 도를 닦든 이는 상관없다. 다만 그 한 문(門)의 사부가 시작할 때에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안 될 때에는 그 역시 당신을 상관하지 않는다. 당신이 확고하여 기어이 수련하겠다고 한다면 그 역시 상관하지 않는다. 만약 두 척의 배에 발을 딛고 수련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어느 쪽의 사부도 당신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心性(썬썬) 문제로서 두 법문(法門)을 파괴하는 것이다.

제자: 꼭 사도(邪道)를 수련하도록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사부: 있다. 전문적으로 말법시기에 나와 법을 파괴하는 것이 있는데 각종 형식을 채용한 것이 다 있다. 겉으로 드러나게 공개적으로法輪大法(파룬따파)를 공격하고 나를 공

다시 보면 또 새로운 깨달음(領會)이 있고, 또다시 보면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 마치 그 글자의 뜻마저 다 달라진 것 같은 것이다. 우리 많은 사람이 모두 이런 감각이 있게 된 것은 내가 책에서 부동한 층차의 것을 결합하여 말했기 때문에 당신이 승화됨에 따라 당신에게는 부동한 인식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법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법을 아주 착실하게 배우고, 법으로 대조해 간다면 당신은 어떠한 문제든 모두 쉽게 풀 수 있다. 틀림없이 이리하다. 수련문제라면 모두 풀 수 있다.

내 기억에 지난(濟南) 학습반에서 한 강의가 가장 전면적인 것으로서, 많은 문제를 모두 말하였다. 그러나 극히 소수의 문제는 그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뜻은 모두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당신은 믿지 못하겠지만, 우리 여러분이 진정하게 배워나갈 수 있으면 어떠한 문제든 모두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어찌하여 여기가 괴롭고 저기가 괴로우냐고 한다. 많은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괴롭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내가 당신을 돌봐주지 않는 셈이다. 당신이 수련하려고 한다면 여전히 그 한마디 말인데 그리 쉽지 않다. 우리가 말하자면, 사람은 모두 업력이 있는데 어찌 갇지 않고 되겠는가? 당신, 이 사람에게서 단번에 무엇이든 모두 없애버리고 당신에게 부처가 되라고 한다면, 당신 이 사람이 어떻게 특수하단 말인가? 나는 곧 이 뜻을 말할 뿐이

답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는 法輪功(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나는 法輪大法(파룬따파) 수련자입니다.”라고 말하라. 이러면 사회에 대한 영향과 우리 대법을 널리 선전하는 데 좋은 점이 있다. 사람들이 모두 와서 정법(正法)을 얻는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비교적 좀 더 낫다. 우리의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전국 각지에서 공을 배우는 사람이 이미 무척 많아졌는데 이로써 미치는 영향 역시 아주 커졌다. 지금 사회에서는 누가 좋은 일을 좀 하면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레이펑(雷鋒)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 사람은 정말로 좋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명백히 알려주는 것도 무방하다.

이 기간에 또 일부 문제가 있다. 예컨대 어떤 수련생은 수련과정 중에 생기는 아주 많은 문제에 대해 늘 스스로 풀지 못한다. 왜 이러한가? 이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인데, 믿어지지 않겠지만, 만약 내가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보도원인 당신에게 문제를 제기하라고 하면, 당신은 여전히 학습반에서 수련생들이 제기했던 많고도 많은 문제를 제출할 것이다. 왜 이럴 수 있는가? 마치 방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아직도 법에 대한 인식이 깊지 못해서다. 왜냐하면, 나는 부동한 층차의 것을 결합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책을 한 번 보고는 대단히 좋다고 여긴다. 그런 다음

격하는 것은 우리 수련생들이 모두 쉽게 변별(辨別)해 낼 수 있다. 이런 마(魔), 그것은 두려울 것이 없고 가짜 기공사 역시 두렵지 않으며 우리 수련생들이 감별(鑒別)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은 최소한 그것이 정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명백해진 후에는 이전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가서 배우지 않을 것이다.

가장 변별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마(魔)인데, 파괴력이 아주 크다. 그 마도 法輪大法(파룬따파)를 배우러 오고 역시 法輪大法(파룬따파)가 좋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욱 격동되게 말하고 감수 역시 다른 사람보다 낮고 또 일부 무슨 형상을 보았다. 그런 후에 그가 단번에 죽어버리거나 혹은 단번에 반면으로 나아가 法輪大法(파룬따파)를 파괴한다. 바로 이런 사람을 변별하기가 가장 어렵고, 변별하기 어려우므로 파괴력 또한 가장 크다. 그것의 파괴형식은 바로 그가 운명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잘 배치해 놓은 것으로서, 어떻게 번거로움이 크다면 그는 바로 당신에게 그렇게 해준다. 내가 방금 파괴력이 크다고 말한 마는 바로 이 한 부류에 속한다.

제자: 지장보살(地藏菩薩)이 부처로 수련성취 될 수 있습니까?

사부: 대보살은 이미 부처라고 호칭할 수 있다. 대보살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지장왕을 말한 것인가? 지장보살은 다른

사람들도 그를 부처라고 하는데 바로 이 뜻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제자: 사람의 元神(웬선)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사부: 이것을 나는 모두 말했다. 원시 생명이란 바로 우주 중의 각종 방대한 물질운동의 작용 하에서 생겨나온 것이다.

제자: 어떤 사람은 골목 소식을 말하는데요?

사부: 다른 사람이 이런 골목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지 말라. 특히 나의 법에 영향을 주거나 우리 법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전하지 말라. 골목 소식이 당신 거기에까지 전해지면 무시해 버려라. 사람마다 모두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전할 곳이 없게 된다.

제자: 타인의 공과(功過)를 평론함은 업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사부: 속인 중의 좋고 나쁨, 공로(功)와 과오(過)는 내가 생각하건대 연공인으로서 마땅히 좀 담담히 여겨야 한다. 당신은 속인 중의 일을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담론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속인 중의 일에 흥취를 갖고 이러한 것에 집착하는가, 아니면 당신은 수련하려고 하는가? 속인 중에서는 고만한 일일 뿐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속인 중의 일은 별것이 아니라고. 이러쿵저러쿵 말해봤자 그것은 모두 그냥

에게 기공에 대한 인식에서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더는 그런 것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고층차상 수련이란 이런 문제를 담론한다. 우리는 앞으로 더는 그를 무슨 기공, 기공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이 法輪功(파룬궁)은, 물론 인식하지 못했을 때 당신이 이렇게 불려도 괜찮지만,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는 본래 파룬슈론파(法輪修煉法), 파룬슈론편(法輪修煉) 또는 파룬슈론파파(法輪修煉大法)라 부른다. 여기서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용어에 대한 호칭 문제다. 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각났는데, 우리 많은 수련생은 묵묵히 좋은 일을 하였다. 사회에서, 기타 환경 중에서, 직장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였으며 이름을 남기지 않고 보수를 따지지 않는데 이런 사례가 대단히 많다. 이에 대해 나도 알고 있으며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똑똑히 알고 있다. 우리가 이름을 남기지 않는 이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라. 우리 이 공법이 전해져 나오자 지금 이미 사회에서 인심(人心)이 착해지고 도덕수준이 향상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내가 생각하건대 法輪大法(파룬파파)의 영향, 이 역시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인데, 일부 수련생이 좋은 일을 한 후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은 아무 소리도 않고, 이름도 남기지 않으며, 사례를 바라지도 않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공덕이지 않은가. 내 생각에 당신도 대

의 心性(썬썬)이 올라가지 못하고 법에서 제고되지 못하면 다른 것은 모두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왜냐하면, 당신이 층차를 제고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心性(썬썬)이 올라오지 못하면 층차의 고저를 결정하는 이 공이 없다. 心性(썬썬) 수련이 되지 않으면 공이 없어 에너지의 가지(加持)가 없는데, 당신이 당신의 本體(번티)를 개변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개변할 수 있겠는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없다. 이처럼 에너지로 가지(加持)하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개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법 공부는 극히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건대 수련하는 사람이 책을 좀 많이 본다면 확실히 여러분의 제고가 아주 빠를 것이다. [삽화(插話)-그들은 사부님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 하면서 스승님께서 앉으셔서 좀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좀 많은 것을 말해 달라는 것인가(열렬한 박수).

방금은 주로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의 발전 형세를 말했다. ‘法輪功(파룬궁)’이란 이 용어는 우리가 초기에 베이징(北京)에서 공을 전할 때 불렀던 호칭이다. 내 말은 기공이란 현대인이 창조해 낸 한 가지 용어로서 실질상 기공은 바로 일종 수련이다. 속인 중에 보급한 것은 단지 기공의 가장 낮은 형식의 것이었다. 단지 겨우 인체를 개변하여 연공으로 나아가는 초기 단계의 것을 전한 데 불과하나, 실질상 그것은 바로 수련이었다. 우리의 공법은 직접 고층차에서 전한다. 왜냐하면, 이처럼 수년간 기공을 보급하는 중에서 이미 사람들

속인이 속인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제자: 사람이 개오한 후에는 위로 수련할 방법이 없는지, 석가모니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개오하고도 왜 여전히 위로 수련할 수 있었습니까?

사부: 사람이 원만하면 위로 수련할 수 없다. 개오란 즉 원만이다. 석가모니는 당시에 반 개오(半開悟) 상태에 처했지만, 그의 기억의 부분은 이미 열려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고 많은 것이 열리지 않았으며 그가 아직도 많은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위로 수련할 수 있었다. 석가모니가 무엇이나 다 알았다면 그는 위로 수련하기 어렵다. 그가 49년간 법을 전하면서 수련이 여래 층차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도달한 반 개오 상태가 아주 높았기 때문이다. 석가모니는 사람을 제도하려 온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의 반 개오는 그렇게 높게 도달할 수 없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은, 나는 여전히 극소수 사람을 강조하는데 아마 대단히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같지 않기 때문이다.

제자: 사람이 죽은 후에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元神(웬션)은 제각기 갈 곳으로 간다는데, 왜 조상의 德(더)와 업력이 자손에게 아래로 내려 쏘입니까?

사부: 그렇다. 이 우주에는 바로 이런 이치가 있다. 그것

역시 사람을 단속하는 하나의 이치이다. 당신이 업을 짓고 죽었다면 당신의 후대는 업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후대에 복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돈을 아주 많이 벌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얼마 쓰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후대에 남겨서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그는 세간의 일을 아주 중하게 보며 그의 후대를 아주 중하게 본다. 심지어 그가 떠난 다음의 명예마저도 대단히 중하게 보며 존재하지 않는 이름마저도 그는 모두 중하게 본다. 그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업을 쌓을 수 있고 후대에 업을 쌓아줄 수 있다.

제자: 듣기로는, 한 사람이 성불(成佛)하면 구조승천(九祖昇天) 한다는데요?

사부: 우리 어떤 사람이 크게 착한 일(大善事)을 했거나 혹은 관찮게 수련되었다면 아마 부모는 덕분에 모두 초도(超度)되어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한 층차로 초도되는가 하는 것은, 그의 부모 자신의 원래 상황에 근거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수련상황은 그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조상이 德(더)를 쌓았으면 자연히 복이 있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한 사람이 연공한다면 조상이 德(더)를 쌓았다고 말하고, 당신이 부처로 수련되었다면 당신의 부모는 그야말로 큰 德(더)를 쌓은 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삼계를 벗어난 사람이 아주 적다. 그는 다만 德(더)를 쌓았고 좋은 일을 했을 뿐이다. 당신과 같은 이런 아들이 있고 당신과 같은 이런 딸이 있는

금 말했지만 각 지역에서 모두 일부 다른 경험도 총결하였는데 아주 좋다. 나는 또한 창춘(長春) 보도소에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의 경험을 마땅히 전국에 널리 보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수련생들이 이렇게 법 공부를 하기 시작한 후부터 제고가 아주 빨랐으며 층차 제고 역시 아주 빨랐는데, 이는 필연적이다. 우리 여기에 자리한 많은 사람은 연공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은 모두 보도원이기 때문에 내가 좀 깊이 말해도 상관없을 것이다. 내 책 속의 때 한 글자는, 얇은 층차에서 본다면 法輪(파륜)이고, 깊은 층차에서 본다면 그건 바로 나의 법신이다. 심지어 편방(偏旁)과 부수(部首)마저도 모두 단독적으로 당신의 입을 거쳐 읽을 때면 그 역시 같지 않다. 많은 사람은 이미 공을 아주 관찮게 수련해서 읽은 글자는 모두 형상이 있으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法輪(파륜)이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일반 책이 아니다. 물론 층차가 모자라면 여전히 안 된다. 당신으로 하여금 책을 읽고 법 공부를 하게끔 하는 자체가 바로 제고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心性(썬썬) 수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성(理性)으로 법을 인식하는 자체 역시 제고이다.

우리는 성명쌍수(性命雙修) 공법이며, 동작 자체는 주로 本體(번티)를 개변하는 일을 한다. 즉 우리 육신의 개변과 각개 공간에 존재하는 그 물질신체의 개변 형식인데, 이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 일부 술류(術類)의 것도 있다. 진정하게 제고되려면 법에서 제고해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만약 우리

련생이 한 말이지 내가 한 말이 아니다)에 대해 과거의 많은 경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하지 못했고 모두 아주 모호하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외웠다고 한다. 물론 또 다른 표현도 있었다. 나의 뜻은 이렇게 좋은 법을 우리가 왜 외우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속인 중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제고하기를 요구하는데, 당신이 외운다면 더욱 좋지 않은가? 수시로 대조할 수 있다. 그리하여 책 외우기 붐이 일어났다.

지금 창춘(長春)에는 책을 외우는 사람이 만 명도 넘는다. 지금 그들이 법 공부를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 바로 거기에 앉아서 배우는데, 책이 필요 없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책을 외우다 멈추면 다른 한 사람이 이어서 외우곤 하는데 조금도 틀리지 않으며 한 글자도 틀림없이 이어서 외운다. 그런 다음 당신이 한 단락 외우고, 그가 한 단락 외우는 식으로 이렇게 이어서 외우고 있다. 나중에는 또 책을 베끼는 데로 발전했다. 만약 한 글자를 잘못 베꼈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여 다시 베낀다.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깊게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수련생의 제고에 대단히 좋은 점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사상 중에 그렇게 깊은 인상이 있으며 행동 중에서 매번 무슨 일을 할 때 모두 연공인의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하기 때문인데 참으로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에 나는 우리 수련생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다. 방

이런 연유로 말미암아 조상 역시 德(더)를 쌓은 셈이 된다. 그러나 이로써 부모도 성불(成佛)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그러려면 수련을 해야 한다. 그는 다만 다른 층차의 천인(天人)이 되어 복을 누릴 따름이다. 무슨 구조승천(九祖昇天)이란 없으며 이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제자: 어느 날 밤, 꿈에 부모님이 수련하면서 집에서 공양하는 그런 종이를 찢으니 저절로 불이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권고를 듣지 않기에 저는 사부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부님께서 오셔서 상황을 말씀하시니 부모님이 즉시 종이 한 장에 불을 붙였는데 그 종이라도 불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은 또 사부님이 아니셨고 백정 옷을 입고 장터에서 마이크를 잡고 고기를 팔고 있었는데 저는 덩달아 울기 시작했는데요?

사부: 이는 틀림없이 마(魔)이며 이것은 사람을 욕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 마의 위패를 태웠고 죽여 버렸는바, 그 뜻은 바로 백정이 살인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뜻이다. 그것도 능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연화(演化)하여 사람을 미혹시키고 있다. 왜 오늘날 이러한 마를 이처럼 깨끗이 청리(清理)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내가 사과에 대한 예를 든 것처럼, 인류사회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 또 인류뿐만이 아니라 물질과 그러한 동물도 모두 업을 갖고 윤회하고 있는데, 모두 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단히 크

다. 당신은 동물이 수련 등을 안다고만 보지 말라. 인류의 일을 절대 이러한 동물들이 교란하고 주재(主宰)하도록 할 수 없다. 그것들이 이미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하늘의 이치를 위배한 것이다. 대역지마(大逆之魔)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 이 역시 말법, 말잡시기의 필연이다. 동물이 좀 높은 공으로 수련되면 마땅히 죽여 버려야 한다. 지금은 그야말로 난잡하기 그지없다.

나는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이치를 고층차에 가서 보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고층차의 대각자가 보기에 인류사회의 이러한 요마귀괴(妖魔鬼怪)들이 모두 뛰쳐나왔는데, 누가 사람 몸(人身)의 것을 갖고자 하면 갖고, 사람을 단속하고자 하면 곧 단속한다. 요마귀괴는 그래도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병을 봐주었다고 하는데 무슨 병을 보았는가? 요마귀괴가 병을 본다는 것은 그것의 그러한 것을 사람 몸에 넣는 것이 아닌가? 이는 이미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자: 과거에 우리가 발견한 그런 원고(遠古) 시기의 동물에 대해 말한다면?

사부: 오늘날의 동물은 진화해 온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륙판이 이동하고 부동한 시기의 주기적인 연화(演化)로 인해 물종(物種)이 바뀐 것이다. 만약 우리 오늘의 대륙판이 가라앉고 다시 태평

한 상황인데, 발전 추세 또한 아주 빠를 것이다. 근본원인은 오로지 우리가 사람의 心性(심성) 제고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방금 말한 이것은 다만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에 지금 이런 하나의 발전상황이 있음을 간단하게 말했을 뿐이다.

이번 회의는 보도원회의이기 때문에 나는 주로 이 면의 일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각 지역 法輪大法(파룬파파)의 발전상황으로 볼 때 모두 각각 장점이 있으며 또 적지 않은 경험을 총결하였는데, 대법에 대한 학습에서, 수련 중에서 쌓은 경험 또한 적지 않다. 이 기간에 내가 집에 있으면서, 줄곧 창춘(長春)에 있었기 때문에, 창춘(長春)의 상황을 파악한 것이 비교적 많다. 예컨대 지금 창춘(長春)에서는 법 공부 붐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법 공부 붐인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동작을 연마(煉)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물론 성명쌍수 공법이므로 연마(煉)는 아주 중요하며,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창춘(長春)에서 그들은 이 법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고 배우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쫓쫓이 매일 연공이 끝난 다음 거기에 앉아서 책을 읽으며 법 공부를 시작한다. 모두 공부를 한 다음 토론을 하는데 한 단락 한 단락씩 토론한다. 나중에 그들은 또 책을 외우는 데로 발전하였다. 그들의 생각에 이렇게 좋은 것(물론 이것은 수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이 부동(不同)한 수준에서 모두 향상될 수 있는 이런 정도에 이른다면, 내가 말하는데 이 사람이 설령 원만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사회에 유익하다. 그는 명명백백하게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인데, 나쁜 짓을 하면 그 자신에게 어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는 사회의 정신문명 확립에 대해, 인류의 도덕수준에 대해 모두 상응하는 제고가 있을 텐데, 이 점은 확실하다. 우리가 이 공을 전하는 것도 사람에게 대해 책임지고 사회에 대해 책임지는 데 입각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 역시 이 점을 해냈고, 대중 속에서, 수련자 속에서 일으킨 영향 또한 비교적 좋았다. 우리는 또 줄곧 이 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왔기에 우리 이 공법 역시 잘못 견지 않고 줄곧 이런 순결(純潔)하고 순정(純淨)한 수련상태를 유지해 왔다.

우리 지금 이 형세에 따라 본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장래에 이 공은 더욱 크게 전해질 것이다. 최근, 내년쯤 국외에 공을 전하는 것이 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중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외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클 것이다. 국외에서 돌아온 사람이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들이 미국의 어느 한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그 음식점에法輪功(파룬궁)에 대한 현황 소개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여 나중에 주인에게 물어보았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일로서 아직 파악하지 못

양·인도양·대서양에서 대륙판이 올라온다면 새로운 물종이 존재할 것이며 새로운 물종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대륙판이 다시 가라앉는다면 또 새로운 물종이 생길 것이다. 만약 이 지판(地板)과 저 지판이 다시 새롭게 바뀌어 수많은 해를 지나 다시 이 지판이 또 바뀐다면, 그럼 그 물종 역시 원래의 물종이 아닌, 더욱 새로운 물종으로 생겨날 것이다. 물종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왔기에, 사람들은 진화(進化)하여 온 것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진화 과정 중 그 과도기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모두 두 개 물종이 각각 달리 존재하는 형식만을 보았을 뿐, 중간의 과도형식의 것은 없다.

제자: 수련하는 사람이 성불(成佛)한 후 어느 신체가 부처로 됩니까? 眞體(쩐티)입니까? 아니면 사부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사부: 과거에 정토종(淨土宗)에서 수련하는 사람, 그는 신체수련을 강구하지 않으며 다만 心性(썬썬) 수행을 중시했다. 특히 가부좌하지 않고 수련하는 그러한 법문이 이러했다. 그러면 그의 불체(佛體)는 그를 인도하는 부처가 연화(演化)해 준다. 그를 인도할 때 직접 하나의 불체를 준다. 그러나 진정하게 가부좌하고 착실히 수련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자신이 원영(元嬰)을 수련해 낼 수 있다. 또한, 도가와 불가의 일부 특수한 수련방법 중에는 자신을 개변하여 성

명쌍수에 도달하고 또 기타 일부 것들을 수련해 낼 수 있으며, 자신의 主元神(주웬선)이 일체를 주재할 수 있다.

제자: 元神(웬선)은 고에너지물질입니까?

사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의 元神(웬선)은 가장 미시적(最微觀)이고 가장 미소(最微小)한 물질로, 가장 본원적인 물질로 구성되었다. 당신의 성격, 당신의 특성은 물질의 본원에서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과 생생세세를 거쳐서도 개변하기가 몹시 어렵다. 하지만 본성은 선량한 것이다.

제자: 그리스도는 그의 그 천국에서 온 사람들을 제도(度化)하러 온 것입니까?

사부: 이 말도 틀리지 않다. 왜냐하면, 유럽 인종, 가장 원시적인 인종은 모두 그들의 그 특정한 공간에서 왔기 때문인데, 그의 거기에는 그의 그곳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

제자: 제가 法輪大法(파룬따파)를 배우기 전에 꿈속에서 스승님을 뵈는 적이 있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대법을 배우기 전에 나를 본 사람이 아주 많다. 어떤 사람은 수년 전, 몇십 년 전에 나를 알았고, 또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나를 보았다는데, 이런 사람이 아주 많다. 또 점쟁이가 수년 전에 알려주었다는 등등, 이러한 것은 부동한 시

왜 이럴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말했듯이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는 바로 사람의 心性(썬썬)을 수련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도덕수준의 제고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련함에 공이 자라지 않는 근본원인을 정확하게 짚었고, 이런 문제를 깨우쳐 줌으로써 우리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과거에 나는 말한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이 심득체험 교류 중에서 나에게 말했다. “스승님, 이 법이 전해지고 나니 우리 사회 정신문명의 확립에 아주 많은 좋은 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물론 내가 말했듯이, 주요 목적은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법을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널리 전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보게 하며 진정하게 제고토록 하려 한 것이다. 우리 불가(佛家)의 말로 한다면 진정하게 승화되어 원만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도덕수준이 제고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내 말은, 이는 사람에게 心性(썬썬)수련을 중요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인데, 우리 이 한 세트 공법의 요구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 많은 승려를 포함하여, 전업 수련하는 도사도 마찬가지로, 그는 어떻게 제고해야 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데, 그는 단지 형식상의 것만 중시할 뿐 실질적인 것을 중시하지 않아서다.

사람의 心性(썬썬)이 승화되어 올라가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데 전혀 제고해 올라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우주특성이 사람의 心性(썬썬)이 높지 않은데도 승화되어 올라감을

와서 나는 우리 이 장(場)이 대단히 상화(祥和)로운 것을 보았다.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 이 한 곳은 정토(淨土)라고 나는 말한다(박수). 동시에 나는 또 우리 여러분이 수련한 성과가 아주 대단한 것을 보았다. 여러분은 모두 제고(提高)와 선(善)을 향한 마음이 있으므로 축하할 만하다. 그러므로 이런 분위기와 우리 이런 심태(心態)는 모두 완전히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법을 헛되이 배우지 않았고 모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나도 이 대법을 헛되이 전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내가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이다. 당초 내가 막 베이징에 와서 설법하고 공을 전할 때 제1회 학습반에 참석한 사람이 지금처럼 많았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제까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다. 사실 내가 공식적으로 이 법을 전한 것은 1년이며 처음에는 아주 낮은 기공의 형식으로 법을 전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베이징 이곳의 보도원이 이미 이렇게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이 대법을 더욱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이미 인식하였으며 이 법 속에서 자신을 제고하고 수련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이것은 대단히 축하할 만한 일이다. 지금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 통계는 몹시 어렵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지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어떤 지역은 한 현(縣) 또는 한 도시에서 한두 사람이 배웠으나 나중에는 천여 명으로 발전되었다. 많은 지역이 모두 이런 형세이며 발전이 매우 빠르다.

공(時空)의 반영이다.

제자: 제 아이가 스승님을 뵈는 적이 있으며 또 스승님을 안다고 하는데요?

사부: 이 아이의 근기 역시 괜찮은 것으로 아이가 잘못 말하지 않았다. 어떤 아이들은 내력(來頭)이 있는 것으로 법을 얻기 위해 온 것이다.

제자: 德(더)·공(功)과 眞(쩐)·善(싼)·忍(런)은 같은 부류의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사부: 眞(쩐)·善(싼)·忍(런)은 일반적인 물질로 인식할 수 없으며 같은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물체든 모두 물질로 구성된 것이지만 그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는 마치 우리 사람의 元神(웬션)과도 같은데, 당신이 그와 우리 사람의 신체가 무슨 물질로 구성된 것인지 말해 보라. 마치 방금 내가 제기한 그 문제처럼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어떠한 물질이든 모두 물체이며 이런 특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역시 법의 체현이다. 그러나 德(더)와 공(功)은 물질형식으로 체현된 것이다. 하지만 모두 같은 부류의 물질이 아니면서도 또한 모두 우주 특성 眞(쩐)·善(싼)·忍(런)에 동화된 것이다.

제자: 파·생강·마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사부: 우리가 오늘날 속인 중에서 수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전업수련 중에서 장래의 승려는 이것을 계(戒)할 것을 요구한다. 진정하게 여러분과 단체적으로 가부좌하고 실속 있게 수련하는 사람은 역시 먹을 수 없다. 과거에는 그것이 사람의 수련을 교란하기 때문에 비로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파·생강·마늘은 사람의 신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먹고 많이 먹으면 인이 박이게 마련이다. 먹지 않으면 생각나게 되는데 집착심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 그것을 담담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익힌 것이라면 그건 문제가 없다. 그것은 냄새가 없으며 파 양념을 한 것은 괜찮다. 우리는 실제적인 의의에서 보아야 한다. 그 해 석가모니가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사람의 수련을 교란하고 방출하는 냄새가 아주 코를 찔러 입정(入靜)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열 명, 여덟 명의 승려가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입정(入靜)하여 가부좌했는데, 이 냄새가 풍기면 여러 사람은 누구도 입정할 수가 없었다. 가부좌하고 실속 있게 수련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에 이러한 것을 끊음을 아주 엄숙하게 여겼다.

제자: 德(더)·공(功)과 眞(쩐)·善(싼)·忍(런)은 같은 부류의 물질입니까?

사부: 德(더)는 일종 백색 물질이며 일종 특수한 물질이

베이징(北京)法輪大法(파룬파파) 보도원회의에서 하신 건의

李洪志

1994년 12월 17일

내가 서서 말하면 여러분이 똑똑히 볼 수 있겠다.

오랫동안 여러분과 만나지 못했다. 공(功)을 전하는 방법의 많은 일을 모두 처리해야 했기 때문인데, 모두 속인이 그리 잘 알지 못하고 이해(理解)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습반을 중지했다. 이 한동안에 이런 문제들을 처리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거의 마무리 되었다. 본래는 마무리 한 후, 즉 이번 일을 다 마친 다음 다시 앞으로 공을 전하는 일을 배치하려 했다. 그런데 이번 광저우(廣州) 학습반은, 당시 너무 급작스럽게 결정했기 때문인데, 신문에도 실렸고 광고도 나갔으며 또 많은 학비까지 받았다. 그래서 나는 부득불 중도에 나와, 광저우 수련반을 열기 직전에, 먼저 일부 준비 작업을 하려 베이징에 들렀다. 이 기회를 빌려 여러분을 만나려 했는데,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아주 기쁘다.

과거에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지금 사람들의 도덕수준은 이미 아주 낮아졌으며 모든 분야에서 정토(淨土) 한 패기를 찾기가 몹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

다. 업력 역시 일종 특수한 물질이다. 공을 말한다면 그것은 일종 승화된 德(더)의 물질로서 또 우주의 기타 물질과 섞여 형성된 것이다. 眞(쩐)·善(싼)·忍(런)은 법이고 일종 특성으로서 일반적인 물질개념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이는 초물질(超物質)이다.

제자: 불괴지체(不壞之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부: 世間法(쓰젠파)를 벗어나면 곧 불괴지체다. 불체(佛體)가 나쁘게(壞) 될 수 있겠는가? 그는 우주 중에서 가장 풍부하고 가장 좋은 물질로 구성된 것으로 우주가 나쁘게 되지 않는다면 그도 나빠지지 않는다.

제자: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최종에 모두 法輪世界(파룬쓰제)로 가는 겁니까?

사부: 나의 法輪世界(파룬쓰제)는 다 받아들여 놓지 못할 것이다! 오로지 진정하게 정과를 얻고 원만에 이른 사람만이 비로소 갈 수 있다.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는 사람은 法輪世界(파룬쓰제)로 간다고 한다면, 현재 사람이 몇억이나 되지 않는가! 장래에는 대법을 배우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것이며, 생생세세 사람들이 이어가면서 계속하여 수련할 텐데, 모두 法輪世界(파룬쓰제)로 간다면 그건 받아들여 놓지 못할 것이다. 수련은 하였으나 원만하지 못해 가게 되는 고층공간 역시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 수련생 대부분은 서로

다른 고층차에서 온 것으로 법을 얻은 후 자신의 원래 세계로 간다.

제자: 제 외손녀는 다섯 살인데 학습반에 두 번 참가했습니다. 꿈속에서 늘 일어나 연공하며 어른이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는 데 정상입니까? 그 아이는 또 늘 스승님께서 글자를 가르치시고 회화를 가르치시는 것을 보며 스승님께서 창공과 꽃구름 위에 계시는 것을 본다고 하는데요?

사부: 연마하는 것이 法輪大法(파룬파파)라면 정상적이다. 근기가 괜찮은 어린이가 아닌가. 절대 아이에게 난잡한 공을 배우지 말도록 해야 하며 아이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아이는 모두 법을 얻으러 온 것으로 절대 아이에게 좋지 못한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전국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많다.

제자: 신수련생을 받아들이는 표준은 무엇입니까?

사부: 없다. 연마할 수 있으면 연마하도록 하라. 물론 두 가지 병은 수련할 수 없다는 것을 응당 지적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제출한 것인데, 위중한 환자는 업력이 너무 커서 수련할 수 없고, 정신병 환자는 사상업력이 너무나 커서 主元神(주웬선)이 똑똑하지 못하므로 수련할 수 없다.

제자: 속인 중에서 하는 수련은 체내 분자구조를 개변시키

베이징(北京)

法輪大法(파룬파파)

보도원회의에서 하신 건의

李洪志

1994년 12월 17일

해 책임지는 데 입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곧 이만큼 말하겠다.

…… 우리는 토론을 거쳐, 대법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깊어졌을 테고 또 우리의 인식이 일치되었을 것이므로 내 생각에 장래에 수련생에게 일부 일을 해답해 줄 때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이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아직 우리 몇몇 책임자와 이 일을 말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단지 단체 연공만 하지 말고 특정한 시간을 찾아 단체로 법 공부를 할 수 없겠는가. 우리가 나의 고향에서 선두로 나서서 좀 조직하면 좋겠다. 매 장(章) 매 절(節) 여러분이 읽고 토론해 보라. 학습시간의 안배는 단체연공처럼 고정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더욱 많고 겨냥성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장래에 실제 문제에 부딪히면 의지할 법(法)이 있게 된다. 우리가 선두에 선다면 전국 각지 보도소에서 아주 좋은 선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에 전국 각지에서 본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식제고에 많은 좋은 점이 있기에 이러한 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法輪大法(파룬파) 창춘(長春) 총보도소 녹음

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出世間法(추쓰젠파)는 체내 분자구조를 개변시키는 것입니까?

사부: 당신이 수련 중에서 개변되지 않고 出世間法(추쓰젠파) 후라면 당신은 또 어떻게 개변될 수 있겠는가? 世間法(쓰젠파) 중에서도부터 시작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개변되고 있으며 제고되고 있다. 世間法(쓰젠파) 를 벗어날 때 기본적으로 이미 개변이 전부 끝난다.

제자: 텔레비전 연속극 ‘달마 이야기’를 수련생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부: 이걸 괜찮다. 수련생은 그것을 이야기로 삼아 볼 것이며 따라 배우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사람은, 당신이 그에게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배우지 않을 것이다. 바로 불교의 어느 화상(和尚)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면, 어떻게 설(說)하든 그 또한 배우지 않을 것이다. 이걸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련반을 열 때 이미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선종(禪宗) 법문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또 단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6조(六祖) 혜능 거기까지 와서 없어졌다. 몇백 년 가지 않아 그것은 진작 없어졌으며 남겨놓은 것은 역사뿐이다. 당신이 보라. 그 선종의 화상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는 무슨 아미타불경도 꺼내보는데, 그에게는 선종의 것이 없다. 선종의 법은 세간에서 이미 없어졌다. 사실 말법시기에는 단지 선종의 법만이 아니라 어떤

법이든 모두 없어진다.

제자: 어떤 사람은 학습반에 참가한 적이 없는데도 연공을 하고, 책과 法輪(파륜) 배지를 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또 연마하지 않는데 책과 배지를 회수해야 합니까?

사부: 그가 사갔으면 그만인 것으로 고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그가 돈으로 샀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무슨 행정관리 방법이 없다. 당초에 나는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수련생과 제자들의 요구로 내 놓았는바, 이럴 수밖에 없다.

제자: ‘터우딩빠오륜(頭頂抱輪)’을 할 때면 늘 머리에 무거운 감이 있고 들지 못하겠는데 이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그것을 상관하지 말라. 머리가 무겁다고 하여 꼭 나쁜 일은 아니다. 공기둥을 수련해 났어도 역시 무거운 감각이 있다. 만약 위에 빛으로 된 큰 구(太光球)가 나왔다면 그것도 당신을 짓누를 것이며, 만약 그 위에 부처가 앉아 있다면 당신을 더욱 짓누를 것이다. 위에 무엇이 있든지 상관하지 말라. 그 연공이란 바로 이런 것이며 모두 좋은 일이다. 사람의 정수리(頭頂)에는 아주 많은 것이 나올 수 있다. 기를 연마하는데도 또 하나의 큰 기의 기둥이 나타날 수 있잖은가.

가려고 할 때 많은 각자(覺者)들이 모두 나에게 말했다. “이 수련반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인즉 속인이 알아야 할 것은 모두 말했다는 것이다. 내 말은, 이 법에 따라 배우고 오로지 투철하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말한 이 법은 또 단지나의 이 한 문(門) 중의 것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아주 큰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하는 일은 과거의 공(功)을 전하던 일과는 하는 일이 같지 않다. 사람들은 중생을 널리 제도함을 말하는데 석가모니는 동물마저도 그 속에 포함했다. 석가모니는 중생을 널리 제도함을 말했는데, 그가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체 생명에 대해 자비를 베풀고자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사람을 제도함에 우리는 왜 여전히 선택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학습반에 들어오는 데도 선택조건이 있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 일체 일은 당초와 모두 같지 않고, 어떤 사람은 끝도 없이 나쁘게 변해 청리(清理)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남겨야 하고 어떤 사람은 수련하여 올라가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

됐다.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는 이 회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으로 돌아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더 강조하지 않겠다. 한 마디 말하자면 우리 이 법에 대해 책임지며 당신 개인에 대

사람에서 보면 역시 더없이 높고 더없이 아름다운 큰 복이다. 일반 기공 중에서도나 부체 공, 사법(邪法) 중에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

쪽지를 다 전했다. 내가 오늘 해답한 이런 문제들은, 주로 우리 보도원과 골간(骨幹)이 제출한 것을 말한 것이다. 물론 우리 어떤 수련생은 더욱이 학습반에 참가하지 못했거나 혹은 학습반에 단 한 차례 참가한 것으로 오지 말아야 할 사람 인데도 왔다. 이는 당신이 이 법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당신이 수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즉 당신은 아직도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아주 큰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당신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니 당신은 아마 생각이 있을 것이고 아직 心性(썬쌩)이 높지 못한 탓으로 아마 이러쿵저러쿵할 것이며, 왔지만 또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할까 걱정인데 회의(懷疑)가 생기면 당신의 장래를 망치게 된다. 어쨌든, 들은 후에 믿기지 않으면 그것을 이야기로 삼아 듣도록 하고 절대 어떤 저촉(抵觸)하는 정서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

내가 말한 이러한 법은 주로 우리 이런 보도원, 골간에 한 것으로, 장래에 당신들이 대법 일을 할 때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어떤 문제는 공통성이 있는 것으로 수련생이 제기하면 해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일부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실 내가 말했듯이, 이 보도원회의를 열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 예컨대 내가 제남학습반에서 강의를 끝마치고

제자: 꿈속에서 고�힘을 겪을 때의 대응이 청성(淸醒)할 때보다 더 좋았는데 副元神(푸웬션)이 아십니까?

사부: 그건 물론 아주 괜찮다. 副元神(푸웬션)이 아니다. 副元神(푸웬션)이 하는 일은 당신이 보지 못하게 하므로 당신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제자: 정백체(淨白體) 이상의 층차로 수련되었을 때, 몸에는 차고, 덥고, 저리고 부풀어나는 등의 반응이 있습니까?

사부: 역시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동(不同)한 층차의 부동(不同)한 것이 당신 몸에 체현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상태가 갈수록 적어지긴 하지만 무엇이나 다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 주겠다. 태상노군(太上老君)은 이런 한마디 말을 했고, 도가 서적 중에도 이런 한마디 말이 있다. 수련이 얼마나 높은지에 상관없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이는 속인 중에 있기 때문이다.

제자:法輪大法(파룬따파)와 종교는 모순되지 않습니까?

사부: 역사상 우리는 종교로 들어간 적이 없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이 속인 중에서 수련하고 있는바,法輪大法(파룬따파)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의 목적이란, 한 면은 수련하는 것이고, 한 면은 사람을 도화(度化)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게끔 하며 인간 세상에 도덕이 오래 존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것이 종교가 하는 두 가지 일이다. 우리가 속인 중에서 수련하는 것 역시 이러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종교형식이 없다. 장래에는 전업으로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는 제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이 한 걸음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지금 이미 대법을 수련하는 화상이 있다. 어쨌든 우리 이 법은 사회에 유익하며 사람에게 유익하다. 우리는 사회정치에 간섭하지 않으며 정부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국가에 대해서나 속인사회에 대해서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 모두 해로운 점이 없으며 다만 좋은 점만이 있을 뿐이다.

제자: 저는 가부좌할 때 늘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와 자신이 아주 작게 변하는데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부: 이것도 정상적이다. 이는元神(웬션)이 아주 작기 때문인데 또 아주 크게 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연공할 때 신체는 밖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을 떠받치고 땅 위에 우뚝 선(頂天立地) 것 같은 감을 느끼며, 어떤 사람은 아주 작게 변한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데 모두 정상적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수련하는 사람이 만약 좋지 않은 일을 하면 아래로 떨어지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층차가 떨어져 내린 것으로서, 신체의 용량

도 축소된다.

제자: 근 몇 개월간, 저는 꿈속에서 늘 주위의 일부 친지들과 함께 아주 미끄러운 진창 속에서 바빠 보냈습니다.

사부: 이것이 바로 사람은 속인 중에 있다는 것이며 남이 보건대 인류는 바로 흙장난을 하고 있다.

제자: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여 정과를 얻었다면 반드시本體(번티)를 갖고 가는 것입니까?

사부: 우리 이 법문이 요구하는 원만은本體(번티)를 갖고 가는 것이다.本體(번티)를 가지지 못하고, 이 신체가 이런 형식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안 될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으로 수련하면 거의 다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로지과위(果位)에 진입하여世間法(쓰젠파) 수련을 벗어나기만 하면 당신의 신체는 이미 성취된 것인데, 많은 사람이 이미 여기까지 도달하였지만, 자신은 모르고 있다. 이는 신체 일부분이 잠겨 있어 일부 속박을 받으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수련함에 따라 더욱더 뚜렷해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해야겠다. 아마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원인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원만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만 다른 층차 중에서 천인[天人(神仙-신선)]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변화가 아주 적다. 사실 이것도 일반